현대불교

제 774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2010년 3월 10일 수요일 (음력 1월 25일 · 불기 2554년 · 주간)





"4대강 거버넌스 구축하자"

불교환경연대·에코붓다, 4대강 심포지엄 열어 대정부 권고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수경)와 에코붓다(대표 법륜)는 3월 4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4대강 개발, 다른 대안은 없는가?'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4대강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불교계를 비롯해 각 분야 전문가들과 시민 등 사부대중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시인 신경림씨는 격려사에서 "지켜만 보고 있는 우리도 역사의 죄인이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박재완 기자

정부의 4대강 사업 강행에 대한 국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 환경 · 생태 분야 전문가들이 4대강 사업에 대한 대정부 권고를 발표했다.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수경)와 에코붓다(대표 법륜)는 3월 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4대강 개발, 다른 대안은 없는가'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관련기사 3면

이날 행사는 환경과 생명의 가치 보존을 중심에 두고 한국불교가 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대중적 의사를 결집해 4대강 사업 저지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지난 3개월간의 연구 · 토론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다.

불교계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대정부 권고를 통해 △국민과 합의 · 동의과정을 거칠 것 △본류에 앞서 지천부터 살릴 것 △법적 절차를 따르고 충분한 환경영향평가조사를 진행할 것 △대안 · 대책 마련 후 신중하게 시행할 것 △시범지역 시행 후 확대 시행을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

에코붓다 유정길 대표가 발표한 권고에서 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은 22조원이 훨씬 넘게 투입되는 거대 토목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국민과의 합의와 동의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4대강과 관련된 지역주민, 시민, 전문가들과 함께 거버넌스(협치)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문가들은 "홍수피해와 가뭄이 본류인 국가하천이 아니라 지방하천 · 소하천 등 지류에서 발생한다"며 "수질개선과 홍수예방, 수량확보 등을 위해 4대강 사업을 해야 한다면 지류부터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졸속으로 처리된 문화재지표조사 등 환경영향평가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지역주민, 자연과 생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연과 공생하는 개발을 위해 MB정부는 4대강 사업을 현 정권의 임기 내 완공하겠다는 욕망을 포기해야 한다"며 "현 세대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사업인 만큼 4대강 사업 시행에는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4대강 사업은 일단 시행되면 돌이킬 수 없을만큼 피해규모가 상상을 초월한다. 국가예산 낭비를 막는 등 시행착오를 막기 위해서라도 규모가 작은 몇 곳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해 사업을 충분히 평가한 뒤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날 행사에는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을 비롯해 前 천주교 수원대교구장 최덕기 주교, 신경림 시인, 이부영 前 국회의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은 격려사에서 "모든 사회 · 자연 · 법률 질서가 무너진 상황이라면 경제가 나아진 것은 의미가 없다"며 "우리 모두 자기위치에서 자기 직분을 다하지 못해 생명을 위협하는 사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이웃에 대한 연민 · 사랑이 이 자리를 만들었다. 4대강 대안 권고가 받아들여져 우리가 바라는 편안하고 안락한 '정토'가 구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수경 스님은 인사말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개발이라는 거대 국토개조사업을 자신의 임기 안에 완공하기 위해 환경 사회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대규모 개발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교육 · 의료 · 복지 · 지방자치 등 서민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스님은 "불교가 인간다운 삶의 버팀목이 돼 4대강 저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이 자리가 4대강을 실질적으로 살리는 대안을 마련하는 일말의 기미라도 보인다면 보람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은 "선사시대부터 지금까지의 문화와 자연환경을 담고 있는 4대강을 세계문화유산(세계복합유산) 예비 후보로 등재하기 위해 준비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불교환경연대 명계환 정책팀장은 이번 심포지엄에 참가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가칭 사단법인 불교환경문화연구소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선주 기자 Zoo211@buddhapia.com

▶6 현장-불레협 율동 ▶14 선지식-법타 스님 ▶8 인터뷰-정호 스님 ▶23 강의실-홍세화

어린이 영어법회? 기반 먼저

포교원 워크숍 "지도자 없다" 이구동성

어린이 법회 모습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다. 요즘 어린이들에게 법당은 재미없는 곳이 됐다. 어린이 포교에 늘 뒷전이었던 불교계는 90년대부터 어린이불자가 급격히 줄어 이제는 찾아보기도 힘들다.

최근 조계종이 영어법회 교재 <헬로 달마스쿨>을 이용한 영어법회 봉행을 준비 중이지만 3월 본격 운영을 앞두고 지도인력 확보 및 양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은 2월 28일~3월 1일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제1회 어린이 영어법회 지도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전국 어린이 영어법회 시범지원 사찰 20여 곳에서 80여 지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영어법회를 진행할 지도자가 없다"는 등 사업 운영에 대한 호소가 가득했다.

영어법회는 영어라는 소스를 넣어 더 맛깔스럽고 재미있게 하는 법회다. 결국 핵심은 영어가 아니라 법회다. 어린이 영어법회 활성화를 통한 새싹 불자 유입으로 어린이 포교활성화의 획기적인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지도자가 없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유정 어린이 영어법회 시범사찰 교육위원은 "어린이 영어법회 지도자는 영어, 불교 실력은 물론 심성교육을 하는 교사로서의 능력도 필요하다. 일선 사찰에서 영어 법회를 하고 싶어도 영어 · 불교 · 심성을 고루 갖춘 지도자가 없기 때문"이라 진단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 국제포교사단 박상필 회장은 "국제포교사의 영어법회 지원이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그동안 영어법회를 진행해온 각 사찰 영어 지도 법사들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국제포교사 차원에서 영어법회 지도자 양성과정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선 사찰 관계자는 "원력과 신심으로 각종 법회 프로그램, 교재, 교구 등을 개발하고 인력을 양성하고자 해도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종단차원의 안정적 후원만 있다면 영어법회 지도자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포교정책의 일관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포교원은 2007년 조직된 어린이청소년팀의 운영 시한이 올해까지인 만큼 이를 대신할 '어린이청소년위원회'를 2009년 12월 발족했지만 법적으로 뒷받침할 종령은 검토수준에 머물고 있다.

교계에서는 "영어법회를 비롯해 이제 갓 모심기에 들어간 어린이 · 청소년 포교가 정상 궤도에 오르려면 종단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상언 기자

의료비 감면 협약

조계종 · 동국대

앞으로 동국대 병원을 이용하는 조계종 사부대중은 의료비 중 최대 20%를 감면받게 됐다.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자승)은 동국대(이사장 정련)와 3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의료비 감면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협약이 체결되면 조계종 신도증 소지자는 동국대 동국의료원 산하 5개 병원 이용시 비급여항목 15%, 건강검진 등 20%를 감면 받는다.

또 스님과 목사, 신부, 수녀 등 이웃종교 성직자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25%도 감면된다.

조계종 대변인 원담 스님(총무원 기획실장)은 "최근 약대를 유치한 것처럼 종단과 동국대가 힘을 모아 신도들과 이웃 종교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향후에도 불자와 국민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C774-22010.3.81:28PM페이지1(1,1)

직영사찰 해지 · 부원장제 도입 논란

총무분과위 반려 결정… 의원발의로 본회의 상정 여부 관심

3월 임시종회를 앞두고 '소통'과 '화합'을 지향하는 제33대 집행부의 각종 입법안 추진이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의 핵심은 선본사의 직영 해지 및 서울 봉은사 · 도선사 직영 전환, 부원장제 도입안이다.

조계종 총무원은 3월 3일 종무회의에서 선본사를 특별분담금 사찰로, 봉은사 · 도선사를 직영사찰로 지정하는 안과 총무부원장제를 신설하는 안을 8일 임시종회에 제출키로 결정했다.

직영사찰은 총무원이 직접 운영하는 사찰로 총무원장이 당연직 주지를 맡으며, 관리인을 임명한다. 특별분담사찰은 재정 상태가 우량한 일반사찰 중 종단 분담금을 특별히 부과 받은 사찰이다. 총무부원장직은 총무원장 유고시 권한을 대행하며 각종 행정적 업무를 분담하게 된다.



4일 열린 총무분과 회의에서 소속 종회의원 스님들이 총무부가 제출한 상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위 안건은 그동안 공론화의 과정이 없었던 데다가 이해 당사자간 호불호가 명확하다는 점에서 안건 상정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일각에서는 선본사가 1994년 종단 개혁 당시 재정투명화 등을 목적으로 직영사찰로 지정된 의미를 들어 총무원 측이 직영 해지를 요구한 것에는 암합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총무원이 직영사찰로 편입시키겠다는 봉은사와 도선사도 기존 사중 및 문도 스님들을 중심으로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총무부장 영담 스님은 4일 중앙종회 총무분과회의에서 "선본사는 1994년 개혁 시 여러 문제로 직영사찰로 지정됐다. 제33대 집행부는 은해사 말사인 선본사를 돌려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선본사를 직영 해지하고 봉은사 · 도선사를 직영사찰로 편입시키자는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총무분과위원 진화 스님(봉은사 부주지)은 "1994년 개혁 당시 재정투명 등의 이유로 지정된 큰 의미가 있는데도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갑작스럽게 제출됐다. 특히 종회 사무처 의안 접수 마감시한인 3월 2일을 넘겨 제출한 사안"이라며 "특정 사찰을 해지하고, 그 이유로 다시 특정 사찰을 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총무분과 소속 몇몇 스님들도 "선본사는 갓바위 돈이 정치권으로 흘러나가는 등 문제로 1994년 개혁의 도화선이 됐던 개혁정신의 상징"이라며 "직영사찰 해지는 종도들과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님들은 "총무부원장직 신설도 직책을 하나 새로 만드는 단순한 의미가 아닌 만큼 종도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속되는 토론에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영담 스님은 "갑작스럽게 결정됐다는 의견이 있지만 2주가량 내부적으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친 사안"이라며 "의견 수렴을 못했다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10여 년이 흐르는 동안 문제들이 해소됐다는 판단이다. 상정해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결국 투표에 부쳐져 5:4로 반려키로 결정됐다.

이날 반려된 안건에 대해 총무원은 총무분과위원회의 반려 결정과 상관 없이 본회의 의원발의를 통해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종회법은 20인 이상의 의원 동의시 안건 상정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직영 사찰은 종무회의 의결과 중앙종회 승인을 얻어 총무원장 스님이 지정하며, 특별분담금 사찰은 종무회의 의결과 중앙종회 동의를 거쳐 지정된다.

한편, 직영사찰 지정에 관해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을 비롯한 봉은사 스님들은 3일 총무원장 스님을 방문해 직영사찰 편입에 관한 사중의 뜻을 전달했다. 도선사 청담문도회도 4일 긴급문도회를 열고 문도회 입장을 담은 문건을 총무원에 전달했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동국대 이사후보 갈등

통도사 "사중 동의없이 후보 추천"

종립학교관리위원회(이하 종관위)가 관행을 깨고 종책모임 스님 위주로 동국대 이사후보를 선출한 것을 두고 월정사 측 주장에 반론이 제기되고, 통도사는 내홍 조짐이 이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동국대 前 이사장 영배 스님은 최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월정사 스님들이 종회의 결정 사안을 운운하며 동국대 이사후보 선출에 출자사찰에 대한 기여도를 요구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월정사 측이 말하는 1990년 2월 21일 개최된 제99회 긴급 비상 중앙종회 본회의에서 학교 설립에 기여도가 큰 출자 사찰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종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강제성은 없었다"라고 반박했다.

특히 영배 스님은 "이번 종관위에서 통도사 측 이사 지분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라며 "범해 스님(서울 개운사 주지)과 정호 스님(포교원 포교연구실장)은 통도사 재적스님이 맞다"고 설명했다.

영배 스님의 해명처럼 "두 이사 후보 스님이 통도사 재적 스님"임에도 통도사는 내홍 조짐이 일고 있다.

이사 후보에 올라 선출을 기대했던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은 종관위 회의가 열렸던 2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회의 결과를 기다리다 동대 이사 후보 선출에서 낙마했다는 소식에 통도사로 돌아갔다.

이후 통도사 측은 정우 스님을 중심으로 "통도사 측 지분으로 상정된 후보 스님들이 주지는 물론 방장스님과도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동국대 이사 후보가 각 계파의 안배에 의해 이뤄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번 기회에 동국대 이사 선출 방식을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한 종회의원 스님은 "동국대가 더 큰 발전을 하려면 과거의 공적을 대를 잇는 방식이 아닌 이사직 선출과 함께 학교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이 이사가 돼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한편, 계파를 우선한 동국대 이사 후보 선출을 비롯한 선본사, 봉은사, 도선사의 직영사찰 해지 · 편입 논란, 총무원 부원장직 개설 시비 등 총무원 · 중앙종회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논란들이 계파간 연대를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조동섭 기자

해인사 조사 착수

조계종 중앙종회

조계종 중앙종회가 해인사 고불암 경매 및 골프장 건립 등 해인사 현안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호법분과위원회(위원장 법광)는 3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18차 회의를 열고, 초격 스님을 소위원장으로 혜오 · 자현 · 영관 · 현조 스님을 소위원으로 하는 해인사 조사 소위 구성을 결의했다. 회의에는 위원장 법광 스님을 비롯해, 종호 · 태진 · 태관 · 초격 · 의연 · 재현 · 수연 스님 등 8명이 참석했다. 호법분과위원회 스님들은 동일 안건으로 상정된 조계사와 관음사 문제는 소관이 아니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소위 명칭은 미정으로 봉축일까지 3개월 동안 활동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주민들 위해 골프장 관둬라"

해인사 골프장 반대위 총무원 협조요청



가야산 국립공원 골프장 조성 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김창기 · 사진, 이하 가야산골프장반대위)가 3월 3일 총무원 사회부를 찾아 해인사 골프장 설치 반대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남 합천 덕국리 주민들로 구성된 가야산골프장반대위는 총무원 사회부장 혜경 스님을 만나 가야산 골프장 재추진과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면담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가야산골프장반대위는 사회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야산 주변 1500여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골프장 부지로 선정된 곳에서 특산물의 연 매출이 150억 원이다. 공사가 진행되면 주민들 생활은 매우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해인사 골프장은 2003년 법의 심판을 받은 적이 있다. 당시 대법원은 국립공원과 문화재 전통사찰인 해인사에 골프장 설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었다. 하지만 골프장 사업자인 (주)백운이 골프장 추진을 강행하는 중이다.

조계종 환경위원회는 "사업주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가 불허될 수 있도록 대법원 판례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행정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박선주 기자**

자연공원 내 납골시설 적법

금선사, 종로구청 상대로 대법원서 승소

자연공원 내 전통사찰 납골시설 설치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조계종 금선사(주지 법안)는 3월 5일 "사찰 내 납골시설 설치와 관련해 종로구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금선사는 2006년 종로구청에 납골당 건립 허가 신청을 냈지만 구청 측이 "사설 납골당 설치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사찰 내 납골당 설치는 자연공원법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연공원 내 허용되는 행위인 '불사를 위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에 해당하고', '자연공원의 경관을 해치거나 보존 ·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으므로', 관청의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소송을 대리한 김형남 변호사(신아법무법인 운영대표)는 "판결을 통해 확인된 법원의 입장은 전통사찰에서의 기존 건물을 이용한 납골당 설치가 우리 전통의 장례풍습에 부합하며, 불교 전래의 화장문화가 자연공원 내외를 막론하고 존중돼야 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는 "북한산 등 자연공원에 위치한 전통사찰 내 납골당을 종교시설로 보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 말했다.

한편, 1심 법원도 대법원과 유사한 판결을 내렸다.

조동섭 기자

자승 스님 당선무효 피소

호법부 "종단법 따라 대응"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취임 석 달을 넘긴 때, 전북 한 사찰 주지 스님이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해 물의를 빚고 있다.

3월 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진안 금당사 주지 성호 스님은 조계종을 상대로 총무원장 자승 스님 당선무효 확인 소송을 2일 제기했다.

금당사 주지 성호 스님은 소장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1992년 실시된 중앙종회 선거에 입후보하면서 자격기준을 맞추기 위해 승적을 변조했다. 또 동화사불교전문강원을 졸업했다는 허위사실을 신고해 현재까지 이를 이력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자승 스님의 당선무효를 주장했다.

한편, 성호 스님은 초심호계원에 징계가 회부 중인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금당사 관계자는 지난해 총무원장 선거 당시 자승 스님의 승적 변경의 내용을 담은 괴문서를 전국에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3월 4일 진행된 괴문서 용의자에 대한 초심호계원 심리심판은 불출석으로 연기됐다.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 관계자는 "성호 스님이 총무원장 스님을 사회법에 제소한 것은 종단 법규에 따라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이번 안과 관련해 호계원에 추가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승 스님의 승적위조와 관련해서는 2009년 9월 각신 스님이 조계종 법규위원회에 문제 제기했으나 각하됐다. 같은 해 10월 대한불교조계종정법수호재가회가 자승 스님을 상대로 낸 후보등록정지가처분신청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노덕현 기자**

제79차 종립학교관리위원회 결과에 대한
제4교구 본 · 말사 주지의 입장

2월 25일 열린 제79차 종립학교관리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대해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본 · 말사 주지일동**은 동국대학교의 설립에 기여도가 큰 출자 사찰에 대하여 해당 사찰의 의견을 존중하여 이사직을 배정하였던 지금까지의 불문율이 깨진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문율은 중앙종회 본회의에서도 논의되어 본회의의 의결에 반영된 바 있습니다.1990년 2월 21일 개최된 제99회 긴급 비상 중앙종회 본회의에서는 동국대학교 이사 및 감사 선출에 대한 안건을 논의하면서 동국대학교 설립에 기여도가 큰 출자 사찰에 대한 이사직 배정에 대해 토론이 있었습니다. **출자의 많고 적음이지 동국대학교 설립에 출자하지 않은 사찰이 없기에 배려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과 설립 기여도를 인정하여 이사직을 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토론 되었습니다.** 중앙종회 의장스님께서 동국대학교 이사 선출 결과를 발표하시면서, 동국대학교 이사 선출은 출자사찰 전체를 예우할 수 없지만, 출자가 많은 월정사와 통도사, 백양사는 예우하여야하기에 각 사찰의 스님을 이사직에 배정하여 선출하였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금번 회의를 보면 통도사의 경우에는 통도사 소속 스님들로 선출이 이루어졌으나, 동국대학교 설립에 가장 많은 재산을출연한 사찰인 월정사는 월정사와 아무 연관도 없는 선각스님(해인사 주지)과 종호스님(쌍계사 중앙종회의원)이 정념스님의 후임 이사 후보로 선출되었습니다. 특히 동국학원 이사 후보로 복수 선출된 네 분의 스님 모두 특정 종책모임 소속이라 하니, 이는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는 선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불교를 내걸고 힘차게 출범한 제33대 총무원이 한국불교의 도약과 중흥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안팎으로 도와야 할 시점입니다. 이 시기에 합리적인 이유와 대중적 동의 없이 기존의 합의와 불문율이 무너지는 것은 교계언론에서도 종단 내 갈등의 소지가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종단 발전과 중흥을 위해 모두 힘을 모을 때입니다.

이에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본 · 말사 주지일동은 **종립학교관리위원회가 출자 사찰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해 주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후임 동국학원 이사 후보를 재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단의 화합과 중앙종회에서도 인정된 이사 선출의 불문율이 지켜질 수 있도록 **선각스님과 종호스님께서는 이사 후보를 사퇴하는 용단을 내려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중앙종회의원스님들께도 호소합니다. 금번 회의 결과대로 본회의에 안건 상정 요청이 있으면, 제99회 중앙종회 본회의의 의결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안건을 반려 내지 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불기 2554(2010). 2. 25.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본 · 말사 주지 일동

“사업 저지가 진정한 수행”

4대강 심포지엄… 불교·환경·사회·정치 관점에서 잘못 지적

천성산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내던졌던 지율 스님은 “생명에는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수경 스님을 비롯한 조계종과 불교사회단체 사부대중은 대운하와 4대강 개발 반대를 위한 오체투지, 4대강 순례 등 크고 작은 실천을 통해 개발 계획 철회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4대강을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불교환경연대와 에코붓다가 공동주최한 ‘4대강 개발, 다른 대안은 없는가’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내용을 각 분과별로 간추렸다.


심포지엄에 참여한 사부대중은 불교 · 환경 · 사회 · 정치 어느 시각으로도 4대강 사업은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심포지엄은 1분과 서재영 불학연구소장, 2분과 박병상 인천도시 생태환경연구소장, 3분과 이동흡 한양대 국문과 교수, 4분과 서왕진 前 환경정의 사무처장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1분과 불교 생태적 관점 4대강 사업은 대량살상

‘생태(生態)’는 살아있는 것이 드러내는 아름다움이며 생동하는 마음 상태이다. 우리는 국가권력에 의해 뭇 생명들이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한국의 4대강은 국토의 대동맥이고 대정맥이다. 4대강에 본격적으로 장비가 투입된 이후 여기저기서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 공사가 지속되고 확대될수록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 인공적으로 박제화 된 공사 후의 모습은 국민의 친환경적 사유세계를 변화시킬 것이 자명하다. 4대강사업은 국가권력에 의해 한반도의 인문 · 지리적 환경질서를 파괴하는 사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현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통해 욕망하는 것은 청계천과 같은 제2의 건설성공 신화이다. 청계천 복원은 거대한 콘크리트 어항을 만든 것에 불과했다.

‘4대강 사업’은 지속가능하지 않고 위법적이다. 70%에 가까운 국민들의 반대와 전문가들의 우려를 무릅쓰고 비민주적 방식으로 강행되는 현실에서 정권과 기득권을 공유하려는 자들의 탐욕을 볼 수 있다.

4대강 사업을 위해 진행되는 대규모 토목공사는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무수한 생명 터전을 파괴하는 대량살상이다. 환경파괴와 대량살상을 막는 것이 진정한 방생의 실천이다.

불교적 시각으로 4대강 사업 강행은 독선의 아집이다. 국민과 소통하지 않은 4대강 사업은 몰자비한 처사이며, 제법인 존재를 파괴하는 악행이다.

#2분과 환경 · 생태적 관점 4대강 사업의 ‘보’는 운하

한반도 대운하가 국민의 저항에 의해 저지되자 정부는 ‘보’를 만들 것을 요구하며 4대강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보는 운하와 차이가 없어 보인다.

흐르는 하천에 보나 댐 같은 횡단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면 물의 흐름이 정체되고 유속이 느려지면서 하천이 아니라 호소(늪과 호수 등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물이 흐르지 않고 정체된 수역)화된다. 강이 호소화되면 정체수역으로 바뀌면서 각종 하수나 폐수 등 유기물질이 유입돼 인(燐) 같은 영양물질이 많아지고 수생생물의 성장과 번식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부영양화(영양물질이 풍부해지는 현상)를 초래한다.

이에 따라 물속의 산소가 결핍되고 결국 수질악화가 발생한다.

특히 본류에 유입되는 지천(支川)의 오염물질이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류의 유속이 느려지거나 차단되면 수질악화는 더욱 심각해진다. 정부가 계획하는 남한강의 3개의 보 사이에는 수질이 좋지 않는 두 개의 하천이 유입되고 있다. 남한강의 주요 지천인 양화천과 복하천은 갈수기에 생활환경기준 하천수의 4~5등급을 오르내리는 상태로 식수는 고사하고 농업용수로도 부적합하다. 이 조건에서 보를 설치해 물의 흐름을 차단하는 정체수역으로 바뀐다면 수질오염이 극심해질 것은 자명하다.

보를 설치해도 수질이 크게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현실을 모르는 것이다. 현재 팔당댐 상류지역과 한강 서울시계인 잠실 수중보와 신곡 수중보 사이의 수질을 비교하면 진실이 확연히 드러난다. 2008년 4~6월과 2009년 4~6월에 팔당댐 수질은 1급수를 유지하지만 잠실 수중보와 신곡 수중보에 의해 가로막혀 있는 노량진에서는 2급수로 떨어지고 가양에서는 3급수로 급락했다.

#3분과 사회문화적 관점 수몰 문화재 대책 절실

한강과 낙동강 및 우리나라 4대강에는 문화재가 분포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문화재청이 공개한 내역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예정지 주변에는 문화재가 총 243점이 있다. 이 중 지정문화재가 94개, 매장돼 있는 문화재가 149개다. 강과 맞닿은 연접 지역의 문화재도 65개로 파악되고 있으며 형식적으로 시작한 문화재지표조사(육안조사) 결과 1400 여 곳의 문화재분포지역이 확인됐다.

한반도 운하포기의 결정적 계기였던 역사문화 파괴에 대응하고자 4대강 주변의 역사문화유적에 대해 조사했다. 4대강 관련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한 23개 기관 모두 무허가기관이라는 웃지 못 할 사건이 벌어졌다.

즉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실시한 지표조사지역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3조(문화재지표조사)에 의거하면 문화재조사지역에 해당되는 것이다.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함에 수중조사를 반드시 조사해야 하는 지역이다.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80조에 의하면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은 육상지표조사기관과 수상지표조사시관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4대강 사업 지표조사 참여 23개 기관은 모두 수중지표조사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무허가기관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국토해양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문화재 조사는 원천 무효다. 국토해양부가 만약 이번 지표조사를 바탕으로 면피를 한다면 국토해양부장관은 문화재보호법 111조 4항 “문화재 지표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해당된다.

또 전체 조사면적 29만1300만㎡에 달하는 지역을 각 권역별로 나뉘어 23개 기관에서 1달 반 만에 육안조사했다. 이는 졸속조사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자문위원중 일부는 공무원(국립박물관, 문화재청)이 포함돼 있어 진정성에 의문이 간다.

#4분과 정치 · 경제적 관점 사업 강행, 비민주적 사업 표본

과거 개발독재 시대의 개발주의 성장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향수에 기반해 현 이명박 정권은 집권에 성공했다. 이명박 정권은 집권 직후 불거진 전 세계적 경제위기에 대응하는데 실패하고 70년대식 대규모 토목공사인 4대강 사업을 통해 만회하려 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이 중앙과 지방에 포진한 토건 세력의 지배력과 연대를 공고히 하는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보수 정권의 재창출을 이뤄내려는 정치적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4대강 사업의 추진은 정권적 차원의 권력이 집중돼 일방통행 식으로 진행되는 극단적인 비민주적인 사업의 형태를 드러내고 있다.

한국사회의 개발 및 성장 지상주의는 ‘토건국가’라는 구조적으로 형성된 국가형태를 통해 실현돼 왔다.

한편, 제1분과장 서재영 불학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불교는 생태환경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 돼 있지만 환경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공감이 적다”며 “불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신행생활이 환경운동으로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 4대강 사업 저지가 진정한 수행”이라고 강조했다.

글=박선주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불교온라인쇼핑몰
HyunbulShop
사은품 증정
족욕기 145,000
전화 02)2004-8216

죽비와 목탁

신도회 활성화, 스님부터 나서야

최근 수원 용주사 신도회(회장 민학기)가 ‘제2교구신도회의 활동방향과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조계종 포교원 포교부장 계성 스님은 ‘교구신도회의 역할제고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스님은 “전국 25개 본사와 군종특별교구는 지역 신도단체연합 성격의 교구신도회를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용주사 외 9교구본사 동화사, 17교구본사 금산사, 24교구본사 선운사 등 4곳 뿐이다. 그나마 신도회가 활성화 된 곳은 용주사 등 2곳 뿐인 실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신도회 이상근 사무총장은 “스님들의 ‘신도회와 같은 별도의 조직이 필요 없다’ ‘신도회가 있으면 오히려 갈등과 혼란을 부축한다’는 인식 먼저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학기 용주사 신도회장은 “현행 신도회는 권한은 사찰에 종속돼 있고 운영은 방관된 경우가 많다”며 “교구본사 및 각 사찰은 신도회의 자생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도회 등 신도조직 활성화에 대해서는 종단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현재도 포교원을 비롯한 조계종 제33대 집행부는 ‘신도교육 및 조직화 4개년 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진행 중이다. 사업은 ‘100만 신도 등록, 10만 교육훈련 신도, 1만 전문 인력 신도 양성’ 달성을 목표로 한다.

부처님 제자는 사부대중이다. 비구, 비구니, 우바새, 우바이 사부대중(四部大衆)의 화합된 무리가 집단의식을 구현하는 곳이 승가(僧伽)다. 사부대중은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공부하고 수행하는 도반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불교에서 재가자는 출가자의 아랫사람에 지나지 않았다.

용주사 신도회의 이번 행사가 포교 정책의 핵심에 있으면서도 항상 한국불교의 숙원사업으로만 머물러 있었던 재가신도 조직의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더 나은 불교는 있다

‘불교평론’ 제42호서 해법 제시

“한국 불교의 해법은 △종무행정 조직의 합리화와 효율화 △사회 · 역사와 소통 · 부합하는 승가교육 △포교와 신행의 혁신에 달려있다.”

‘더 나은’ 불교에 대한 문제제기와 해법제시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계간 <불교평론>(편집인 홍사성) 제42호에서 새로운 시각의 해법이 제시돼 눈길을 끈다.

이병두 칼럼니스트는 기고문 ‘합리화 · 효율화 시급한 행정조직’에서 “현재 종단행정에는 역경 · 도제양성 · 포교의 3대 과제가 실종됐다”며 “이들 과제에 대한 종단적인 의욕은 크지만 종무행정이 세속사회의 것을 급하게 모방하면서 생긴 문제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총무원에 인사와 재정 등 모든 권한이 집중되고 종무원 채용에도 전문가가 없는 것은 문제”라면서 “기관별 인사와 재정 독립성을 보장하고 호계위원 · 법규위원 선임에 앞서 자질 검증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인 스님(조계종 교육원 교육부장)은 기고문 ‘승가교육, 사회와 소통하고 역사에 부합해야’에서 “불자 감소와 고령화의 해법을 승가교육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바람직한 승가교육이 되려면 △출가자로서 분명한 자기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 △사회와 소통하고 역사에 부합할 수 있는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포교와 신행, 구태를 벗어라’는 기고문에서 “포교주체의 재정립 먼저 한국불교가 극복해야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사찰이 도심지역에 적절하게 분포되지 못해 포교 역량은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며 “종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단위사찰이 전국적으로 분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언 기자

초기 선종의 가르침과 행법의 전모를
온전히 전해주는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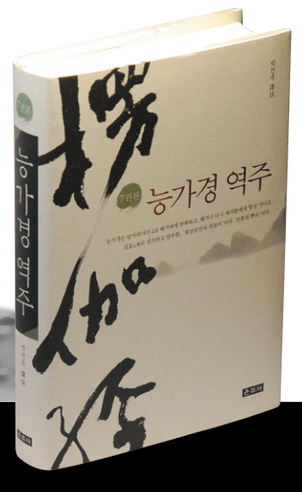
7권본 능가경 역주

‘선종의 뿌리’ 이자 ‘최상승선의 지침서’

“이 『능가경』 4권을 너에게 부촉한다. 이 경은 여래심지心地의 요문이며, 모든 중생을 개시오입開示悟入하게 할 것이니라.”
_달마대사가 혜가에게

“내가 보건대 중국에 오직 이 경이 있을 뿐이다. 인자仁者가 이에 의지하여 행한다면 스스로 증득하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_달마대사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세밀하고 난해하여
그동안 외면 받아 온 『능가경』에 대한
정확하고 상세한 역주!



근현대 한국불교가 걸어온
역사의 발자취를 대중적 눈높이에 맞춰 풀어쓴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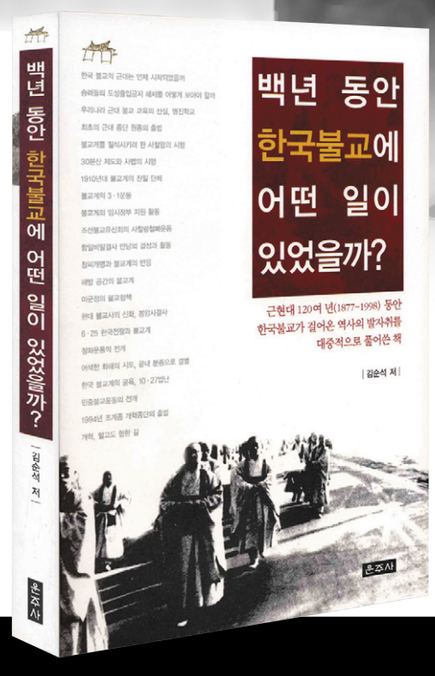
백년 동안 한국불교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근현대 한국불교사의 길라잡이

1870년대 개항으로부터 일제강점기, 해방, 정화, 그리고 1990년대 개혁까지,
120여 년 동안 우리 불교계에 일어났던 주요 사건들을 가려내, 각각의 배경과
전개과정, 그리고 불교사적 의미를 성찰한다.

근현대 한국불교를 관통하는 사건, 단체,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것들이 주는 역사적 교훈은 무엇인가?



일 주 문



동산불교대학 제32회 졸업식

동산불교대학 학장 무진장 스님은 2월 28일 동산불교회관에서 동산불교대학 32회 및 동산불교대학원 제23회 졸업식을 봉행했다.



수덕사 선 미술관 개관

예산 수덕사 주지 옹산 스님은 3월 26일 고암 이응노 화백의 생전 작품을 담은 선 미술관 개관식을 봉행한다.



은해사 영천 윷놀이 대회 개최

영천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은 2월 28일 경내에서 정월대보름을 맞아 제7회 영천 윷놀이 대회를 개최했다.



경북대 불교학생회에 장학금

동화사 주지 허운 스님은 2월 27일 열린 경북대 불교학생회 동문회 창립 50주년 기념법회에서 재학생 및 동문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실천불교승가회 정기총회

실천불교승가회 대표 법안 스님은 3월 5일 템플스테이통합정보관에서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제14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민추본 사단법인 등록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본부장 명진 스님은 3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민추본 통일부 사단법인 등록을 위한 발기인회의를 열었다.



육군3사 45기 졸업 및 임관법회

군종특별교구 부교구장 화랑 스님은 2월 28일 육군3사관학교 제45기 졸업 및 임관법회에서 사관생도들에게 활발한 군신행생활을 당부했다.



도광선원 의천 스님 안양시장 표창

안양 도광선원 주지 의천 스님은 3월 2일 안양지역 발전 및 봉사포교와 주민자치 활성화를 통한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으로 안양시장 표창을 수상했다.



중앙신도회 정기임원법회

김의정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은 3월 15일 전법회관에서 조계종 중앙신도회 정기임원법회를 봉행한다.



불교여성개발원 여성리더십 교육

이은영 불교여성개발원 원장은 3월 16일 '내 안의 불성을 실현하는 제6기 불교여성리더십 교육'을 개최한다.

"용주사는 세계적 효행문화의 중심"

정호 스님, 2일 산중총회서 만장일치 주지 재임

조계종 제2교구본사 주지에 정호 스님이 만장일치로 재임했다.

3월 2일 산중총회에서 추대된 정호 스님은 "교구 복지 향상과 효문화 · 수행환경 보전에 진력하겠다"며 "훼손 위기에 처한 용주사와 융건릉을 보전하기 위해 문도 스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대중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정호 스님은 고려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1973년 인천 용화사에서 전강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1975년 법주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스님은 1973년 용화사 법보선원 수선안거 이래 30하안거를 성만했으며, 지난 2006년 3월 12일부터 용주사 주지로 임해왔다.

그동안 용주사는 정부의 융건릉 일대 택지개발로 인해 사찰수행 환경이 침해돼왔으며, 정호 스님을 비롯한 용주사 대중들과 문화계는 이에 맞서 문화유적 융건릉과 불교전통사찰 용주사를 가칭 효문화 성역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2009년 5월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융건릉 일대 개발 중단 기자회견에서 보존 당위성을 역설하는 정호 스님.

스님은 "우리 고유의 사상과 철학, 그중 대한민국이 차별성있게 내세울 수 있는 문화가 바로 효문화"라며 "정조의 효심이 서린 융건릉을 능으로만 평가해 추진하는 무분별한 택지개발은 대한민국의 정신을 훼손하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정부의 미온적 자세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 사찰 수행환경을 지키고, 효문화를 널리 피는데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스님은 임기동안 사중 승려복지와 신행공간 조성에도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용주사는 전국 교구본사 중 최초로 말사 복지분담금으로 사중 스님들의 노후연금 및 주거시설을 제공하는 경로연금제도를 시행하는 등 승려복지의 선구적 사찰로 자리잡고 있다.

수행승에 대한 본사의 혁신적 지원에는 수좌출신인 정호 스님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다.

스님은 "승려 본연의 자세인 수행과 전법에 스님들이 전념할 수 있는 사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잉여금이 모이면 구참스님들이 지낼 처소 마련을 위한 불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용주사는 지역민과 함께 하는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스님은 "지역 신도들의 신행생활을 수행으로 잇는 템플스테이교육관과 효행생활관을 올해 중 완공할 예정"이라며 용주사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직능직 대표 선출
월봉사 오심 스님



울산 월봉사 주지 오심 스님(사진)이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직능직 대표로 선출됐다.

조계종 직능대표 선출위원회는 3월 5일 오후 2시 조계종 총무원에서 회의를 열고 직능직 율원대표 중앙종회의원으로 오심 스님을 선출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심경)도 이어 제221차 회의를 열고 오심 스님의 당선을 확정하고 당선증을 수여했다.

오심 스님은 월하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0년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사미계를, 1987년 범어사에서 구족계를 수지했다. 스님은 1994년 해인승가대학, 1998년 중앙승가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 후 동국대학원 선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포교원 신도국장을 역임한 스님은 울산 월봉사 주지와 울산시립노인요양원장을 맡고 있다.

노덕현 기자

청주 · 청원 화합의 기틀 다져
불교신행단체 신년교례회 봉행



청주 청원지역 불자들은 이날 불교발전과 함께 자비실천을 다짐했다.

청주 · 청원 지역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비실천을 다짐하고 지역불교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뜻깊은 자리가 열렸다.

불교신행단체협의회(회장 이상칠)는 2월 26일 청주 썬플라자 컨벤션센터에서 불교단체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사)충북예비역불자연합회(회장 이만호)가 주관하고 청주청원불교연합회가 후원한 이날 행사에는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원봉 스님(보현사 주지)과 청주청원불교연합회장 해광 스님을 비롯한 지역 스님들과 박경배 충북 행정부시장, 이기용 충북교육감, 지역국회의원, 신행단체대표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불교연합회장 광해 스님(금불사 주지)은 격려사에서 "보왕삼매론에 어인불구순적(於人不求順適,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길 바라지 말라)이라는 경구가 있다"며 "상대방의 말을 공경하여 들을 때 화합하고 상생하는 원동력이 돼 불교계를 넘어 사회갈등을 치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혜철 충청지사장

몽골 돕기 후원의 밤
봉은사신도회 등 동참

몽골 고려사(주지 경산)와 한국 · 몽골 불교NGO단체 WOOD(World Of Dharma)는 2월 27일 서울시청 일대에서 몽골 돕기 기금마련 후원의 밤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봉은사 신도회, 금강선원, 마하 의료회, 동국대 참사랑 봉사단, 몽골불교대학 봉사자들이 참가했으며, 일일카페, 기념품 판매, 사진전 등으로 불자들의 성원을 모았다.

몽골 뎀베럴 스님은 "몽골은 현재 사막화로 인해 유목민들의 생활환경이 파괴되는 등 어려움에 처해있다. 기독교의 전략적인 선교에 비해 같은 불교국가들의 지원은 미미한 실정"이라며 불자들의 활발한 자비행을 당부했다.

한편, WOOD는 몽골 청소년의 바른 성장을 돕기 위해 설립된 불교NGO단체로 2006년 11월 정부의 인가를 받았다.

현재 WOOD는 청소년 교육을 넘어 의료 · 복지 · 교육 등 지역사회개발에도 힘쓰는 등 한 · 몽교류 증진에도 앞장서고 있다.

박선주 기자

금강불교대학
졸업 · 입학식 봉행

천태종 대구 대성사(주지 도산) 산하 금강불교대학은 3월 1일 경내 서원당에서 제5회 졸업(수료)식 및 제7회 입학식을 봉행했다.

행사를 통해 졸업생 150여 명과 학생 128명이 각각 졸업과 입학을 했다.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법어에서 "금강불교대학은 포교와 불교 발전, 인재양성을 위해 부처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도량"이라며 "이곳에서의 배움에 따라 실천하고 행동하는 신심있는 불자가 돼 달라"고 말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대보름 방생대법회
대구사원주지연합회

대구사원주지연합회(회장 법혜)는 2월 28일 경주 감포 나정해수욕장에서 정월대보름 방생대법회를 봉행했다.

올해 30년째를 맞은 사원주지연합회 방생대법회에는 대구 동화사 주지 허운 스님 등 40여 회원사찰의 사부대중 70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회장 법혜 스님은 "방생대법회는 생명존중의 자비사상을 일깨우고 평등과 봉사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조동섭 기자

등록금 · 임금 동결
동국대 이사회

동국대(이사장 정련)는 2월 25일 이사회를 열고 대학예산 1928억원 등 법인예산 5465여억원을 심의 · 결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대학의 우수교원 초빙을 위해 관리운영비를 축소하는 한편, 대학 등록금과 교직원 임금을 동결했다. 또,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외부 재원과 건축기금을 우선 편성키로 하고 신공학관 및 일산 강의동 건립에 각각 159억과 112억원을 편성했다.

조동섭 기자

대한국불교조계종 창종기념법회 안내

초 대 합 니 다

귀의 삼보하옵고,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법체 대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1세기 미래사회를 밝혀 나갈 한국불교의 새로운 종단 '대한국불교조계종 창종 기념법회'를 아래와 같이 봉행코져 하오니 부디 참석하시어 법석을 빛내 주시기 바라옵니다.

불기2554(2010)년 3월

대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 산 응 천 合掌

-아 래-

◎ 일 시 : 불기2554(2010년) 3월 21일(음력 2월 6일) 일요일 오후 2시
◎ 장 소 : 서대문문화회관(홍제동 백련사 입구, 서대문구 백련산길 19번지)
◎ 전 화 : 행사장 ☎(02)360-8553
◎ 문 의 : 총무원 ☎(02)379-5502, 379-0842

행사장 찾아 오시는 길

※ 지하철 : · 홍제역(3호선)3번출구 마을버스 10번(서대문문화회관 하차) · 신촌역(2호선)3번출구 마을버스 3번(서대문등기소 하차)
※ 버 스 : · 서대문등기소하차 도보3분 / (지선)7702,7017,7021,7018
· 동신병원(홍은3동 주민센터)하차 도보 5분 / (지선)7713,7738, 7720,7709 (간선)110,170
· 서대문구청하차 도보 10분 (지선)7017

종 정 이혜광
예경실장 법운

원로의원 묘현, 법신, 도우
총무원장 덕산응천
종회의장 혜광

예경원장 신해 감찰원장 능호 포교원장 대호 감사원장 묘관
교육원장 보명 고시원장 진봉 홍보원장 광현 사정원장 성도
선거관리위원장 광암 선원장 만응 철학원장 광설

비구니원 장 동성
비구니회 장 현준 부회장 통적
총 무 천광 재 무 종성 교 무 법운

서울강북교구원장 광선 부산교구종무원장 혜경
삼보신문사 사장 유재기(성운)

함께하실 종도여러분을 모십니다.
출가희망자는 총무원으로 연락바랍니다.
총무원 (02)379-5502

대한국불교조계종 ■ 총무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523-61 ☎ (02)379-5502, 379-0842 / 팩스 (02)379-0843

불자기업탐방-불제대원기업

사찰 전선 위험 무방비에 발심

오대권 대표 1989년 창사… 특허 30여 건



불제대원기업 오대권 대표(뒷줄 왼쪽 세 번째)와 임직원들이 손수 만든 연등을 들어보이고 있다.

"모~ 읓~"

불기 2554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둔 2월 27일, 불제대원기업(대표 오대권) 앞마당에서는 바쁜 중에도 잠시 일손을 놓은 직원들의 윷놀이 경연대회가 펼쳐졌다.

"내일이 대보름이잖습니까. 부처님오신날이 8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본격적인 작업에 앞서 신명나는 윷놀이로 직원 화합을 다지기 위해 오늘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1989년 경기 김포에서 문을 연 불제대원기업은 연등 · 인등 · 불제단 제작 등 관련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공장 곳곳에는 튼튼하고 예쁜 연등을 담은 연등박스가 가득했고, 공장 기계는 쉴 틈 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현재의 불제대원기업이 있기까지 수많은 난관이 있었다. 오대권 대표는 20여 년 전 전기 안전장구를 개발하는 회사를 운영 하던 중 부도를 맞았다.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분함에 마음 둘 곳 없었던 오 대표는 자주 산에 올랐고, 그 때마다 법당을 찾았다. 어릴 때부터 절을 놀이터로 여겼던 오 대표는 산에 가면 자연스레 발걸음이 절로 향했다.

오 대표가 어느 날 법당에 앉아 눈을 감았다 뜨니 천장에 연결된 전선이 금방이라도 타들어 갈 듯 위태로워 보였다고 한다.

오대권 대표는 바로 사찰 주지스님께 "이 전선은 너무 얇아서 전구하고 전압이 맞지 않아서 불이 날 수도 있어요" 라고 말했지만 "무슨 소리입니까. 10년 동안 말짱했는데…, 괜한 소리 말아요"라는 대답만이 돌아왔다. 그로부터 일주일도 안 돼 뉴스를 통해 그 사찰의 화재 소식을 들었다.

오 대표는 "더 큰 문제는 그런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는데 있었다"고 말했다.

오 대표는 "특히나 사찰에는 보물도 많은데 전선이 불연제로 만들어졌는지 꼭 확인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오대권 대표는 그때부터 법당에 쓸 전선 개발에 몰두했다. 그리고 '불제대원기업'을 세웠다. 그의 머릿속에는 부도 위기에서 재기하는데 큰 힘을 줬던 불교에 도움이 되자는 마음만이 가득했다. 그는 1990년 특허 1호를 낸 뒤 매일 새로운 아이디어로 지금까지 30여건의 특허를 취득했다.

오 대표는 사업 상 법당 시공 등을 하며 불교의 미래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

오대권 대표는 "절에 가면 할머니 엄마 따라온 아이들이 심심하다며 집에 가자고 한다. 불교계는 불사에만 힘쓸 것이 아니라 어린이 불자들이 즐길 수 있는 것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 청소년들이 불교의 미래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 대표의 소원은 좋은 아이디어와 제품으로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불제대원기업은 연등 및 법당 시공 후 끝가지 보수 등을 책임진다.

신명나는 윷장단을 뒤로 오 대표와 임직원들은 "언제든 믿고 맡겨 달라"며 활짝 웃었다. (031)986-0277

박선주 기자

수행포교 반세기, 이제 시작

경북대 불교학생회 50주년… 한마음장학회 출범

대구 경북대 불교학생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반세기의 구도열정 수행포교 원력으로'를 주제로 대법회를 열고 새로운 도약의 원을 세웠다.

경북대 불교학생회(동문회장 박경희, 이하 경불회)는 2월 27일 대구 프린스호텔에서 동화사 주지 허운 스님, 안동 봉정사 주지 자현 스님, 대구 정혜사 주지 원당 스님, 대불련 총동문회 명호근 회장, 동문 등 2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창립 50주년 기념대법회'를 봉행했다.



경불회 창립 50주년 기념법회에서 박경희 동문회장이 최근 불교동아리 활동이 존폐위기에 처했다며 "동문들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동화사 주지 허운 스님은 법어에서 "경불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이루고자 하는 원력을 성취하시길 바라며 대불련 활동이 1970~1980년대 같이 왕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박경희 동문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대학생 불자들의 구도열정과 스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질적 · 양적으로 발전했던 대학 불교동아리 활동이 최근 존폐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동문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동문들이 출연한 한마음장학회가 출범했다. 한마음장학회는 동문이 모금한 5000여 만원을 동문재학생과 동문 자녀에게 장학금으로 전달했다.

또한, 자랑스런 경불인상에 김우영 동문(62학번, 대구가톨릭대 명예교수)을, 특별상에 은장권 대불련 대구 · 경북동문회 사무국장을 선정했다.

한편, 경불회는 1958년 대구 대안사에서 대학생 불자의 모임이 태동된 후 1961년 연합회 형식으로 정식법회가 이뤄지면서 창립됐다. 창립 이후 지금까지 50여 년 동안 대구 · 경북지역 대학생불자들의 수행과 포교활동을 이끌어 왔다.

조동섭 기자 · 손법천 대구지사장

한국전 영령 위로 도선사·군종교구

도선사(주지 혜자)와 조계종 군종교구(교구장 자광)는 3월 3일 최전방 28사단에서 방생법회를 봉행했다. 신도 및 군장병 800여명은 이날 한국전쟁 당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한탄강에서 방생을 통해 당시의 젊은 넋들을 위로하고, 군부대 발전을 기원했다.

이번 방생법회가 진행된 28사단 무적 태풍부대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9개의 법당을 보유한 최전방 군포교의 산실로 일선부대 중 가장 많은 불자장병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선사는 그동안 28사단을 비롯해 최전방부대에 법당 불사 및 호국영령 천도법회 등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아 왔다.

혜자 스님은 "경제난으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군포교를 지원하기 위해 불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며 "젊은 불자 장병들을 한국불교의 새로운 등불로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대구봉축위 결성… 봉축 준비 착착

대구 봉축위원회(집행위원장 현관 스님)는 3월 2일 보현사 대구불교대학에서 결성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봉축행사 준비에 들어갔다.

현관 스님은 "올해 봉축행사 장소가 두류공원으로 변경되는 만큼 지역 불교계의 종단을 초월한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현관 스님을 비롯해 태고종 대구 종무원장 청운 스님 등 7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한편, 대구 봉축위원회는 4월 16일 봉축탑 점등식을 열고, 5월 15일 대구 두류공원에서 연등축제를 봉행할 예정이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청수사, 청수유치원 개원



대구 청수사는 2월 26일 청수유치원 개원식을 개최했다.

대구 청수사(주지 종열)는 2월 26일 부설 청수 유치원 개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형렬 수성구청장, 정순천 시의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수성구 지역의 불교 유치원 탄생을 축하했다.

청수 유치원은 6~7세반 4학급 120여 명을 정원으로 3월부터 첫 학기 교육과정에 들어간다.

한편, 수성구 범어동에 위치한 청수사는 10여년 전부터 청수 어린이집을 개원해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바탕으로 한 유아교육을 펼치고 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100자 뉴스

조계종·태고종 10일 봉원사 소유권 확정 협약

서울 신촌 봉원사 소유권을 확정하는 조계종 · 태고종 간 협약식이 3월 10일 열린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 스님은 10일 오전 11시 서울 조계사 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신촌 봉원사 소유권 문제에 관한 협약식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과 태고종은 1월 말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토지 강제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각각 결정한 바 있다.

진흥원특위 7일 진흥원 관련 조사보고서 확정

조계종 중앙종회 '불교진흥원제자리찾기 특별위원회'(위원장 의연, 이하 진흥원특위)가 진흥원과 관련된 모든 조사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3월 7일 최종 확정했다.

진흥원특위는 4일 열린 제10차 회의에서 보고서 채택 및 향후 활동 지속방향을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50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자료로 인해 보고서 작성이 늦어 결정을 미뤘다. 진흥원특위는 7일 제11차 회의를 열고 보고서 최종 확정을 했으며 8일 임시종회에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진흥원 설립취지 및 10 · 27법난과 진흥원 관계에 대한 각종 증언 요약본 등 자료 등이 담겼다.

연꽃마을 연천노인복지관 위탁운영키로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대표이사 각현)은 경기도 연천군에 소재한 '연천노인복지관'의 위탁운영체로 선정돼 오는 4월 중순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현재까지 복지시설이 전무했던 연천군은 45억 여 원을 들여 연면적 2433㎡(약 605평)에 지상3층 규모의 복지관을 2010년 4월에 개관할 예정이다. 각현 스님은 "연천군노인복지관을 농촌지역 최고의 선도적인 노인복지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 말했다.

대불청 우리역사바로알기불교운동본부 출범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정웅정)는 3월 1일 동국대학교에서 창립 90주년을 맞아 '우리역사바로알기 불교운동본부' 출범식을 개최했다. 우리역사바로알기운동본부(본부장 김형남)는 1000여 곳 친일인명사전보급운동, 심우장 성역화 사업 등을 펼칠 계획이다. 고문에는 지홍 스님, 수경 스님, 정념 스님, 배영진씨가 위촉됐다.

한편, 대불청은 이날 행사에 앞서 제31회 전국 만해백일장을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시 · 시조 · 산문분야에서 총 1756명이 참가한 가운데 시 · 시조부분 안양예술고등학교 3학년 이정민 학생, 산문부분에 군산여자고등학교 3학년 황미지 학생이 대상 수상자에 선정됐다.

조계종 제1회 불교미디어아카데미 개최

조계종 총무원이 미디어 변화에 발맞춰 불교언론계 역량 강화를 위한 아카데미를 연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실장 원담)은 4월 2~3일 충남 공주 전통불교문화원에서 교구본사 홍보담당자 및 불교언론인을 대상으로 제1회 불교미디어아카데미를 개최한다.

미디어 전문가 특강 및 현장실습교육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 접수는 3월 25일까지로 선착순 40명에 한해 진행된다. 참가비 3만원. (02)2011-1743



“말도 못하고 숨어서 눈물만 흘렸다”

원폭2세 환우 위한 ‘합천 평화의 집’ 개원

#국내 최초 원폭2세환우 위한 쉼터 설립

“아파도 아프다고 제대로 말 못하고 숨어서 눈물을 흘리던 세월이 참 많았습니다.”

국내에서 원폭피해자가 가장 많아 ‘한국의 히로시마’라 불리는 경남 합천군에 3월 1일 원폭2세환우의 인권과 복지를 위한 첫 쉼터가 생겼다.

국내외 빈곤 및 소외계층을 위한 구호단체 위드아시아(대표 지원 · WITHASIA)가 원폭2세환우를 위한 ‘합천 평화의 집’을 개원한 것이다.

해방 65년이 흘렀지만 한 · 일 간 아직도 미해결된 과거사가 남아있다. 일본군 위안부할머니 · 원폭피해자 문제가 대표적이다. 위안부 할머니들은 18년 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어 집회횟수 900회를 넘겼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사과도 배상도 않고 있다.

한국 원폭피해자들도 마찬가지다. 이들의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기는 하나 위안부문제만큼 주목받고 있지는 못하다. 일본정부는 자신들도 ‘원폭피해국’이라는 전쟁피해국 이데올로기를 내세워 일본 제국주의에 피해를 입은 한국 원폭피해자들에 대한 어떠한 공식사죄와 보상도 외면하고 있다.

1945년 8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됐을 당시 피폭자는 70만여 명에 이르렀다. 그 중 한국인 피폭자는 7만여 명으로 생존자 2만3000명은 한국으로, 2000명은 북한으로 돌아갔고 나머지는 일본에서 사망했거나 남겨졌다.

원폭피해자 1세대 상당수는 사망했고 2010년 현재 남은 이는 2600여 명이다. 피폭의 상처는 1세대에 그치지 않았다. 그들이 낳은 자녀인 ‘핵의 아이들’이라 불리는 2 · 3세대에게 병마와 가난은 대물림 돼 이어졌다.

이들은 다운증후군, 정신지체장애, 골다공증, 무혈성괴사증 등 정신 · 육체적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그동안 많은 원폭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폭2세 환우에 대한 실질적인 관심과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한국원폭2세환우회 한정순 회장은 “원폭2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나 실질적인 후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병고에 시달리는 우리들은 정작 마음 놓고 문제를 호소하고 해결할 변변한 공간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날 비가 오는 궂은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합천에는 뜻 깊은 날을 기념하기 위해 ‘합천 평화의 집’ 소장 혜진 스님, 지원 스님, 연호사 주지 진각 스님을 비롯해 원폭 1세대와 2 · 3 세대 자녀 100여 명이 참석했다.



원폭2세환우를 위한 ‘합천 평화의 집’이 문을 열었다. 위드아시아는 장기적으로 전문요양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원폭2세대 1만명 육박… 한·일양국 외면 속 차별

한국인 원폭피해자 특별법 제정 안돼 지원 미비

지원 스님은 축사에서 “경술국치 100주년과 해방 65주년을 맞아 사회에서 소외된 원폭 2세 환우들의 복지와 인권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 쉼터를 마련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스님은 이어 “원폭 피해자 1세들은 상당수가 사망했고 2 · 3세들만이 남아 있다. 그분들 중 일부는 병고로 고통 받아 취직도 힘들고 사회로부터 외면당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일찍이 이런 시설이 있어야 했다”며 “늦었지만 합천에 2 · 3세들이 서로의 고통을 나누고 희망을 안고 갈 수 있는 시설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합천 평화의 집’은 위드아시아가 100㎡의 개인주택을 개조해 만든 것이다. 원폭 피해자 2세 환우들이 요양할 수 있는 방 3개와 거실 겸 사무실이 마련돼 있다.

앞으로 평화의 집은 단기적으로 △원폭2세 환우들의 건강과 복지 프로그램 운영 △가정방문 케어 및 생활지원 △환우 치료비 지원 및 지원 상담 △한일시민단체 간 교류 협력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땅 한 평 사기’ 모금활동을 통해 합천 인근에 부지를 마련, 원폭2세환우를 위한 전문요양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혜진 스님은 “향후 원폭 피해자 2세환우들을 위한 전문 요양치료시설도 설치할 예정”이라며 “원폭2세환우 문제는 인간의 존엄 등 인권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며 많은 이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 원폭2세환우 세상에 알린 故 김형률씨

‘원폭2세환우’의 문제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2002년 3월 김형률(1970~2005)씨에 의해서다.

故 김형률씨가 한국 최초로 자신이 원폭2세 환우임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것. 김씨는 병든 몸을 이끌고 원폭2세 환우의 인권과 존엄을 위해 헌신하다 2005년 5월 35세의 일기로 짧은 생을 마감했다. ‘합천 평화의 집’이 탄생한 것도 김씨의 ‘커밍아웃’과 이후에 전개된 활동이 큰 계기가 됐다.

김형률씨는 1970년 부산에서 아버지 김봉대(72)씨와 원폭피해자 1세인 어머니 이곡지(71)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유년시절을 온갖 병치레로 지내온 김씨는 중학교 1학년 때 급성 폐렴이 발병해 병원에 입원한 후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

1995년 25세가 된 김씨는 폐렴으로 빈번하게 입원을 하자 정확한 병인을 알기 위해 특수 피검사를 했다. 그 결과 모체로부터 유전받아 선천적으로 면역이 결핍되는 ‘선천성 면역글로불린결핍증’이라는 희귀병에 걸렸음을 발견하고 자신이 원폭피해 2세대라는 것을 인식한다. 김형률씨는 2001년 ‘한국원폭피해자협회’가 일본에 승소해 원호법을 똑같이 적용받게 된다는 소식에 기뻤지만 1세들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에 2세들의 고통을 알려야겠다고 발원한다.

한국원폭2세환우회 초대 회장인 그는 2002년 커밍아웃 이후부터 2005년 죽기까지 한국인 원폭피해자 문제를 세상에 알리는 데 온몸을 바쳤다.

이날 쉼터 개원식에 참석한 김형률씨의 부모 김봉대 · 이곡지 부부는 “병고와 빈곤에 굴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원폭 2 · 3세환우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 개인적인 어려움에도 자기의 문제를 드러내놓아 다시는 이 땅에 핵으로 인한 희생자가 없도록 눈물겨운 노력을 보여준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5년 동안 아들을 가슴속에 묻고 살아왔다. 이런 쉼터가 열려 아들이 그토록 바라던 일들이 조금씩 해결될 것 같아 기쁘다”고 눈물을 보였다.

#한국의 히로시마 합천

김형률씨는 원폭환우피해자들의 인권을 위해서도 싸웠지만 한국 일본과의 역사적 관계를 규명하는 일에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상도의 강원도’라고 할 정도로 합천은 산으로 둘러싸여 농사짓기가 더욱 어려웠다.

조선총독부는 일본인의 식량 확보를 위해 조선의 농업 전체를 원료공급지로 만들어 강제보급정책을 실시했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가속화 될수록 합천 농민들의 삶은 점점 피폐돼갔다. 1930년대 일본 제국주의의 만주침략 이후 전쟁물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합천 농민들의 삶은 더 어려워져 많은 합천 농민들이 이농의 괴로움을 겪었으며 생존을 위해 일자리를 찾아 공업도시인 히로시마로 도일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광기어린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전쟁은 1945년 8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면서 종식됐다. 살아남은 합천 출신 한국인들은 고향으로 병든 몸을 이끌고 돌아와야만 했다. 한국원폭피해자협회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피폭자 2600여 명 중 60%이상이 합천 출신이다. **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원폭피해자특별법 통과 돼야…

“10년 동안 갑상선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어요. 자식들도 피부 질환을 앓고 있어 마음이 아파요.” “15세 때부터 대퇴부 뼈가 녹아내려 10년마다 인공뼈 이식수술을 받아야 해요.”




‘합천 평화의 집’원장 혜진 스님(위)과 원폭2세환우회 한정순 회장.

원폭피해 1세대들로부터 각종 질병을 유전받아 앓고 있는 2세대들은 이같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정부 발표에 의하면 한국에는 원폭 1세대의 자녀들인 2세대는 7000~1만 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 중 30%인 2300여 명이 다양한 원폭후유증을 앓고 있다.

일본 정부에 여러 차례 원폭피해 배상을 촉구한 끝에 간신히 원호수당을 받고 있는 1세대들과 달리 2세대들은 한 · 일 양국의 외면을 받아오고 있다.

그들은 부모 세대가 겪은 아픔을 인정하고 이를 대물림하는 상황을 국가에 알리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다.

1세들의 모임인 ‘한국원폭피해자협회’가 2세 환우들의 인권과 존엄성을 되찾기 위해 만들어진 ‘한국원폭2세 환우회’의 활동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 부모의 입장에서는 우려할 만한 문제다. 자신들이 겪었던 사회적 차별을 2세 환우뿐 아니라 건강한 원폭피해2세대 자녀들도 받게 될까봐 걱정됐기 때문이다.

한국원폭2세환우회 회장 한정숙씨는 7남매들과 함께 자랐다. 큰 오빠는 돌이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아 병명도 모른 채 죽었다. 나머지 6남매들도 뚜렷한 병명 없이 극심한 두통이나 관절염에 시달리고 있으며 남동생은 30대 초반에 치아가 모두 빠져버렸다. 원폭의 피해는 2세에서만 끝나지 않아 한씨의 아들 또한 선천성 뇌성마비를 앓고 있다.

장애판정이라도 나면 정부에서 지급되는 복지수당이라도 받을 수 있어 다행이다. 원인모를 관절염, 협심증, 고혈압 등의 병으로 고생하는 2세들은 스스로 견뎌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인 한씨는 구청으로부터 한 달 지원으로 28만원을 받고 있다. 정상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병을 치료하기도 부족한 액수다.

현재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피해자 자녀의 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에 상정돼 있지만 통과가 되지 않아 정부로부터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 회장은 “죽음을 맞이하는 시점에서도 병원비를 걱정해야 하는 것이 2세들의 실정이다. 상정된 특별법은 언제 통과될 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선 지원, 후 규명으로 자활 능력이 없는 원폭 피해자 2세들에게 당장 생계 및 의료비 지원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대한불교 조계종

어장(魚丈)스님 전통의식 강의

귀의 삼보하옵고
금번 대한불교 조계종 어장이신 동주원명 큰스님께서는 불교 전통의식의 보존, 계승 발전과 후학 양성을 위하여 전문의식인 상주권공, 각배, 영산 과정을 마친 스님이나 또는 이에 준하는 스님들을 대상으로 실전 재 의식을 중심으로 월 2회 직강을 해 주십니다. 뜻있는 스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강의내용 : 수륙재, 예수재, 영산재, 49재, 점안의식 등
- 강의일시 : –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 (오후 2시)
  – 첫강의 : 2010년 3월 29일 (월)
- 강의장소 : 서울시 강서구 가양 1동 226 홍원사
- 모집인원 : 00명
- 연 락 처 : 02) 2658-3100, 010-3840-0624
  (홈페이지 www.hongwonsa.org)

대한불교 조계종 전통의식 보존 연구원

대각교단 승가대학원 승정(宗師)학부
제2기 학인(종사) 모집

본 원에서 제1기 승정(大宗師, 宗師) 風光教育을 실시한 결과 27분의 큰스님들께서 2개월간 승정학부 석사과정을 모두 수료하셨기에 제2기 학인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승정(종사)법계에 해당 되시는 분은 신청바랍니다

僧正學科

1. 僧正之 儀法(전법게송, 오도송, 등)
2. 僧正之 法行(종사의 행주좌와)
3. 儀式之 法行(점안, 천도, 수계, 건당)
4. 僧正之 法物(불자, 여의, 무척, 주장자)
5. 点察懺悔法 傳授 (600年間 단절된 점찰법 再現)
6. 宗務行政.

僧正學은 승정(宗師)이 지녀야 할 禪과 教와 儀式行政, 品行 등 高度의 법상을 宣揚하고자 하는데 있음.

1.입학자격 : 각 종단 종정, 총무원장 및 대승정(대종사) 종사
2.구비서류 : 본원 소정의 입학 신청서 1통, 법계증사본 1매, 사진 2매
※ 3개월 후 수료시 종사법물 증정 및 수료장수여.
※ 법계증 없는 분은 각 종단 총무원장 발행 재직증명서 1통

▸수강기간 : 3개월 기간중 5회만 실시 (1일 4시간 교육)
▸개강일시 : 불기 2554년 3월 26일 오전 10시 30분.
개원 입교식 및 점찰법회
▸수강장소 : 대구시 북구 읍내동 1122 대승사
대각교단 승가대학원
▸접 수 처 : ☎ 053)325-5288, 053)325-0400 대승사 불교대학
팩스 053)325-4848, 핸드폰 010-3900-3050

大覺教團 僧伽大學院 院長 圓堂大宗師

선원, 다례 불참시 쫓아내기도…

수인 스님 '청규와 차' 통해 송대 선원다례 발달 과정 살펴

'다선일미(茶禪一味)', 차와 선이 한 맛으로 통하는 경지임을 일컫는 이 말이 다반사(茶飯事, 차 마시고 밥 먹듯 일상생활이 곧 선이라는 말)로 들리는 요즘이다.

조주 스님의 "차나 한잔 하고 가게나(喫茶去)"라는 화두를 비롯해 고려시대 이규보는 시에서 "한 잔 차로 곧 참선이 시작된다(一甌卽是參禪始)"고 읊었다. 특히 초의 선사가 "차는 법희선열식(法喜禪悅食)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선과 차는 하나의 맛 · 경지로 표현되며 불교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다.

이런 가운데 선가의 중요행사 중 하나로 계승돼 온 선원다례를 학술적으로 조명한 연구서가 출간돼 눈길을 끈다.

수인 스님(동국대 이사)은 최근 저서 <청규와 차>(동국대출판부 刊)에서 송대를 중심으로 선원다례의 발달과정과 특징 등을 살폈다.

송대는 다례가 가장 융성했던 시기이다. 스님은 "조주 스님의 '끽다거'라 불리는 다선공안(茶禪公案)이 다선일미의 중요한 소재가 됐다"며 "송대에 이르러 선종의 종통에 차문화가 의례화되면서 중국 선종은 차 문화사의 주체로서 우뚝 서게 됐다"고 말했다.

스님은 <선원청규> <입중일용> <입중수지> <교정청규> 등 청규서를 통해 선원다례의 사상의 핵심을 △'은중(慇重)'과 '긍장(矜莊)' △예법 △경(敬)과 화(和)의 사상 △대묘(大妙)와 중정(中正)으로 추려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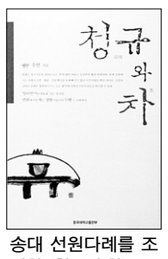
은중은 공경스러우면서도 무게 있는 태도를 말하고, 긍장은 근엄하면서도 장중한 태도를 말한다.

수인 스님은 "다탕의 예법 실행이 엄중했고, 불참했을 때 처벌은 출원(出院)이라는 무거운 죄로 다스려졌다. 은중과 긍장은 송대 선원다례의 기본윤리로써 선원의 기강을 세우는 방편이 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청규서에서 차를 대하는 선원대중의 태도를 은둔과 긍장으로 정한 것은 육우의 차 정신인 검(儉)과도 일맥상통 한다"고 강조했다.

송대의 선원다례에서는 예도 강조됐다. 청규는 시대를 반영한 총림의 규범으로 총림 예법을 담고 있다.

수인 스님은 "총림의 청규는 일상생활 속의 규범이란 점에서 유가의 예경(禮敬)에 비유돼 왔다"며 "청규에는 유가에서 말하는 예 정신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 청규 정신이 시의라는 예의 본질에 충실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송대 선원다례를 조명한 <청규와 차>.

스님은 "무위에 근원한 예가 참된 예인 것처럼 선원의 규구 또한 인위적 구속이 아니라, 성품의 활발발(活潑潑)성에 바탕해 부처의 지혜와 행을 나투는 것이다. 선원다례에서 예를 추구하며 선을 수행하는 것은 조금도 모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선원청규>에서는 불교의식을 행함에 공경심으로 예를 나타낼 것을 강조한다. 이에 대해 수인 스님은 "선원다례가 단순한 의식에 그치지 않고 예의 본질인 경(敬)의 정신을 현실 속에서 구현하기 위한 실현 과정임을 말해 주는 것이다. 경에는 집단의 화(和)를 실현하려는 뜻도 내포돼 있다"고 말했다.

선원다례에서 담긴 예경이 총림 대중에게 절도 있는 위의와 격조 있는 품위를 유지시켜 수행인의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바탕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선원에서 선과 차가 어우러진 차문화는 '대묘'와 '중정'의 다선일미로 함축된다.

중정은 법식대로 차를 마심으로써 지나치거나 모자람 없이 바르고 알맞은 태도와 위의를 갖추는 것으로, 청규서에 따르면 대묘라는 경지로 표현된다.

수인 스님은 "마조의 '평삼심이도(平常心是道)'는 선원다례의 사상적 배경이 된다"며 "선원다례는 차를 마시는 일상 속에서 선과 차의 고차원적 정신통일을 지향하는 점에서 선수행의 다른 모습이 된다"고 말했다.

특히 스님은 "선원다례는 (출가자만의) 폐쇄적 선원문화가 아니다. 재가자와의 교류가 빈번했던 개방적 교화정신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개운사 목조아미타상 등 최초 공개

불교중앙博 '2010 상설전' 2일 개막… 보물 9건 등 125점 선보여

최근 보물 지정(예고)된 개운사 · 운람사 · 보광사 유물이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최초로 공개된다.

불교중앙박물관(관장 범하)은 3월 2일 '2010년 상설전'을 개막하고 보물 9건 등 59건 125점의 성보 문화재를 선보였다.

전시는 △제1전시실-부처님 일생과 전법 △제2전시실-신앙의 힘으로 창조한 불교미술 △제3전시실-수종사의 불상들과 사리장엄구로 나눠 진행된다.

제1전시실에는 <석씨원류응화사적>(보물 제591호)을 비롯해 <백지묵서묘법연화경>(보물 제278호) 등 경전류 5건 38점이, 제2전시실에는 운람사 초조본 '불설가섭부불반열반경' (보물 제1646호), 보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불복장물(보물 제1571호), 개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발원문 및 복장전적(보물 지정 예고) 등 불복장물류 12건 26점이, 제3전시실에는 수종사 승탑 사리장엄구(보물 제259호) 등 수종사 출토유물류 42건 61점이 전시된다.

최초로 공개되는 의성 운람사 초조본 <불설가섭부불반열반경>은 마하가섭 존자가 열반에 든 석가모니 부처님을 찾아갔던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전은 11세기 고려 대장도감에서 판각해 초기에 인출한 초조대장경으로 국내에 현존하는 초조본 중 보존상태가 가장 완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 개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에서 발견된 <개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발원문>은 불상 개금 기록이 남겨진 '중간대사원문(中幹大師願文)' '최춘원문(崔椿願文)' '화광선사발원문(和光禪師發願文)' 등이다.

'중간대사원문(中幹大師願文)'은 고려 원종 15년(1274) 아산 동심사에 머물던 중간 대사가 폐사(廢寺)의 무량수불상을 개금하고 선망한 부모와 친척, 본인의 서방정토 극락왕생을 기원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춘원문(崔椿願文)'과 '화광선사발원문(和光禪師發願文)'은 각각 1322년 5월과 8월에 복장된 발원문이다.

불교중앙박물관 이분희 팀장은 "공개되는 발원문은 개운사 아미타불상이 1274년 이전에 조성돼 1274년과 1322년 개금됐음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라고 말했다.

수종사 금동석가불좌상은 태종의 후궁 명빈 김씨가 1479년 조성했다. 이후 1493년 성종의 후궁 숙용 홍씨, 숙용 정씨, 숙원 김씨가 중수해 조선왕실의 평화를 기원했던 유물이다.


의성 운람사 아미타불좌상 복장유물 <불설가섭부불반열반경>.

금동비로자나불상 등 금동불상 23구는 1628년 인목대비가 봉안한 것으로 수종사 팔각오층석탑의 기단 중대석, 1층 탑신석, 2 · 3층 옥개석에서 발견됐다. 봉안된 금동비로자나불상에는 불상 주조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 17세기 왕실의 재정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왕실불사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전시는 8월 22일까지 계속된다. 월요일 휴관. (02)2011-1963

이상언 기자

"오종장엄에 한국의 미래 대안 있다"

최봉수 미래학불교학회 이사, 정토사상 학술세미나서 주장

"<정토경>에 설해진 오종장엄(미타 · 극락 · 유정 · 보리수 · 보살 장엄)에 미래 한국의 대안이 담겨있다."

최봉수 미래학불교학회 이사는 3월 4일 정토종(총무원장 혜선)이 대전 리베라호텔에서 개최한 한국불교 정토사상 학술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최 이사는 주제발표 '한국 사회의 미래와 정토 문화의 정립'에서 범본 <극락장엄경>을 다섯장엄으로 분류했다.

이어 최봉수 이사는 "미타장엄(제11~14단)에는 미래 한국지도자를 위한 정토문화가, 극락장엄(제16~18, 21~23단)에는 국토를 위한 정토문화가 설해져 있다. 유정장엄(제19 20 24 33단)에는 국민을 위한 정토문화가, 보리수장엄(제32단)에는 종교를 위한 정토문화가, 보살장엄(제34~37단)에는 한국 사회의 리딩 그룹을 위한 정토문화를 각각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타장엄에 설해진 미래 지도자의 덕목은 광명, 성문, 수명이다.

최 이사는 "<극락장엄경>에서 말하는 광명은 희망을, 성문은 신뢰를, 수명은 강녕을 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봉수 이사는 "극락장엄에서 말하는 극락정토가 이상적인 현실국가의 국토관"이라며 "의식주의 해결, 차별 철폐 등 유정장엄에서 설해진 내용은 국민을 위한 미래 복지의 지향점과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극락장엄경>에서의 보리수장엄 부분이 종교적 도량의 바른 미래상을 제시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최 이사는 "경전은 종교시설물의 규모가 기본적으로 웅대하고 장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면서 "종교시설물이 대중의 귀의처가 되려면 큰 규모로 장엄해 대중을 압도하는 위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보살에게도 나름의 광채가 있다" "32상의 몸매를 갖추고" "결코 악취에 떨어지지 않으며" "부처님 공양하는 일을 쉬지 않는다"며 보살장엄에서 보살에 대해 설한 부분은 사회지도층을 뜻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봉수 이사는 "보살장엄에 설해진 보살의 요건은 부처님 공양하듯 지도자를 섬겨야 하는 등 오늘날 사회지도층이 갖춰야할 덕목과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조동섭 기자

보원사지 5차 발굴

4월부터 1만㎡ 조사재개

서산 보원사지(사적 제316호) 제5차 발굴조사가 4월부터 시작된다.

서산시는 최근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소장 지병목)가 4월부터 서산 보원사지 내 유적지 1만㎡에서 발굴조사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서산 보원사는 주변에 백제의 미소라 불리는 '서산마애삼존불상(국보 제84호)'이 있고, 사지에서는 1968년 백제금동여래입상이 발견돼 백제시대 창건된 사찰로 추정된다. 특히 2005년 11월 보원사지 인근에서 백제 금동관과 철제초두 등이 다량 출토돼 학계에서는 보원사의 백제시대 창건설이 힘을 얻고 있다.

서산시 관계자는 "제5차 발굴조사가 진행되는 당간지주 주변은 건물터로 추정되는 곳과 인접해 백제시대 유적과 유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대구경북 불교문화재 16건 보물로

대둔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 등 지정돼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최근 '구미 대둔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 등 대구 · 경북 지역 중요 불교문화재 16건을 보물로 지정했다.

보물 지정된 대구 · 경북 지역 문화재 16건은 △구미 대둔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보물 제1633호) △문경 대승사 금동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보물 제1634호) △상주 남장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보물 제1635호) △영주 부석사 석조석가여래좌상(보물 제1636호) △예천 용문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보물 제1637호) △구미 수다사 영산회상도(보물 제1638호) △대구 동화사 보조국사지눌진영(보물 제1639호) △문경 김룡사 영산회괘불도(보물 제1640호) △상주 남장사 감로왕도(보물 제1641호) △안동 봉정사 영산회괘불도(보물 제1642호) △안동 봉정사 아미타설법도(보물 제1643호) △예천 용문사 천불도(보물 제1644호) △안동 광흥사 동종(보물 제1645호) △초조본 불설가섭부불반열반경(보물 제1646호) △길흥축월횡간 목판(조물 제1647호) △예천 명봉사 경청선원자적선사능운탑비(보물 제1648호)이다. 이는 문화재청이 '불교문화재 일제조사'에서 경북 북부지역 사찰 소장 1만390점을 조사한 결과이다.


보물 지정된 문경 대승사 금동아미타여래좌상.

조동섭 기자

정토종 학술대회 원만회향에 감사드립니다



대한불교 정토종은 지난 3월 4일 대전광역시 유성 리베라호텔에서 개최한 정토사상 학술대회를 사부대중의 많은 관심과 동참 속에 여법하게 성료하였습니다. 정토종의 미래를 생각하고 발전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에 바쁘신 불사 중에도 먼 길을 마다 않고 참석해 주신 사부대중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정토종은 원효(元曉) 대사의 정토사상을 이어받아 염불(念佛)을 통한 성불(成佛)을 궁극의 목표로 삼고 있는 한국불교 전통종단입니다. 정토종은 이번 정토사상 학술대회를 통해 논의된 오늘날 불교에서의 정토사상과 현대사회에서 정토신앙이 가지는 의미를 검토하고, 이날 제안된 사부대중의 소중한 의견을 겸허한 마음으로 적극 수용해 정토종의 밝은 미래를 개척하는 토대로 삼을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정토종의 발전은 물론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해 정진할 것임을 사부대중 여러분께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다시 한 번 정토종이 개최한 정토사상 학술대회에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거듭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두 손 모아 축원드립니다.

2010년 3월

대한불교 정토종 총무원장 혜선 합장

정토종 총무원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동 337-2번지 신흥사
☎ 042)823-5641, 822-5645 팩스 042)824-5641

불교상담개발원과 함께 하는 **이럴 땐 어떻게 하죠?**

Q 결혼 후 시어머니를 따라 사찰이 아닌 보살집(?)에 다녔습니다. 썩 마음에 내키지 않았지만 한 해 신수 등을 봐주기에 다녔습니다. 얼마 전 시어머니는 돌아가시고 그 보살이 운영하던 절이 문을 닫아 갈 곳이 없어 방황하던 중 한 사찰을 소개받아 갔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남편에게 "처가의 안 좋은 기운들이 넘어와서 하는 일이 안 풀린다. 처가의 총 맞고 돌아가신 영가를 지장전에 올려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시부모님, 친정 부모님 등 가족 49재, 백중 천도재 등을 절에서 지내왔지만 근근이 살아가는 처지에 적지 않은 비용이 부담됩니다. 그래서 다른 큰 사찰로 옮겨 모실까 생각도 했지만 힘들 때면 스님이 사주도 봐주시고 상담도 해주셔서 선뜻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얼마 전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우연히 생긴 아기를 지우고 말았습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다고 판단됐기 때문이지만 낙태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에 대한 신뢰를 잃었습니다. 아기에게 지은 죄를 불보살님께 기도드리며 뉘우치고 싶습니다. 이마저도 자신은 없지만 말이죠. 그래서일까요? 요즘은 모든 것이 완벽해보였던 남자친구의 직업부터 여러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또 결혼이 현실로 다가오니 도망가고만 싶습니다.

A 우선 내담자께서 가지고 계시는 결혼관, 배우자 상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싶은지, 동반자로써 인생을 같이 보낼 친구로서의 배우자를 원하는지 생각해 보셨는지 말이죠. 배우자에 대

스님 요구로 끊임없이 천도재 지내는 게 부담 돼요
스님은 불법 전하는 스승, 체계적인 불교공부 우선

A 친정어머니의 49재를 지내고 힘들 때 스님을 찾아가 상담을 받곤 했던 인연 때문에 선뜻 다른 절로 옮기기도 쉽지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다니자니 경제적으로 부담도 되고 결정내리기가 쉽지 않으시지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다니는 절의 스님에게 상담을 받으신다 했는데 스님은 부처님 법을 전해주시는 스승으로서 불법을 공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외 삶을 의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재 불교에 입문 한지가 얼마 안 된 초심자라면 일단 불교에 대해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참고로 불교기본 교육은 조계종 주요 사찰 등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교 기본교리, 부처님의 생애 등 정법에 관해 공부를 하다보면 기도를 하는 이유와 어떤 것이 가족을 위한 것인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성불의 씨앗을 잘 키워서 큰 지혜를 얻고 나면 어떤 일을 판단할 때 흔들림 없는 힘이 생깁니다. 또 앞으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조금 문제가 생겼을 때 이번처럼 상담실 문을 두드리시는 것도 현명한 일일 것입니다.

Q 2년 넘게 사귄 사람과 결혼까지 약속했지만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한 분명한 기준은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적인 결혼이란 두 사람의 사랑을 기본으로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서로의 부족한 점을 감싸 안을 용기와 수용적 자세를 통해 가능합니다.

행복한 결혼은 조건이나 열정만으로는 이루기 힘듭니다. 물론 두 가지 다 갖추면 더 할 나위가 없겠지만 욕심을 부리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결혼 당시의 물질적인 조건은 얼마나 지속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결혼 후의 삶이 훨씬 많이 남아있습니다. 경제적 풍요는 함께 살면서 충분히 이룰 수 있는 시간이 있음을 잊지 마세요.

또한 내담자분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부처님께 기도하길 바라는 것으로 봐서 신심도 있어 보입니다. 이번 결정을 하기 전에 열심히 기도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기도 수행은 선택의 상황에서 결정하는데 지혜의 힘을 주기 때문이지요. 참고로 윌리엄 글라써의 <결혼의 기술>이란 책을 추천하며, 부디 지혜로운 결정으로 배우자를 선택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24시간 자비의전화 (02)737-7374, 737-1114
사이버상담 자비24 www.jabi24.org
청소년사이버 성상담 아하섹스 www.ahsex.org
후원계좌 국민은행 001-01-2021-361
(예금주:사단법인 자비의전화)

"스님, 우리 오늘 퇴원해요"

자비법당 탐방
서울아산병원 법당


오전 11시가 되자 환우 가족들이 하나둘씩 모여 예불에 동참하고 있다.

"스님, 우리 오늘 퇴원해요."

법당 안을 들어서며 인사한 권미숙(42)씨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곧장 부처님께 절을 올렸다. 이내 굵은 눈물을 쏟아냈다.

예불을 올리던 서울아산병원 법당 지도법사 지홍 스님은 "축하한다" 말했다. 스님의 예불은 계속되고 권씨의 울음소리가 목탁소리와 함께 법당 안을 적신다. 예불이 끝나자, 스님과 다른 불자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권씨 남편의 퇴원을 축하했다. 이들의 눈가에는 눈물이, 입가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정말 이 순간이 믿겨지지 않아요. 막상 퇴원을 하려고 보니, 부처님이 너무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권 씨의 남편은 백혈병으로 7개월 전 입원했다. 권 씨는 "남편이 완쾌된 것은 아니지만, 퇴원하게 돼서 기쁘다"며 "기도에 감응해 주신 부처님 은혜를 잊지 않으려 병원을 나가서도 자주 다닐 절을 알아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원자 김숙희(54) 씨는 "병원 안에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다"며 "우연히 지나다가 법당을 발견해 바로 들어와 예불을 드렸다"고 말했다.

"법당이 어디 있는지 계속 찾고 있었어요. 항암치료를 받는 중인데, 면역력도 떨어지고 신종플루로 인해 간호사들이 못 다니게 했죠. 이제 법당이 어디 있는지 알았으니 매일 기도 드리러 올 거에요."

지홍 스님은 "병은 언제 누구에게 찾아올지 모르는 것"이라며 "'내가 왜 아파야 하지?' '왜 하필 나일까?'라는 생각은 지워버리고, 열심히 부처님한테 기도를 드리면 좋은 소식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우리 법당은 일명 '기도 발'이 좋은 법당"이라고 소개했다.

"여기 오는 불자들이 얼마나 절을 잘하는지 몰라요. 1000 배, 1만 배는 일도 아닌걸요. 나도 그런 불자들을 볼 때마다 신기하고, 대견해요."

다른 병원과 다르게 아산병원 법당은 수술실과 중환자실을 끼고 있다. 작년 1월, 병원 측은 일부러 수술실과 중환자실 바로 옆에 종교실 공간을 마련했다.

"여기(아산병원)는 제3차 의료기관이라 중증 환자들이 대부분이에요. 생사의 기로에 선 환자와 가족들은 의학적인 힘 외에도, 다른 무언가에 더 기대고 싶어 하죠. 병원법당에서 하는 기도는 일생 중 가장 간절하고 절실한 기도 시간일 거예요. 이곳이 기도가 잘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절실하기 때문이에요."

지홍 스님은 "하루에 법당을 찾는 사람만 100여 명이 넘는다"며 "법당을 찾는 사람들에게 차를 대접하는데, 하루에 사용하는 찻잔만 80여 개가 넘는다"고 말했다.

최근 몇 달간 신종플루 때문에 스님과 봉사자들은 환자들을 거의 만나볼 수 없었다. 병원 측이 환자들의 상태를 우려해 최대한 외부와의 접촉을 제재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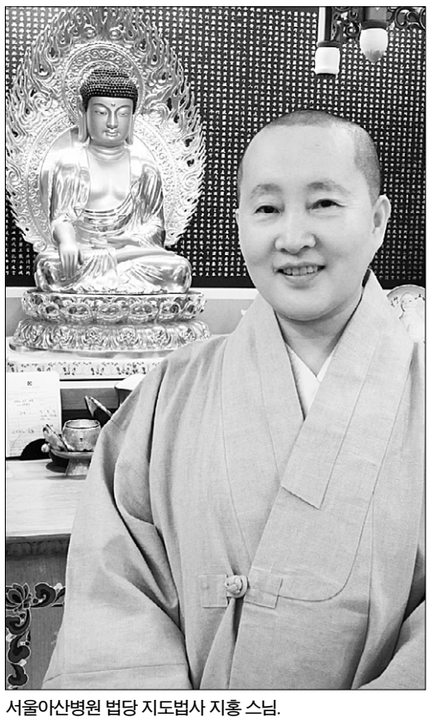
지홍 스님은 병원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불자 환자들의 근황을 살폈다.

전산시스템 통해 불자환자들 특별히 신경 써
지홍 스님의 '찾아가는 1:1 서비스' 인기

"현재 아산병원에 입원한 불자환자들이 500명 정도에요. 다른 종교에 비해 가장 많은 숫자죠. 시스템을 통해서 환자들이 현재 어떤 수술을 받고, 어떤 상황인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니 일하는데 훨씬 수월하죠. 불자들 하나 하나를 특별히 신경쓸 수 있습니다."

지홍 스님의 '찾아가는 1:1 서비스'로 아산병원법당은 상담을 위해 법당을 찾는 이들이 많다. 이는 환자뿐 아니라 직원들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지홍 스님은 우연히 시작한 병원봉사일을 계기로 현재 20년 가까이 병원법당 일을 해오고 있다. 스님은 "이곳은 하루도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는 곳"이라며 "사람들의 운명이 찰나찰나 바뀔 때마다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며, 앞으로 더욱 신나게 수행하고 기도해야 겠다고 다짐한다"고 말했다.


서울아산병원 법당 지도법사 지홍 스님.

항상 자비의 보따리를 풀어놓고 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같이 눈물을 흘린다는 지홍 스님. 스님의 자비심 덕분에 스님의 눈가는 항상 짓물러 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부처님 법을 전하는 것과 환자와 가족을 위해 같이 울어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여태껏 봐왔던 기적 같은 상황들을 토대로 또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것이 제가 할 몫이죠."

한 불자는 "지홍 스님에게서 후광이 비춰요"라고 말했다. 지홍 스님의 자비심으로 가득한 법당도 스님의 후광만큼이나 밝은 자비의 광명으로 가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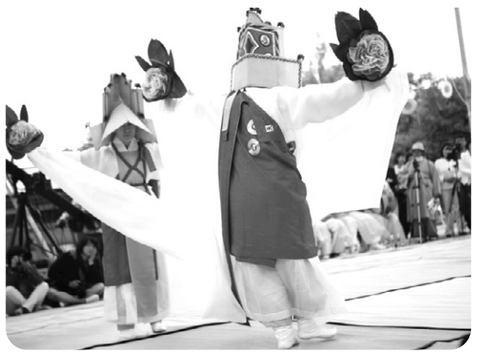
이은정 기자
soej84@buddhapia.com

전통범음범패(바라,나비작법) 과정 수강생모집

경북교구 종무원 범음.범패 교육원에서 2010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한국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작법(바라춤,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1년)
가. 초급과정(2개월) ■ 송 주 : 도량석, 종송등
■ 예 경 : 향수해례, 사성례,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예불
■ 권 공 : 삼보통청, 상단·중단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신중작법39위,104위),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 라 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 비 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달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김법운 스님, 이현진 스님

2. 입학식 및 개강일시
■ 입 학 식 : 2010년 3월 18일(목요일) 오전 11시
■ 개 강 : 2010년 3월 18일(목요일) 오후 1시
■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5시
(사정에 따라 요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강의장소 : 경북교구 종무원 설법전
6.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종무원에서 교부)
7. 접 수 처 :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교구 종무원
(경북 경산시 와촌면 동강 2리 265)
8. 접수기간 : 상시모집
9. 문 의 처 : 053)857-4339, 팩스 053)857-0206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교구 종무원 범음,범패 교육원

선어록의 최고봉 임제록 강좌 및 참선실수 수강생 모집

◆ 개강일시 : 3월 22일 오후 2시
(매주 월요일)
◆ 대 상 : 스님, 일반인

무료 명상치료법회

◆ 대 상 : 각종 질병 및 비만 왜소한 몸 체질개선
◆ 일 시 :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 3시 30분까지

접수처 : 임 제 선 학 원 ☎ 02)496-3952~3
서울 중랑구 망우 3동 120-7

제 774 호 현대불교
2010년 3월 10일 수요일 / 불기 2554년
buddhanews.com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봉축 준비



흥겨운 율동 부처님오신날 축제 준비 OK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의 김정윤 · 김민성씨가 2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연등축제 율동을 선보이고 있다(위). 연등축제 율동은 동영상으로 만들어져 사찰과 단체에 전해진다(왼쪽).



"녹화 날인데 신경써야죠." 28일 아침부터 모인 불레협 회원들이 봉축 율동 녹화를 위해 대기실에서 꽃단장을 하고 있다.

열 가지 율동 홈페이지서 먼저 만날 수 있어

불레협, 연등축제 율동리더 20일까지 모집

"오늘은 좋은 날 부처님 오신 날/ 온갖 꽃 피어나는 만 생명 축복의 날/ 오늘은 기쁜 날 님께서 오신 날/ 별 담은 새벽이슬 연꽃이 피는 날~"

색동저고리를 입은 젊은이들이 음악에 맞춰 율동을 하고 있다. '오늘은 좋은날(풍경소리)'의 흥겨운 음악에 맞춰 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한다. 눈 앞에 펼쳐지는 역동적인 춤사위와 함께 땀냄새보다 강한 파스냄새가 코를 찌른다. 파스까지 붙이고 춤추는 젊은이들. 하지만 이들의 표정은 밝다. 전혀 아파보이지 않는다. 진짜 '오늘은 좋은 날'인 듯한 이들의 표정에는 막 피어난 봄꽃 향기가 난다.

정월대보름과 동안거 해제일이기도 한 2월의 마지막 날. 시린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있었다. 따사로운 봄기운에 발걸음이 가벼워진 젊은이들이 조계사 앞으로 모여 들었다. 이른 봄날 친구들과 삼삼오오 교외로 떠나도 좋은 때에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에서 파스를 뿌려가며 율동을 하는 이들은 누구일까?

부처님오신날을 두 달여 앞두고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회장 도경, 이하 불레협)와 조계종 봉축위원회는 찬불 율동 녹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렇게~" "그래, 그래 맞아, 그렇게!" "하하하하하"

이 날은 9곡의 찬불가에 맞춰 10가지 율동을 동영상으로 녹화했다. 율동은 5월 9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리는 연등축제를 비롯해 봉축기념 행사에서 선보일 것들이다. 만들어진 동영상은 불레협 홈페이지(www.burec.org, www.llf.or.kr)에 공개되는 한편, 각 사찰 관계자 · 실무자에게 전해지게 된다.

이날 율동에는 불레협 양선영 간사와 김정윤 이윤진 진성철 윤상진 이경재 김민성 불자 등 10여 명이 참가했다. 이들의 직업은 대학생부터 직장인들까지 다양하다. 각자 다른 직업을 가진 탓에 퇴근 후 저녁 혹은 주말을 이용해 짬짬이 율동 연습을 했단다. 어지간한 신심이 아니고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올해 창립 25주년을 맞은 불레협은 불교를 어린이 · 청소년들에게 '쉽고 재미있고 유익하게' 전하고자 1985년 창립됐다. 불레협은 불교레크리에이션 전문지도자 · 불교 전법자 등 포교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이다. 특히 불레협은 10년째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연등축제의 흥겹고 신명나는 대중율동을 기획하고 보급 · 지도하며 연등축제 율동리더로 참여하고 있다.

맑고 밝은 미소 속에서도 유난히 행복해 보이는 청년이 있다. 불레협 마스코트이자 막내인 김민성(20)씨다. 그는 올해 대학 새내기. 김씨는 어머니와 함께 불레협에서 활동 중인 2대 불레협 율동리더이다.

어머니를 따라 불레협을 하게 된 계기 역시 유난히 행복한 표정 만큼이나 유별나다. 김씨는 사춘기였던 고등학생 때 말수도 적었다. 부모님께는 힙합학원에 보내 달라고 보챘다. 그 때 어머니는 "율동리더를 하면 힙합학원에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다. 김민성씨는 힙합학원이 가고 싶어 엄마 손에 이끌려 불레협을 찾았다. 김씨를 만난 불레협의 형, 누나들은 막내라고 귀여워하고, 토닥이며 잘 이끌었고, 김씨도 그런 형 누나들을 잘 따랐다.

불레협에서 활동하는 날이 길어질수록 김씨는 밝아지고 집에서도 말 잘하는 아이가 됐다.

김민성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불레협 활동을 한 후, 그야말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에요"라고 흐뭇해했다.

불레협 양선영 간사는 즐겁게 공연할 때가 가장 행복하단다.

"2007년 연등축제 때 비가 온다고 했는데 비가오지 않아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동국대 운동장에서 공연이 시작됐죠. 그곳을 가득 채운 사부대중이 우리 율동을 따라 하고 박수소리가 딱딱 맞는데, 순간 힘들었던 것도 다 녹아 내렸어요."

10여 년 동안 불레협을 한결같이 아끼고 사랑한 이의 마음답다. 이런 열정적인 멤버들이 있음에도 불레협의 최대 문제는 율동리더의 모집이다. 특히 멤버들은 재적사찰 행사에도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불레협 행사와 겹칠까 노심초사하며 활동하고 있다.

올해 불레협은 연등축제 율동리더를 3월 20일까지 모집 중이다. 올해는 좀 더 많은 이들이 참가해 행복을 함께 나누고 진정 즐기는 챔피언이 되길 바란다. 부처님이 오신 좋은 날, 나누면 기쁨은 두 배가 된다.

박선주 기자 Zoo211@buddhapia.com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복장의식 상량식 불사 소장용 영가천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 / 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55,000원
10mm×10mm×12mm 65,000원
12mm×10mm×12mm 85,000원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 26×16×16cm ~~15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온열뜸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정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C774-102010.3.81:23PM페이지1(1,1)

"법당없어도 법회 열의는 최고"

부경포교사단 청파팀, 군포교 위한 법당 건립 고심


청파팀의 지도로 참선 중인 장병들.

최근 "군에 입대한 10명 중 1명은 부적응병사"라는 통계가 발표됐다. 한창 사회로 나아갈 푸른 꿈을 꾸는 청년들이 군입대라는 갑작스러운 삶의 변화로 받는 심리적 외상은 이제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는 특정 소수의 사례가 아니라 우리 이웃의 아들, 혹은 입영영장을 받고 입대를 기다리는 우리와 가까운 사람의 일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선임병과의 갈등, 비합리적 군대문화, 고된 훈련, 제대 후 진로 부담 등으로 고민하는 대한민국의 아들들을 불법으로 수호하기 위해 부산 · 경남포교사단 군포교6팀 청파팀(팀장 조용재)의 활동이 주목받고 있다.

정월대보름인 2월 28일 부산 구례동 육군 제54사단 125연대 2, 7대대 군법당 호국 백양사에서 열린 정기법회에는 15명의 병사가 참석했다.

이들은 20평 남짓한 법당에서 천수경, 예불, 반야심경, 삼귀의, 보현행원 등의 순으로 여법하게 법회를 봉행했다. 장병들에게는 법회가 낯설고 경전의 글귀가 어려울 법도 한데, 또박또박 힘찬 목소리로 능숙하게 리듬까지 타며 독송하는 폼은 예사가 아니었다.

15명의 장병들이 법회 봉행에 능숙한 베테랑(?) 불자가 된 것은 청파팀의 역할이 컸다.

청파팀 김옥희(51, 법명 관음화) 포교사는 법문에서 "얼마 전 동계올림픽에서 세계신기록을 갱신한 김연아 선수에게도 시간이 멈춘 듯한 인고의 성장과정이 있었을 것"이라며 "군복무 동안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 부처님의 모습을 닮기 위해 항상 바른 생각과 언행으로 선업을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

청파팀 포교사들은 김 포교사와 같이 어머니의 다정한 목소리로 일상의 화재를 통해 불교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냈다. 청파팀의 법문은 어렵거나 불심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생활법문인 까닭에 장병들에게 반응은 좋았다.

청파팀은 법회만 봉행하지 않는다. 법회를 마친 후 항상 법회에 참석한 군장병들과 다과를 하며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눈다.

이 자리에서는 주로 제대 후 가까운 사찰에서 수계를 받고 재적사찰을 정해 자주 찾아가길 권한다. 또, 불교대학에서 일정한 교육과정을 거쳐 포교사가 되면 언제든 후배 군인들을 찾아와 법회에 동참하도록 알리기도 한다.

법회가 열린 호국백양사는 지난해 6월 개관했다. 법당이 불사가 되기 전에는 부대 식당에서 2년 넘게 법회를 열어왔다. 법회가 열리는 일요일 오전 10~11시, 부대 식당의 한 켠에서는 점심식사 준비가 한창이었다. 목탁 소리와 도마 소리가 겹쳤고, 향 냄새와 음식 냄새는 섞였다. 혼란스러운 상황 만큼 환경도 열악했다. 식당 의자에 앉아야 하는 탓에 부처님에게 삼배를 올릴 수도 없었다.

어려움 끝에 겨우 20평 남짓한 빈 건물을 리모델링 해 호국백양사로 장엄했다.

청파팀의 확고한 신념과 군포교를 향한 열정은 최근 53사단 125연대 4대대 법당 건립으로 이어지고 있다. 부산시 서구 및 사하구의 해안선 경계를 담당하는 4대대에는 현재 빨간 벽돌의 대형 교회가 자리하고 있다. 올해 초까지 단 한번의 법회도 열린적이 없는 포교사각지대였다. 청파팀은 이런 곳에서 매월 한 차례의 정기법회를 열고 부대 내 법당 불사 초읽기에 들어갔다. 법당 예정지는 송도해수욕장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4대대 내에서도 최고의 전망을 가진 곳으로 무기류나 기타 집기를 보관하던 20여 평의 창고건물이다. 청파팀은 이 건물의 외벽을 철거하고 바닥을 높여 새롭게 철골 구조를 올리는 등 전반적인 증축에 관한 설계를 마쳤다.

하지만 불사는 현재 잠정 중단된 상태이다. 불사 기금마련에 어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장병들은 법당이 없어 식당에서 법회를 보는데도 법회에 높은 열의를 보여 왔다.

청파팀 조용재(50, 법명 일관) 팀장은 "120명 중 휴가 및 기타 업무를 수행 중인 부대원을 제외하면 70~80명이 남는다. 그중 50여 명이 매월 정기법회에 동참한다"며 "한 달에 한번이던 법회를 올 하반기부터 매주 일요법회로 정례화 할 예정이다. 하루 빨리 법당 불사가 회향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파팀의 뜨거운 원력과 신심만큼이나 불자들의 큰 지원이 아쉽다. 010-3845-8467 한동수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청소년들 위한 국제교류 눈길

부산파라미타, 정기총회서 2010년 중점사업 발표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를 이끄는 백명숙 회장(왼쪽에서 네번째)과 집행위원들이 대중에게 인사하고 있다.

올해부터 불자 청소년들을 위한 해외 청소년과의 교류 및 템플스테이를 접목한 해외 어학연수 등의 기회가 대폭 확대된다.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백명숙, 이하 부산파라미타)는 3월 3일 부산 양정동 라메르뷔페에서 2010년 정기총회를 열고, 지난 해 감사 및 자산현황 보고,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했다.

이날 총회는 2009년 활동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전임 우수지도자 표창 및 신임 집행위원 임명, 백명숙 협회장 인사말, 2009년 총회 결과 및 감사 보고, 자산현황 보고, 부의사항, 공지사항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부산파라미타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글로벌시대 청소년에게 문화의 다양성과 상대주의를 이해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한 · 일 청소년 국제교류를 비롯해 △뉴욕 백림사에서 진행될 뉴욕 어학템플스테이 △부산파라미타 창립 기념 제3회 대한민국청소년합창제 △한문화재 한지킴이 보고대회와 청소년지도자 문화재해설사 양성교육 △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자기성장 프로그램인 국제청소년 성취포상제 운영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한 · 일 청소년 국제교류'와 '뉴욕 백림사 어학템플스테이'는 부산파라미타의 국제교류활동 활성화 및 정착화, 청소년의 국제 역량 강화와 세계적 또래문화 형성의 기반이 될 선진 프로그램으로 눈길을 끌었다.

'한 · 일 청소년 국제교류'는 7월 26~30일까지 부산과 경주 일원에서 열린다. 참가자는 추후 공지를 통해 한 · 일 청소년 80명을 선착순 모집할 예정이다. 또 뉴욕 내 한국사찰 백림사에서 열리는 '뉴욕 어학템플스테이'는 8월 1~21일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백명숙 협회장은 "부산파라미타는 지난해 열린 제2회 전국청소년합창대회를 비롯해 교원특수분야 직무연수, 한문화재 한지킴이 운동, 연합캠프, 문화탐방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백 협회장은 "올해에는 뉴욕어학템플스테이,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등 신규 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보다 유익한 단체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기자

안국불교대학 개관 · 입학식 봉행


3월 2일 안국불교대학 개관식에서 테이프 커팅 중인 스님들.

안국불교대학(학장 무관)은 3월 2일 대학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개관 및 입학식을 봉행하고 2010학년도 1학기 학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개관 및 입학식에는 이사장 수불 스님(부산 안국선원장)을 비롯해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 정낙형 부산시 정무부시장 등 2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수불 스님은 인사말에서 "석 · 박사를 배출하는 대학원대학을 목표로 불교교육의 산실로 자리잡겠다"며 "안국불교대학 개관에 힘을 보탠 불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템플스테이 개최 범어사, 접수 시작

부산 범어사(주지 정여)는 3월 27~28일 참선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경내 휴휴정사에서 열리는 이번 템플스테이에는 주지 정여 스님의 법문, 108염주 만들기, 참선, 발우공양, 암자 순례, 운력, 사찰예절교육 및 예불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템플스테이에는 불자 및 비불자, 외국인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선착순 40명을 접수받는다. 한편, 범어사는 산행및 수행정진 템플스테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051) 508-5726

박지원 기자

100원 동전 모아 작은 사랑 큰 기쁨

두송복지관, 교복 · 장학금 전달

사회복지법인 늘기쁜마을 두송복지관(이사장 지현, 부산 관음사 주지)은 2월 26일 지역 내 가정형편이 어려운 예비중학생 12명에게 교복과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350만원 상당의 교복과 장학금은 복지관이 '2010년 작은사랑 큰 기쁨 – 1일 100원 동전 모으기' 사업을 통해 모아진 후원금으로 마련됐다.

교복지원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IVY클럽 괴정 · 다대점이 후원해 2004년부터 열렸으며, 교복마련에 부담이 큰 저소득 가정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어 3월 2일에는 김맹자 복지관장 및 장학생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두송종합사회복지관 장학증서 수여식'이 열렸다.

이날 수여식에는 부산대 사범대학에 입학한 정설아 학생을 포함한 8명의 대학진학생을 비롯해 사하구 내 7개 고등학교에서 15명의 장학생이 장학증서를 전달받았다. 복지관은 현재까지 1000여 학생들에게 3억 4000여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박지원 기자



이재복 지음(270면)

폐결핵으로 한쪽폐가 없어지고 간경화, 위궤양, 대장염으로 복수가 차서 피를 토하고 쓰러져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이 병원에서 마저 쫓겨나 죽음을 기다리다 무심코「발치기」운동으로 살아난후 세계최초로 창안한 활인건강법!

"이운동으로 죽을 병고친사람, 몸이 더욱더 건강해진 사람, 정력이 변강쇠처럼 된 사람 무수히 많아, 누구든지 하기만 하면 제병을 제가고치는데 안하니까 문제여, 이운동은 무병장수할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여„ (본문에서)

빛 살림
정正골骨요법

그림을 보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창조. 값10,000원

평생 척추, 골반, 관절 걱정없다

퇴행성관절, 안짱다리, 고관절, 디스크, 좌골신경통, 오십견, 견비통, 목뻣뻣, 수족냉증, 두통, 갑상선질환, 불면증, 상기증

젖먹이 아이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본능적인「기지개운동」을 통해 건강하게 무럭무럭자란다.(생명의 신비!)
강력한 생체전기가 전신을 감싸고 입안에서는 단침이 몽클몽클, 내분비계통을 활성화 시켜서 만성적인 성인병을 치유하는 기지개운동법 수록

골반 골반변형이 만병의 원인! (불임, 생리통, 수족냉증, 무릎관절통) 가장빠른 골반교정운동, 스스로하는 평생골반관리법, 편안하게 누워서 골반과 전신의 균형을 잡는법 수록!

척추 뇌에서 내려오는 30,000가닥의 신경다발이 추간공을 흐르고 있다. 척추는 오장육부의 뿌리, 비뚤어진 척추를 스스로 바로잡아 질병의 뿌리를 뽑는다.

복부 뱃살과 전쟁, 복부비만을 아주쉽게 해결한다. 물혹, 자궁근종, 위염, 위궤양, 변비등의 원흉인 복부적취를 가장쉽고 빠르게 해결하는 온열쾌장운동법!

근육 근육의 긴장, 수축, 노화로 인해 신경, 혈관, 림프관의 압박으로 신경통, 근육통등 각종 통증에 시달리게된다. 근육풀이 건강법으로 통증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통증치유법수록!

국제정골요법협회
소백산수련원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구구초등학교자리〉

■ 도서구입안내 : 이 책은 서점에는 없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책신청 : 054)637-9810
■ 농협계좌 : 751017-52-024285 김순옥

–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 (1박 2일) –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에서는 놀라운 건강법이 공개됩니다. 각종 통증과 심혈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에게 획기적인 건강법입니다.
즉석에서 효력을 확인할 수 있고 눈으로 보여드립니다.

책 구입시『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C774-112010.3.81:17PM페이지1(1,1)

화순 지역 최초 사회복지관 운영

나드리노인복지관 1일 개관식 봉행



현고 스님(맨 왼쪽) 등 내빈들이 나드리노인복지관 개관 기념식수를 하는 모습.

전남 화순 지역 최초의 사회복지관을 불교계가 운영하게 됐다.

사회복지법인바라밀(이사장 현고)은 3월 1일 화순군으로부터 위탁 받은 나드리노인복지관 개관식을 봉행했다.

행사에는 현고 스님, 도제 스님(송광종합복지관 관장), 정행 스님(운주사 주지)과 전완준 군수, 주승현 화순군의회의장을 비롯해 지역 노인회 회원 등 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현고 스님은 기념사에서 "화순군 내 400여 노인정만으로는 1만 3700여 명의 노인복지 수요를 감당할 수 없었다"며 "노인 복지는 오늘날의 풍요를 이루게 한 이들에 대한 후세들의 양심이다. 화순지역 소재 사찰들과 신도 그리고 지역사회 자원봉사자와 후원자의 힘을 모아 내실 있는 운영을 해달라"고 말했다.

복지관 김재진 관장은 운영계획 보고를 통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통해 수준 높은 화순군 노인복지를 선보이겠다. 특히 물리치료와 운동치료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나 향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복지관은 한글 · 서예교실, 정보화교육, 풍물 · 국악교실, 댄스 · 노래 · 요가교실, 노인일자리, 찜질방, 급식, 물리치료, 노인상담, 재가노인 · 경로당 집수리 지원사업, 건강 · 취미 · 생활 지원사업과 방문간호, 지역특화사업 등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개관한 나드리노인복지관은 3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지 2141평(6912㎡), 건평 843평(2788㎡)의 지하1층 지상 2층 규모의 나비모양으로 지어진 건물이다.

1층에는 찜질방, 물리치료실, 식당, 진료실, 2층에는 평생교육실, 건강증진실, 상담실, 대강당 등이 갖춰졌다.

복지관에서는 13명의 사회복지사가 500명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정월대보름 맞아 고창군 사회복지관 복운 축제 개최

지난 2월 28일 고창군 종합사회복지관(관장 무공)은 정월대보름을 맞아 복지관 2층 대강당에서 '2010 정월대보름맞이 복운(福雲)축제'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운영위원장인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 관장 무공 스님, 이강수 고창군수 등 지역주민 600여 명이 참석했다.

축제에서는 웅진코웨이와 미스터 피자가 공동으로 후원한 사랑의 교복 전달식이 진행됐다. 이어 북 공연, 마술쇼, 판소리 공연, 칵테일 쇼, 윷놀이대회, 세대공감 도미노 경진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무공 스님은"경인년 새해 고창군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지역복지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다문화 가정은 '우리 이웃 우리 가족'

광주전남지역 불교계, 열린강좌 개최

다문화가정을 위한 광주전남지역 불교계의 지원법회가 열려 눈길을 끈다.

광주지역 불교외국인단체인 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센터장 이주성)는 아시아밝음공동체(대표 도제, 길상사 주지), 해뜨는다문화가족복지센터(대표 정선, 대광사 주지)와 공동으로 오는 3월 25~26일 오후 7시 '정토에 피는 무지개나무'를 주제로 강좌를 개최한다.

광주 KT정보문화센터 3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25일 불교방송 진행자 정목 스님, 26일 포교원장 혜총 스님의 강연, 아시아전통차 시음 등의 행사를 마련해 다문화가족에게 희망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주성 센터장은 "소외 받고 있는 다문화 가정은 우리 이웃이며, 우리 가족이다. 이들에게 삶과 희망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실패한 사회가 되고 말 것"이라며 "대부분이 불자인 다문화가정의 구성원들을 한국불교계가 앞장서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법회에 참가하는 수익금 전액은 6월 열리는 '다문화가족 국내결혼식'과 '결혼이주여성부모 한국방문 지원'에 사용된다.

특히 다문화가족 국내결혼식은 한국에서 결혼식을 하지 못한 다문화가족에게 무료결혼식을 진행해 준다. 친정 부모 한국방문은 외국의 친정 부모를 한국에 초청해 만남을 주선하고, 한국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에게 광주전남지역 불교계 불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062)962-3395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 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가 외국인 근로자 · 다문화 가정을 위해 지난해 개최했던 행사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뵙고 싶었습니다

무등산 원효사 주지 현지 스님



광주의 상징을 꼽으라면 단연 무등산이다. 무등산에는 한국의 큰 성인으로 알려진 원효(元曉)와 의상(義湘), 그리고 윤필(潤弼)스님과 어울어지는 선녀의 사시공양 이야기가 전해진다.

삼성봉(三聖峯) 중 하나로 원효 스님이 창건한 사찰로 알려진 원효사 주지 현지 스님을 찾았을 때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산기슭에는 안개가 드리워져, 무등산 성인들 이야기가 현실로 펼쳐지고 있었다.

오랜만에 만난 현지 스님은 속세에 대한 고민이 컸다. 최근 4대강 사업장 중 하나인 영산강 보 설치 현장을 다녀온 이후 생긴 시름 때문이었다.

"정부가 영산강 뱃길을 복원하고, 보(洑)를 설치한다기에 작은 가름막으로 생각했다. 가보니 거대한 댐을 만드는 것 같다."

스님은 현실 · 사회 · 불교에 대한 고민을 함께 안고 사는 대승보살이다. 현지 스님은 현재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이하 광주생명나눔)과 우리겨레하나되기 광주전남지부(이하 광주겨레하나) 이사장 등을 맡고 있다.

소아암백혈병 아이들을 위한 사업으로 더 잘 알려진 광주생명나눔은 현재 광주지역 민간사회단체 중 우수단체로 인정돼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전남대의대병원과 조선대의대병원에서 백혈병지원사업과 차봉사, 헌혈은행, 조혈모세포 기증사업은 오래전부터 펼쳐온 광주생명나눔의 대표적 활동이다.

스님의 또 다른 사회활동은 통일운동이다. 광주겨레하나는 2005년 북한농민에게 못자리용 비닐 보내기 운동(광주전남지부 1억 5000만원 상당)을 시작으로 광주전남농민연대와 공동으로 통일쌀(63톤), 비닐 보내기를 전개했다. 최근에는 씨돼지 보내기 사업(8000여만원 상당)을 진행하고 있으나 남북관계 악화로 연기된 상태다.

"얼마 전 북한에 신종플루 약을 보냈습니다. 지금 북한은 당장 배고파 병이 생기는데, 그 돈으로 식량을 보내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도시 근교에 사는 스님들이 산속에서 조용히 진리를 탐구하는 생활만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대중들이 많이 힘들어 하는 때 출가자가 힘이 돼야지요."

생명나눔 활동 남북통일 운동 전개 무등산에 명상공간

스님은 "1980~1990년대 사회단체에 영향을 미쳤던 지선 · 진관 스님이있기는 했지만 불과 10여 년 전만해도 사회단체 활동을 하는 스님은 거의 없었다. 지금은 불교단체의 활동도 왕성해지고, 시민들이 불교를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좋아졌다"고 말했다.

사회운동 한복판에서도 스님이 사회운동가가 아닌 수행자로 설 수 있는 데는 불교적 실천을 행하기 때문이다.

스님은 해인사에서 처음 출가해 채공(절에서, 부식물을 만들거나 재료인 야채를 관리하는 일)과 공양주를 살았다. 그러다 다시 며칠을 굶어가며 찾은 순천 송광사에서 발심출가를 했다. 그곳에서 은사인 구산 스님을 만났다.

구산 스님의 "파리 같은 중노릇을 하지마라"는 가르침은 좋은 것만 쫓는 파리의 습성을 경계한 일갈이었다. 현지 스님은 은사스님의 말을 답고 정진을 했다.

한국 전쟁으로 전소됐던 원효사는 1982년 법타 스님(현 동국대 정각원장)이 주석하며 대웅전을 복원했다. 1988년 현지 스님이 주지 소임을 맡은 후로 10여 채의 건물을 복원해 오늘날 무등산의 대표적 사찰로 자리 잡도록 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생명이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야 말로 부처님 가르침을 가장 바르게 실천하는 길입니다"

스님은 "불자들은 사회봉사에 참여하는 비율이 낮다"며 "인간에게 가장 보람된 일이 남을 돕는 것이다. 불교계가 사회봉사 참여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원효사에 시민과 시민단체를 위한 명상의 공간을 만들 예정이다. 스님이 구상 중인 명상공간이 만들어질 곳은 옛 무등산장이 있던 곳이다. 아직은 인력과 시설을 보충하기위한 일이 남아있다고 한다.

"물질에 치우치지 않고, 자신의 삶을 관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시민단체들이 참여해 자신과 단체를 돌아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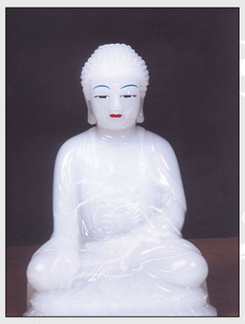
스님은 "무등산에 대중적 명상공간이 들어서는 날, 광주 무등산의 새 명물이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특수 기술로 개발 조성한 부처님


개금불


비취옥불


백옥불


대나무숯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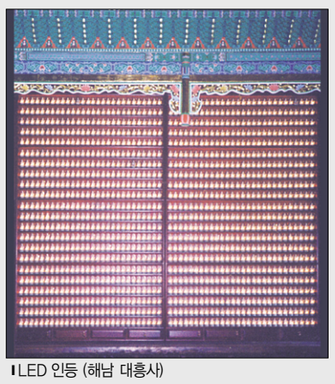

대나무숯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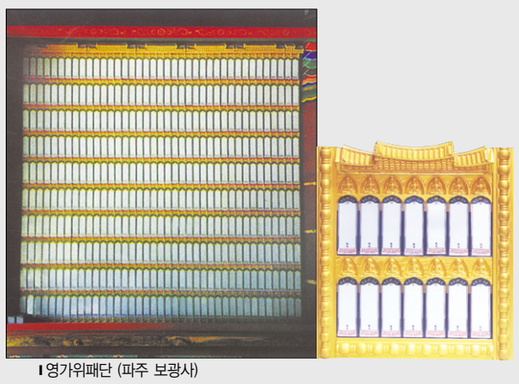
■ 규격 :
소불 - 5치. 7치. 9치. 1자(108-1,000불)
대불 - 2자. 2자반. 3자. 3자반(법당 內)

정우불교예술원(구. 정심원) 취급품목
■ 각종불상. 특수불. 옥불.
■ 대나무숯불. 영가위패단.
■ LED인등. LED전구(연등용).
■ 옥촛대.
■ 연등전선 시공.

正宇불교예술원(구.정심원) www.jeongwoo.info

LED인등 및 영가 위패단
디자인 등록 제 30-0477206호
실용신안등록 제 20-0439285호


LED 인등 (해남 대흥사)


영가위패단 (파주 보광사)

• 안전하고 편리하며 누전이 없습니다
• 화려하고 장엄합니다
• 전기료가 기존인등의 1/10 미만입니다
•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설치해 드립니다

정우불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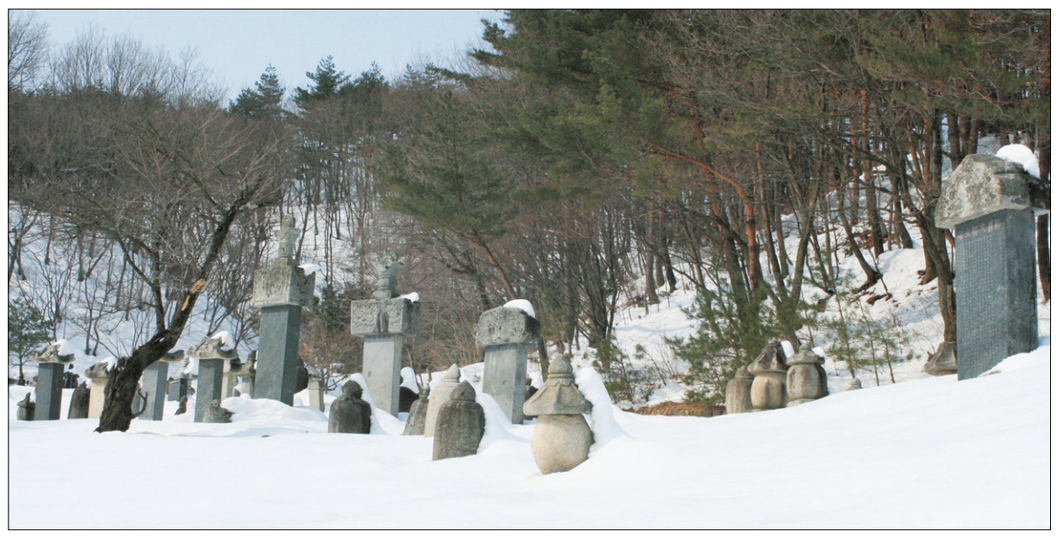

공단등 · 바리등 · 영가등 · 금 등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식사동 1474 전화 031)969-6310 / 직통 011-724-0455 대표 이정옥(진성) 합장
※ 전화주시면 전국 어디든지 방문하여 상담하여 드립니다.

C774-122010.3.81:12PM페이지1(1,1)

염불소리 그침 없으니 시간과 공간 초월한 보배궁전

29 새로 눈뜬 보궁 건봉사


건봉사 부도밭의 설경.


건봉사 적멸보궁 뒤뜰의 세존영아탑이 눈에 몸을 묻고 있다.

사명대사 일본서 되찾아 온 부처님 진신사리 모셔
신라 때부터 '염불만일회' 전통 잇는 적멸의 도량

설악(雪嶽)은 눈을 덮어 쓰고서야 제 모습입니다. 유난히 눈이 많은 겨울, 설악을 넘어 금강산 건봉사(乾鳳寺) 가는 길은 설국정토(雪國淨土)로 가는 길입니다. 입춘은 지났어도 동해의 시린 파도소리와 설산의 웅혼한 기상은 아직 봄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 두터운 눈 속에서 봄의 전령사는 봄소식을 열심히 쓰고 있을 것입니다. 어느덧 2월도 기울어 바람 끝에는 아미타불의 숨결 같은 훈훈함이 묻어 있으니 말입니다.

건봉사 부도밭은 일주문에 닿기 전 오른쪽에 있습니다. 설의(雪衣)를 두른 채 아침햇살을 반사시키고 있는 50여기의 부도들을 향해 반배를 올리고 절로 향합니다. 불이문을 지나 능파교를 건너 대웅전 아미타부처님께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적멸보궁(寂滅寶宮)을 향해 잰걸음을 놓습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설악산 봉전암과 함백산 정암사, 사자산 법흥사, 오대산 상원사, 영축산 통도사를 '5대 적멸보궁'이라 말합니다. '5대 적멸보궁'은 신라의 자장율사가 중국의 오대산에서 모셔온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5곳의 도량입니다. 그러나 금강산 건봉사도 분명한 적멸보궁입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유출됐던 통도사 진신사리의 일부를 사명대사가 되찾아 와 건봉사에 모셨으므로 건봉사 적멸보궁을 합해 '6대 적멸보궁'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자장율사가 창건한 도량은 아닐지라도 부처님의 진신이 모셔져 있다면 그곳은 적멸보궁입니다.

건봉사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중요한 키워드는 '염불만일회(念佛萬日會)'와 '적멸보궁'입니다. 건봉사는 국내에서 가장 오랜 '염불만일회'의 전통을 이어오는 도량입니다. 절의 기원은 신라 법흥왕 7년(520) 아도화상이 원각사란 이름으로 개창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신라의 불교 공인이나 아도화상의 생몰연대 등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이 설(說)은 신빙성이 약합니다. 때문에 기록에 의한 정확한 연원은 경덕왕 17년(758) 발징화상(發徵和尙)이 원각사를 중건하고 염불만일회를 개설했다는 <삼국유사>의 기사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염불만일회란 말 그대로 1만 일, 즉 27년 5개월 동안 일심으로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며 불국정토 실현과 극락왕생을 염원하는 하나의 결사(結社)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발징화상은 정신(貞信) 양순(良順)등 제자 31명과 함께 염불결사에 돌입했습니다. 이 원력에는 당시의 불자 1820명이 자원발심(自願發心)하여 동참 했는데, 그 중 120명은 스님들의 의복을 시주하고 나머지는 음식을 공양했다고 합니다. 만일 동안의 염불 기도를 발원한 스님들은 오로지 염불 수행에 전념하고 불자들은 각자의 소임대로 그 원력불사를 후원한 것입니다.

극락정토(極樂淨土)의 교주이신 아미타불을 염하는 간절한 목소리가 한 순간도 끊이지 않고 그 장엄한 기도를 후원하는 불자들의 발길이 줄을 이었을 당시의 건봉사를 생각하면 진짜 수행이 어떤 것인지 진짜 공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토를 꿈꾸는 중생의 간절함이 어떤 것인지도 사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토(穢土 더러운 곳)에 사는 중생이 정토를 꿈꾸는 것은 배고픈 사람이 먹을 것을 생각하고 집 나가 '개고생' 하는 사람이 포근한 집을 그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토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마음이 청정하면 바로 그곳이 정토라 합니다. 만일 동안의 염불은 바로 만일 동안의 심청정(心淸淨)으로 정토를 구현하고자 하는 원력인 것입니다.

기록은 발징화상과 함께 염불 기도를 한 스님들 31명이 원성왕 3년(787)에 모두 아미타 부처님의 가호를 받아 육신 그대로 하늘을 날아[肉身騰空] 극락세계에 왕생했다고 합니다. 그 때 스님들의 몸이 1.5Km나 하늘로 솟았다가 육신은 땅에 떨어지고 정신은 정토로 왕생했다는 곳을 '등공대'라 하는데 그 터에 '등공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건봉사 염불만일회의 전통은 천년이 지나 다시 이어졌습니다. 순조 2년(1802) 용허 스님이 옛 전통을 이어 제2회 염불만일회를 설치하여 1832년까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이어 철종 2년(1851)에 벽오유총 스님이 제3회 염불만일회를 개설했으나 12년 후 철종의 승하로 회향되었고, 1908년 제4회 염불만일회가 회향되며 다시 제5회 염불만일회가 개설됐다는 기록이 전합니다. 그리고 1998년 다시 그 전통을 이어 염불만일회가 결성되어 건봉사는 물론 전국의 도량을 순회하며 결사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웅전을 나와 능파교를 건너면 옛 건물터 앞에 '나무아미타불'이란 글씨가 뚜렷하게 새겨진 돌기둥이 있어 이곳이 염불도량의 시원임을 알려줍니다.

건봉사 적멸보궁은 작은 영지(影池)를 지나 낙서암 구역 위쪽에 있습니다.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진 곳답게 고요하고 엄숙합니다. 보궁이라 불상은 모시지 않은 법당과 그 회랑채들이 두터운 눈을 덮고 있습니다. '적멸보궁'이라는 편액이 달린 법당 안에는 절을 하는 불자들이 수시로 드나들고 있어 훈기가 가득합니다. 법당을 나와 뒤로 돌아가니 오른쪽에 세존영아탑(世尊靈牙塔)이 가슴만 드러낸 채 눈에 묻혀 있습니다.

보궁의 뒤뜰은 바로 이 영아탑의 영역입니다. 사명대사(四溟大師, 1544~1610) 유정(惟政) 스님이 선조 38년(1605)에 일본에서 되찾아 온 부처님의 치아사리를 경종 4년(1724)에 탑을 세워 봉안한 것입니다. 이 영아탑이 여기에 있음으로 건봉사는 적멸보궁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고 이후 조선의 4대 사찰로 사격을 신장하는 힘을 얻었습니다.

영아탑 곁에는 주인을 알 수 없는 두 기의 부도가 있고 내력이 불분명한 비석도 하나 서 있습니다. 근래 들어 보궁 뒤뜰 가운데 석종형의 새로운 부도를 모셨는데, 영아탑의 내력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새로운 부도가 보궁의 상징인 것으로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건봉사에 새로운 힘을 부여한 사명대사는 초등학생도 그 전기를 필독서로 꼽는 국난극복의 상징입니다. 건봉사에는 '사명대사기적비'가 있습니다. 눈 속의 부도밭 어디엔가 있을 것이지만 만날 수 없습니다. 사명대사의 비는 대사가 입적한 해인사 홍제암과 고향인 경남 밀양의 무안리 등에 있습니다. 홍제암과 밀양의 비는 모두 국가에 중대한 일이 있을 때마다 땀을 흘린다는 이야기로 유명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합천 경찰서장이 국혼(國魂)을 파괴하려는 상징으로 네 동강 내었던 홍제암의 비는 접착되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사명대사기적비'는 정조 23년(1799) 강원도 순찰사 남공철이 원력을 세워 그 이듬해에 건립했습니다. 유학을 사회 이념과 선비의 좌표로 여기던 시절, 강원도 순찰사인 남공철이 직접 비문을 찬했습니다. 내용은 왜란을 맞아 승군을 일으켜 구국의 횃불을 들었던 서산대사와 사명대사의 업적을 찬탄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 위기 상황에서 유학의 이념으로 시대의 지도급에 있었던 사람들이 감히 생각지도 못할 일을 두 스님이 이루어 낸 데 대한 칭송도 침이 마를 지경입니다. 그러면서도 유학과 불교의 가르침이 근본적으로 틀리다는 점은 한 치의 양보 없이 지적하고 또 지적합니다. 한 대목을 봅니다.

"서산대사와 사명대사가 나라에 세운 공로를 유교의 군신유의(君臣有義)와 부자유친(父子有親)에 비교해 보면 어떠하다 하겠는가? 저들이 유관(儒冠)을 쓰고 유의(儒衣)를 입고 깊이 성리학을 연구하여 고상하게 인의의 도리를 설명하더라도 이는 그 알맹이가 없는 것이므로 동일하다고 말할 수가 없다. 이름은 불교이나 유교의 행을 하는 자는 곧 우리의 유교이고, 이름은 유교이지만 불교의 행을 실천하는 사람은 이단일 뿐이다."(<교감 역주 역대고승비문> 이지관, 가산불교문화연구원)

그리고 또 하나, 사명대사가 일본으로 화친을 위한 강화사로 가게 된 배경을 일본이 불교를 숭상하므로 승려가 가면 대화가 잘 될 것이라는 판단에 의한 것으로 기록했습니다. 물론 당시 조정이나 사회 분위기가 이와 다르지 않았을 것은 짐작이 됩니다. 그러나 단지 이 이유만을 부각시키는 것은 좀 편향적인 것입니다.

사명대사는 이미 전쟁 와중에 왜군의 수장들과 여러 차례 담판을 지어 많은 공적을 세웠던 점과 당시 국민적 존경을 받았던 점 등이 충분히 참작되었음을 밝히지 않은 것이 '유학이념으로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의 자존심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군사분계선 안에 위치해 반세기 가까이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었다가 1992년부터 출입이 자유로워진 건봉사. 또 하나의 적멸보궁으로 새롭게 눈뜨고 있는 건봉사의 부도밭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키가 크지 않은 탓에 허벅지까지 빠지는 눈을 헤쳐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길에서 부도밭까지 50여 미터를 가니 기진맥진입니다. 50여기의 부도와 10기가 넘는 비들이 양지 바른 곳에서 몸통을 눈에 묻은 채, 눈만 빠끔내 놓고 카메라들 들이대는 기자를 조용히 내려다봅니다. 다음에 다시 와서 비와 부도들을 좀 더 가까이서 찬찬히 살펴봐야겠다고 다짐 하는 기자의 귀에 아미타불을 부르는 염불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어디 부도밭에서만 그 소리가 들렸겠습니까? 건봉사 도량 어느 곳에선들 염불소리가 나지 않았을까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을 뿐.

임연태 (시인 · 본지논설위원)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거제도 총명사 아미타후불탱화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3219-7180 / 010-3743-5167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73기 佛教儀式 (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0년 3월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6>

도를 얻으면 시주집 소가 된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내가 90년 전에 마조 대사 문하에서 80여 선지식을 친견했지만 한 분 한 분 모두 훌륭한 본분작가(本分作家)였다. 요즘 사람들은 정신이 가지와 덩굴만 무성한 채 대도시에 들어가므로 성인과 멀어질 뿐만 아니라, 일대(一代)마다 점점 수준이 낮아지고 있다. 다만 남전 스님이 '이류(異類) 중에 나아가라'고 말했는데 그대들은 그 뜻을 알고 있는가?"

이어 스님이 말했다. "요즘 노란 부리의 햇병아리들이 4거리 가두에 나아가 어지러운 덩굴 덩어리를 설법하고 밥을 얻어 먹으며 예배할 것을 원한다. 그리고는 300~500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나는 선지식이고 너희는 학인이다'라고 떠들고 있다."

師又云 老僧九十年前 見馬祖大師下八十餘員善知識 箇箇俱是作家 不似如今知識枝蔓上生枝蔓 大都是去聖遙遠 一代不如一代 只如南泉尋常道 須向異類中行 且作麼生會 如今黃口小兒 向十字街頭說葛藤博飯喫 覓禮拜 聚三五百衆云 我是善知識 你是學人

이류(異類)는 산중 바깥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을 말하므로 시정(市井)의 사람들을 뜻한다. 남전 스님은 <조주록> 앞부분에서 "도를 얻은 사람은 산문 앞 시주집의 소가 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것은 이류 즉, 대중 속에서 '입전수수'하라는 말이다. 이에 앞서 그 문답에는 먼저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도를 알지 못하고 시정에 나아갔다가는 자신이 먼저 흙탕물에 빠져버릴 수 있으므로 남을 제도하는 것은 고사하고 자기 하나 단속도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소가 된다는 것은 도를 얻었다 해도 한낱 이류의 심부름꾼이나 일꾼일 뿐이라는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도 들어있다.

오늘날에는 출가 승려가 반드시 깨닫고 난 다음 도시에서 포교할 수는 없다. 하지만 도시 사찰에 사는 승려라면 적어도 조주 스님의 이 경책만큼은 깊이 새겨야 한다. 비록 옛 선사의 말대로 살고 있지는 못하더라도 출가자는 항상 겸손해야 하고, 남에게 존경받기를 바라지 말아야 한다. 도시에 나와 있어도 검소한 수행자의 자세를 잊지 말아야 하고, 어나는 장소로 본 것이다. 출가는 도피나 일신의 안일을 위한 행위가 아닌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장소라는 것을 조주 스님은 말하고 싶었던 것일 것이다.

또 하나는 소녀가 애를 배었다는 것 자체가 당시로서는 위법이요, 비윤리적인 일이다. 따라서 조주 스님의 이 비유는 "있을 필요 없는 일이 벌어진 것"으로 본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즉 출가자를 필요 없는 짓을 하는 자로 간주한 것이다. 이유가 무엇일까? 선사(禪師)는 중생을 본래부터 깨끗한 부처로 보기 때문이다. 원래 부처가 또 부처가 되려고 출가하다니, 이것이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이는 것이라고 본 것이다.

한 스님이 물었다.

"들은 바에 의하면 화상께서 친히 남전 노스님을 친견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조주 스님이 답했다.

"진주(鎭州)에 가야 큰 무가 나와."

問 承聞和尙親見南泉是否 師云 鎭州出大蘿蔔頭

당시 진주는 큰 무가 나오는 고장이었던 모양이다. 여기서 조주 선사가 하고 싶은 말은 불법을 제대로 배우려면 훌륭한 스승이 있는 도량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불교도 불법을 제대로 알려면 좋은 스승을 만나야 한다. 특히 선법은 법을 아는 스승과 제자가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눈 밝은 스승을 찾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출가자는 일꾼이라는 겸손한 자세로 살아야
불법을 알려면 눈 밝은 스승을 만나야 한다

그런데 이 문답에서 볼 수 있듯이 <조주록>이 모두 격식을 벗어난 선구로만 기록된 것은 아니다. <조주록> 전반부에서 봤듯이 조주 스님은 젊었을 때는 한 틈의 여유도 주지 않으려는 선기로 가득했지만, 노년 들어 <조주록>을 기록할 때쯤에는 때로는 쉬운 대담으로, 혹 때로는 어려운 선적인 대담을 보이면서 자연스럽게 납자들을 교화했다. 100세를 넘겨 살면서 수많은 납자를 접했던 조주 선사는 납자들의 근기에 맞는 각각의 방법으로 대담에 임한 것이다.

그러다보니 평범한 진리도 선적인 비유를 들어 대담한 것이 있고, 간혹 몇 단계를 생략한 언어로 대담한 것이 있다. 물론 고준한 뜻이 담긴 선구를 보인 것도 있다. 따라서 선을 이해하려는 사람들에게 <조주록>은 선의 비유나 선적인 뉘앙스를 이해하는 것에 좋은 참고 자료가 된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뜻이 있는 납자들에게 <조주록>은 식지 않는 인기 선서(禪書)이다.

한 스님이 물었다.

"청정한 사원(寺院)이란 어떤 것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머리를 딴 소녀이다."

한 스님이 다시 물었다.

"사원 속의 사람은 무엇입니까?"

조주 스님이 답했다. "머리를 딴 소녀가 애를 밴 것이다."

僧問 如何是淸靜伽藍 師云 丫角女子 如何是伽藍中人 師云 丫角女子有孕

청정한 사원을 머리를 딴 소녀로 비유한 것은 소녀는 아직 남자의 손이 닿지 않은 청정한 상태를 상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원 속의 사람은 출가한 승려들을 말한다. 출가자를 청정한 여자가 애를 밴 것에 비유한 것은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청정한 도량은 장차 부처가 될 사람이 태선(禪)을 알지도 못하면서 공연이 이 설, 저 설을 들이대면서 이것이 선이라고 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부처님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사명에만 충실해야 하는 것이다.

■ 무불선원 선원장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관심론 11

육도(六度)를 거듭 밝히다 (2)

냄새를 맡아 생기는 번뇌를 항복시키면 향기나 악취에 상관없이 유연하고 자유롭게 되므로 인욕이라 한다. 맛봄으로 인해 생기는 번뇌를 누르면 삿된 맛을 탐내지 않고 칭송하고 설법하되 게을리 하는 마음이 없으니 정진이라 한다. 몸으로 인해 생기는 번뇌를 항복시키면 촉욕(부드러운 의복이나 상대의 피부에 접촉하고 싶은 욕망)에 대해 초연해 움직이지 않으므로 선정이라 하고, 생각(인식)으로 일어나는 번뇌를 조복시키면 무명을 따르지 않고 항상 부처님의 지혜를 닦아 공덕을 즐기므로 지혜라 한다. 또, 도(度)라는 것은 운반한다는 뜻이니라. 육바라밀은 배나 뗏목 같은 것이라 중생을 운반해 저 언덕에 이르게 하므로 육도라 하느니라.

[원문]

能伏鼻賊 等諸香臭 自在調柔 名爲忍辱 能制舌賊 不貪邪味 讚詠講說 無疲厭心 名爲精進 能伏身賊 於諸觸欲 湛然不動 名爲禪定 能調意賊 不順無明 常修覺慧 樂諸功德 名爲智慧 又度者運也 六波羅密 喩若船筏 能運衆生 達彼岸故 云六度.

[해설]

대상을 부처로 보고, 묘음으로 본다면 어떤 향기나 악취에 끄달려 가지 않습니다. 대상에 끄달려 가지 않음을 인욕이라 합니다. "항상 칭송한다"는 말은 마음에 한 생각을 놓치지 않고 염불을 하고 가족들이나 이웃들에게 부처님 법을 설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이 부처님 은혜를 갚는 일입니다. 이것을 정진이라 합니다.

또, 마음이 육근을 통해 대상에 끄달려 가지 않는 것을 선정이라 합니다.

생각으로 일어나는 온갖 번뇌 망상도 사실이 아닙니다.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꿈 속에서 대상에 끄달려 가다가 꿈을 깨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보고 듣고 생각하는 현실도 꿈속에서 꿈꾸는 것과 똑같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현상세계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 무명에 끄달려 가지 않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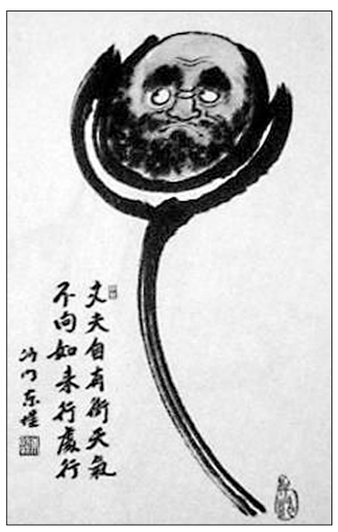
항상 마음에 한 생각 놓지 않고 정진 한다면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육바라밀 수행법을 배나 뗏목과 같다고 비유한 것은 육바라밀을 수행하면 중생이 곧 부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를 하나로 보고 대상을 부처님으로 볼 수만 있다면 분명 그 순간이 부처님 경지입니다.

#법유를 밝히다

다시 "부처님이 서말 여섯 되의 우유를 마시고서야 불도를 이뤘다 했는데 어찌 마음을 관(觀)하기만 하면 해탈할 수 있다 하십니까?"라고 물었다. 대답하기를, "부처님께서 마셨다는 것은 세상의 부정한 젖이 아니라. 진여의 청정한 법유(法乳: 어머니의 젖으로 아이가 성장하듯이 스승의 가르침으로 제자가 진보하므로 그 가르침을 법유라 함)이니라. 서말은 삼취정계를 뜻하고, 여섯 되는 육바라밀이니라. 부처님이 성도할 때에 이 청정한 법의 젖을 마신 까닭에 불과(佛果)를 깨달았는데 여래가 세상의 육욕으로 이루어진 더럽고 비리며 누린내 나는 젖을 마셨다고 한다면 비방이 지나치지 않겠느냐.

[원문]

又問曰 經文所說 釋迦如來 爲菩薩時 曾飮三斗六升乳 方成佛道 卽先因食乳後 證佛果 豈唯觀心得解脫也 答曰 誠如所說 無虛妄也 必因食乳 然始成佛 佛所說食乳者 非是世間不淨之乳 乃是眞如淸淨法乳 三斗者 卽三聚淨戒 六升者 六波羅密 佛成道時 由食此淸淨法乳 方證佛果 若言如來 食於世間狀欲和合 不淨 腥之乳者 豈不成謗之甚乎.



동성 스님 作

[해설]

부처님은 단식 · 고행 끝에 우유죽 공양을 받았습니다. 우유는 육체를 길러 주기 위한 음식인데 여기서 말하는 우유는 우리의 마음을 맑혀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뜻합니다.

진여의 청정한 법유는 모든 물질의 본질, 바로 마음세계를 말합니다. 마음은 분명 있지만 볼 수 없잖아요? 마음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이 아니니까 모양이 있을 수 없고 청정한 것입니다. 사람 · 짐승의 차별을 떠나 본래 마음은 절대 오염되지 않습니다. 청정한 그 마음을 통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성불 하셨습니다. 현대 과학에서도 모든 물질의 본질을 과학자들이 쪼개고 쪼개서 분석해보니 보는 사람에 따라서 물질로 보이기도 하고 에너지로 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상대성이론을 발견해 냈습니다. <반야심경>에 "색과 공이 다르지 않다"는 물과 얼음이 둘이 아닌 하나라는 원리를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미 3000년 전에 설했습니다. 부처님도 법유를 마시고 성불했으니 우리도 우주를 하나의 마음으로 보고 꾸준히 정진하면 성불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성성이 깨어 있으면 부처가 된다는 얘깁니다. ■ 청주 혜은사 주지



전국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
화제의 신간
새롭게 다시 쓴
한국 최초의
신개념 택일지
운세 비법 출간!!
매일매일 운세 보는법 공개….
365일 매일 한 장씩 매일운세!
한 눈에 훤히 볼 수 있는 래정비법!
4×6배판/칼라제본/436쪽/정가 20,000원
문고판/칼라제본/436쪽/정가 10,000원
百超律歷學堂 (02) 3667-4446 010-3813-4443

베스트화제작 신간
귀신뽑는 백초귀장술 上·下
래정비법!
찾아온 일진, 시간만 가지고
왜 왔는지
무엇이 탈났는지
어떤 귀신이 붙었는지
어느 조상이 탈이 났는지
들어오는 순간 알 수 있는
특수 초사법!
귀신뽑는 래정비법으로 복잡하지 않고 간단히 알 수 있는 비법공개!
60갑자 일진별로 한눈에 쏙쏙 알 수 있게 초사를 확실하게 설명!
㊤ 신국판/양장본/567쪽/정가 120,000원
㊦ 신국판/양장본/720쪽/정가 120,000원
著者 百超백초스님
비법전수중
입금 계좌 | 농협 023-02-500940 임현주
신한 010-6413-4443 임현주

불자는 자기 이익 쫓아 일희일비하면 안 돼



동국대 정각원장 법타 스님

조계종립 동국대가 최근 약학대를 유치했다. 동국대 교문 입구와 교정 곳곳에는 약학대 유치를 자축하는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로스쿨 유치에 탈락했을 때의 가라앉았던 분위기와는 다른 모습이다.

종단도 대학도 "동국대의 약학대 유치는 상생과 화합의 결과"라며 자축하는 분위기가 한창인 때, 로스쿨에 탈락했던 때를 생각하는 것은 주책일까?

3월 어느 날, 나그네는 동국대를 찾았다. 동국대가 로스쿨 선정에서 탈락됐을 때, 동국대의 로스쿨 선정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였던,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마이크를 들고 목청 높였던 이가 생각났기 때문이었다.

당시 지역안배에 의해 로스쿨 선정에서 탈락됐던 동국대를 위해 맨 앞에서 목소리 높였던 이가 조계종 로스쿨 대책위원장이었던 법타 스님이다. 남다른 동국 사랑을 몸소 실천했던 스님은 2009년 3월부터 동국대 정각원장을 맡고 있다.

나그네가 정각원 사무실을 찾았을 때 법타 스님은 자리에 없었다. 그래서 찾은 곳이 정각원 법당. 혹시나 했던 짐작은 역시나 였다. 다수의 동국대 구성원처럼 스님도 하루의 시작을 정각원 법당에서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었다.

스님은 "처음 정각원장에 부임했을 때 안팎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학교는 신정아 사건으로 위신이 추락한데다 로스쿨 탈락까지 겹치며 패배주의적인 분위기가 팽배했다. 교계에서는 내게 '본사 주지도 여러 번 지낸 중진스님이 무엇하러 동국대 정각원장을 하느냐'고 비아냥대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이번 약학대 선정은 제33대 집행부의 캐치프레이즈처럼 종단 · 학교가 한마음으로 소통과 화합을 이룬 결과"라고 강조했다.

오래 전 나그네가 한 선지식에게 얻은 지식이 있다. 사람마다 강조하고 내세우는 부분이 그 사람의 단점 · 문제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도덕적인 경우 더 그렇다는 것. 청렴을 강조했던 이가 비리와 청탁 건에 연루되는 사건 등이 그 예이다. 그래서인지 종단에서는 종단 출자 기여도를 배제한 동국대 이사후보 선출건 등 조금씩 갈등이 시작되고 있다.

그래서 물었다. "스님, 화합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화합은 소탐대실하지 않고 역지사지하는 것입니다. 하심하면 됩니다. (자기가) 죽을 일 아니면 손해 좀 보면 어떻습니까? 불자라면 속물처럼 자기 이익 쫓아 일희일비하면 안됩니다. 우리 속담에 '마음이 맞으면 부처도 부러워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하하"

법타 스님은 "<대승기신론소>에서 원효 스님은 '그렇지 아니한 것이 크게 보면 그렇고, 뜻이 없는 것 같은데 크게 보면 뜻이 있다'고 말했다. 이해관계와 시시비비를 떠나 비전을 갖고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육화경(六和敬)을 설명했다. 육화경은 출가자가 수행 생활을 함에 있어 화합을 이루기 위한 여섯가지 원칙이다. 불교에서는 오역죄(五逆罪)의 하나로 화합을 깨뜨리는 것을 지목할 정도로 승가에서의 화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출가자의 화합법칙 '육화경'에 화합 비결 다 있어

수행은 개인 일이나 목적은 포교 밑거름 되기

"신화공주(身和共住)는 몸으로 화합하는 공동체 의식을 말합니다. 가족이 한지붕 아래에서 한솥 밥 먹고 살 맞대고 살면 화합의 길이 쉽게 열리는 것과 같습니다. 구화무쟁(口和無諍)은 언어와 의사표시를 순화해 입으로 화합하는 것입니다. 좋은 말로 입을 화합하면 다툼이 없어지잖아요?"

이어 법타 스님은 "뜻을 합쳐 행동을 함께 하는 의화동사(意和同事), 계율과 법질서에 따르는 계화동수(戒和同修), 서로 다른 견해를 인정할 줄 아는 견화동해(見和同解), 이익을 균등히 배분하는 이화동균(利和同均)을 염두에 두고 생활하면 화합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우리(불자)의 경쟁상대는 이웃종교입니다. 그런데 불교계 내부에서 서로 이권 등을 놓고 다툼해서야 되겠습니까?"

스님은 충북의 유교집안에서 막내로 자랐다. 어려서 부터 몸이 약했던 법타 스님을 위해 어머니와 할머니는 부처님 오신 날이면 등을 밝혔다. 스님은 청주에서 중학교를 다니면서 도서관에서 불교서적을 처음 접했다. 책으로 만나는 불교는 지금까지 그저 절에 등 켜고, 스님이 탁발 다니는 것이 불교의 전부라 여겼던 법타 스님에는 놀라운 일이었다.

어느 날, 친구와 청주 수도원(現 신용화사)을 찾았다. 도량을 기웃거리는데 법당에서 큰스님의 법문을 듣는 또래의 모습이 한없이 부러웠다. 그러던 중 법타 스님은 한 학생에게 "어떻게 하면 스님 말씀(그때 스님은 '법문'이라는 단어도 몰랐다)을 들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렇게 스님의 불교학생회 생활이 시작됐다. 미친 듯이 활동했다. 법타 스님이 중학교 3학년일 때, 속리산 법주사로 대학생 선배들을 따라 수련회를 갔다. 오지 말라는 것을 스님은 '깡' 하나로 찾아갔다.

"선배들이 어리니까 오지 말라고 합디다. 도통하면 그만이지, 도통하는데 무슨 나이가 중요한가 싶어서 혼자서 법주사를 찾아갔습니다."

20여 일 수련회를 지내면서 법타 스님은 절이 좋아졌다. 스님이 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스님은 후일 은사가 된 추담 스님에게 "스님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추담 스님은 껄껄 웃으시며 "중노릇 하면 좋지만 무식하면 안된다. 고교 졸업장을 가져와라"라고 말했다.

법타 스님은 집으로 돌아왔다. 청주상고에 진학해서도 불교학생회 활동은 쉬지 않았다. 오히려 더 열심히 했다. 교회 장로가 교장이었던 학교였지만 스님은 쉬는 시간마다 교실을 돌며 불교학생회에 학생을 모집했다. 특히 바르게 사는 사람이 스님이라는 생각에 출가 전 사회부터 바르게 하겠다 마음 먹고 열심히 학생운동을 했다.

거칠 것 없이 대범했던 고교생 법타 스님도 얌전한 때가 있었다. 스님은 추담 스님이 청주 시내에 나오셨다는 소식만 들으면 달려가 시봉했다.

법타 스님은 "은사스님만 뵈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았다. 지금 생각해 보면 스님이 된 것은 금생만의 일은 아닌 것 같다"고 회상했다.

고교 졸업식 날이 왔다. 스님은 오래전 추담 스님과의 약속대로 출가했다. 은사스님을 옆에서 시봉하니 그리 행복할 수가 없었다.

그러던 때 추담 스님이 갑자기 속초 신흥사로 가게 됐다. 은사스님은 법타 스님에게 따라오지 말고 동국대에 가서 공부를 하라고 했다. 은사스님과의 이별이 싫어 법타 스님은 울기도 많이 울었다.

은사스님의 말씀대로 공부해 동국대 인도철학과에 입학했다. 출가 전 학생운동에 앞장섰던 스님은 출가해서도 두각을 보여 백상원(동국대 학인스님들 기숙사)을 주름 잡았다.

대학 시절, 군입대했던 법타 스님은 월남도 다녀왔다. 남들은 6개월 순환근무 하는 곳을 스님은 자청해 2년을 있었다. 그 곳에서도 스님은 부지런히 움직여 호국백마사를 세웠다.

스님은 "바르게 살자"는 말을 실천하며 살아왔다. 당시 태고종 스님들이 머물던 내장사를 성진 스님과 함께 '정화'한 것도 바른 일이라 여겼기 때문이었다.

법타 스님은 ...

1965년 속리산 법주사에서 추담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동국대 인도철학과에서 학사 · 석사를 마쳤다. 1969년 월남전 참전. 미국에서 '20세기 근세 북한불교에 관한 연구'로 종교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총무원 총무부장, 불교신문 부사장, 대구불교방송 사장, 소요산 자재암, 광주 원효사, 은해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1992년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를 결성한 스님은 남북교류 사업에 앞장서 왔다. 2004년 만해대상을 수상했다.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돌고래 슈퍼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1호!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합

사찰 · 포교당 ·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 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돌고래 슈퍼 에너텍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454-1 / 사무실 : 02)471-2356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중생교육을 위한 맞춤 교육
카이로프락틱
지도자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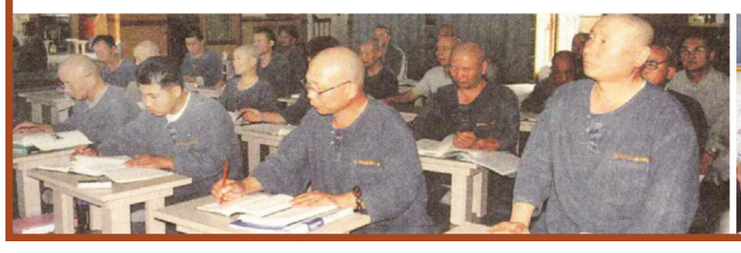
교과목 • 카이로프락틱 – 경추, 흉추, 요추, 골반, 선추 이론및 실기
• 골격학, 근육학, 운동처방학

기 간 • 2급과정 (2개월)
미국 팔머대학 교재직강, 2년 전문대 교육 과정을 집약완성

장 소 • 지하철 4호선 대아미역 하차후 왼쪽 출구, 신영프라자 301호

입학일시 • 2010년 3월 15일 오후 1시 (공개강좌)

사단법인 라마불교체육지도자 교육연수원
경기도 군포시 대아미동 34-5호 신영프라자 301호
본원 교학과 Tel : 031-502-5522 / 010-9005-4167





포교는 생명이며 존재가치



"1974년이었습니다. 일타 스님에게 건당한 후 출가하게 해 준 종단의 은혜를 갚자는 생각에 내장사 정화를 했습니다."

내장사를 시작으로 호남과 인연을 맺은 스님은 광주 원효사 주지 등을 지냈다. 그곳에서 스님은 광주사태를 목격했다. 사람들을 군화가 짓밟는 광경에 참을 수 없었던 스님은 당시 불교계 대표로 상무대 사령관과 면담하기도 했다.

'열심히' 살던 스님은 서의현 스님 총무원장 시절 더이상 사판 세계에 있어서는 안되겠다 싶어 도미(渡美)했다.

스님은 콜로라도 덴버대학, LA 남가주 대학, 미조리 센루이즈 클레이튼 대학 등에서 수학했다.

1994년 종단 사태 때 법타 스님은 당시 서의현 스님 측이 관장하던 영천 은해사를 정리했다. 은해사 주지 시절에는 현대 한국 불교 최초로 은해사 승가대학을 설립했다.

"오늘날 전국 승가대 교수 90% 이상이 은해사 출신인 것에 보람을 느낍니다."

'열심히' 살았던 스님에게도 시련이 있었다. YS정부 시절 찾아온 신공안정국 때 법타 스님은 국가보안법의 고무 · 찬양 위반으로 긴급체포 됐다.

"그 때 국립선방(교도소)에서 105일간 기도 잘하고 나왔습니다. 하하하"

스님은 웃으며 말했지만 국립선방 안거의 후유증은 컸다. 국가보안법 위반 딱지는 대법원에 계류돼 DJ 정권 때까지 6년간 법타 스님의 발목을 쳤다.

1998년 종단 개혁 때도 스님은 징계를 받았다. 그 때마다 스님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정진했다. 정진(?) 후에는 종단이 소홀했던 부분을 챙기며 재기(?)에 성공해 주위 사람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은해사 주지 때 불교계 · 지역단체 등을 모아 사회정의운동, 통일운동 등을 시작했습니다. 토지와 임야가 대부분인 종단 재산을 활용하기 위해 수림장(樹林葬)을 교계 최초로 시행한 것도 은해사입니다."

법타 스님은 "수행은 개인의 일이지만 수행의 목적은 포교의 밑거름이 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성불에 그치면 자기만의 일이 되지만 깨달은 만큼 포교를 해야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스님은 동국대 정각원장을 수행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라 했다. 50년 출가자 생활의 회향을 모교에서 하고 싶었다는 것.

"<금강경>에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고 했지 않습니까? 한시적 삶을 살면서 이기적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법타 스님은 "정각원은 국내 유일의 궁궐법당"이라고 말했다. 정각원은 경희궁 숭정전이었기 때문이다.

일본 강점기에 한민족 말살정책을 펼쳤던 일본은 경희궁은 헐어서 학교를 세우고, 창덕궁은 동물원으로, 경복궁은 박물관을 만들었다. 그때 헐려 동국대에 다시 세워진 건물이 정각원이다.

스님은 "포교는 생명이며, 존재가치이며, 이유"라고 말했다. "포교를 위해서는 용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미국 유학시절, 지도교수로부터 북한불교를 연구해 보라는 말에 낯뜨거웠던 스님은 이후 북한에 주목했다. 북한 주민도 우리 동포, 이웃이었다. 1989년 평양축전에 참가했을 때 한국여권 소지자로는 최초로 북한을 방문했던 인물이 스님이었다.

법타 스님은 1992년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를 만들고 평양과 사리원에 국수공장을 세웠다.

"60톤 밀가루를 보내면 7700명이 먹을 수 있습니다. MB정부 들어 밀가루를 보내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비록 밀가루 국수지만 배고픈 사람들에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스님은 "불교가 바로 서려면 대중에 다가가야 하고, 그러려면 포교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공을 바겐세일하던 시대는 갔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초하루 · 보름 재 올리고 등 켜던 시대는 갔습니다. 음력생활이 아니라 주5일 체제에 맞춰 불교 신행생활도 변화해야 합니다."

법타 스님의 마인드를 따라 정각원도 변했다. 매주 월요일 법회에는 오영교 총장을 비롯해 교직원 다수가 참여 중이다. 스님이 시작한 수요일 대학생 법회를 비롯해 토요법회 등 정각원은 동국대 구성원의 신행생활 공간다운 역할을 하고 있다.

"실천하지 않는 깨달음은 무의미합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부처님이 설한 연기법 아닙니까?"

나그네가 법타 스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도 인연을 따라 많은 사람이 스님을 만나고 갔다.

글=조동섭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85. 태고종 총무원장 지암 대종사

태고종 총무원장을 두 번이나 지낸 지암 스님은 임기동안 국묵담 · 박대륜 · 안덕암 스님들께서 이룩해 놓은 태고종의 많은 불사를 가장 조용히 흔들림 없이 건설적으로 운영해오신 분으로 평가받는다.

스님의 법명은 재윤(在允)이고, 법호는 지암(芝菴)이며, 속명은 영지(靈芝)다. 1912년 충북 진천에서 박윤희(朴允熙) 옹의 독자로 태어났다. 스님은 서당에서 한문공부를 하다가 새교육 바람이 불자 옥동보통학교에 들어가 12세에 졸업했다. 이어 3 · 1 독립운동의 바람을 따라 마을 밖으로 나갔다가 충북 속리산 법주사 명우 스님의 제자가 됐다.

스님은 용허 스님에게 계를 받고 불교전문강원에서 이력을 마친 뒤 혜화전문학교에 들어가 32세에 졸업했다. 당시 이재복 · 황자매결연을 맺고 부설 포교사전문대학은 동방불교대학이라 이름을 고치게 됐다.

그 당시 불교계에서 유치원과 한방병원을 처음 설립하니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궂은 일들이 많았다. 지암 스님은 서울에 오실 때 마다 교직원들에게 음식을 사주시며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다.



동방불교대 설립해 인재양성 매진…유치원·한방병원 개원

성기 박사와 동기로 지냈다.

스님은 32세에 법주사 재무 · 교무를 역임하고 35세에 충북교구 감찰원장을 지낸 뒤 52세에 제천 원각사 주지가 됐다.

스님은 태고종 총무원장이 돼서는 종립 동방불교대학을 설립해 태고종 인재양성에 전 힘을 기울였다.

나와의 인연은 동방불교대 설립으로 시작됐다. 당시 나는 여덟명의 도반들과 함께 중곡동에 중곡극장을 빌려 불교정신문화원을 만들고 부설로 포교사전문대학을 설립하고 있었다.

원래 초종파 범불교 운동으로 불사를 시작했으나 지암 스님이 태고종에 종립학교가 없으니 태고종립대학으로 발전시키자고 하셨다.

스님은 출재가 교육이야 말로 종지종풍을 잇는 후진양성에 핵심불사라고 생각하셨던 것이다. 그로 인해 LA 오리엔탈대학과 나를 비롯한 당시 모든 사람들은 스님을 심성이 온유하고 자비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때를 거르면서도 돕는 분으로 기억하고 있다.

특히 스님은 나이 많은 어른들을 지극히 받들어 제천노인회 등 충청지역에서는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은인으로 여기고 있다.

내가 제천에 금강사를 짓고 그곳 노인들을 모셔보니 아들인 원명 스님은 잘 몰라도 지암 스님을 모르는 분이 없었다.

"지암 스님이 살아 계실 때는 원각사 인근 노인정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비오고 눈오는 날이면 어려운 노인분들에게 따듯한 음식이 제공됐고, 기도 등 불공이 있으면 어르신들을 초청해 함께 공양을 올렸습니다."

특히 스님은 어르신과 함께 가족들이 함께 조석예불에 오도록 유도해 충청지역에 불교가 자연스럽게 퍼지도록 했다. 스님의 이러한 원력을 이어 자제 원명 스님은 제천불교연합회 회장으로 현재 충청불교의 든든한 기둥이 되고 있다.

지암 스님은 누구고 공부하고 싶어하는 자가 있으면 장학금을 만들어 후원하고 병들어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의약을 제공해 명자 그대로 어두운 길에 밝은 빛이 되었다.

1988년 12월 31일 세수 77세, 법납 65세로 입적하실 때 상좌 무릎을 베고 "진속이 둘이 아니고 생사가 둘이 아니니 생활불교에 전력하라"고 유지를 내리신 스님.

나는 스님의 유지를 떠올리면 부처님 당시 박굴라존자가 떠오른다. 어렸을 때 계모의 손에서 다섯 번이나 죽을 고비를 겪었던 박굴라존자는 160세까지 살며 어려운 일을 손수 맡아 다 했다.

박굴라존자는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부처님 저는 오늘 가야되겠습니다."

"그래 준비가 다 되었는가?"

"준비뿐입니까. 이 몸을 날새들에게 주고져 하오니 제가 만약 생사를 해탈하지 못했다면 땅에 떨어진 피가 흔적도 없이 없어질 것입니다."

하고 갔는데 부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박굴라존자가 바위에 투신했다고 부처님께 말했다.

부처님은 "그는 자살하지 않았다. 만약 그가 자살했다면 바위에 튀긴 피가 없어지리라"고 말씀하셨다.

2500년이 지난 지금 그 자리에는 아직도 박굴라존자의 피가 남아있어 생사 해탈의 정신을 기리고 있다.

박굴라존자처럼 거짓과 위선 없이 불교중흥을 위해 매진하신 지암 스님, 지암 스님의 정신은 태고종을 넘어 모든 불자가족들의 가슴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다라니수저 사찰공양실 불자용수저 "다라니" 시판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수저 불자가정에서도 사용하게 품질은 최고! 디자인은 세련!



"다라니수저" 출시기념 공장도가 시판

■ 사찰에는보시 · 불자가정에는 선물!

사찰 공양간에서 공양을 하다보면 처음 만나는 것이 수저다. **공양실의 첫 번째 얼굴이 수저인데 대부분 공양실 수저를 보면 모양도 제각각으로 공양일체감을 주지 못하는 것 같다.** 수저가 오래되 긁히고 달아 보기도 깔끔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코팅이 벗겨지면 스탠을 만들 때에 합금을 해서 제작하므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나올 수 있어 유럽 선진국에서는 장기간 사용하면 가정이나 식당에서는 교체를 한다. **수저 상단에는 건강장수를 기원하는 "길상문양"과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옴"자를 넣었다.**

■ 사찰명과 스님법명을 넣고도 제작!

300set 이상 주문시 사찰명 또는 스님 법명을 새겨 제작해 드릴 수 있으며(실비), 선물 포교에 활용하게 수저 set마다 고급 비닐로 포장 되어 있다. 다라니수저는 set당 4,000원에 판매하고 있으나 **출시기념으로 공장도가격 set당 1,500원씩 사찰과 불자가정에 보급하고 있다.** 포장단위는 가정용 20set, 사찰용50set, 100set 단위로 전화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문의 : 02)793-0023

농협 : 793-0023-1234-08 고기영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전선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사찰 LED전구 (정품)
- ▶고추전구, 인지전구 (정품)
- ▶법당용, 외곽용
- ▶휠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반영구적이다.
- ▶반도체로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없다.
- ▶소켓 AC220V용으로 다용도로 사용

사찰 램프전구 (정품)
- ▶고추전구, 인지전구 (정품)
- ▶종류: 3W, 5W, 10W
- ▶특 휠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건전지용초, 방생, 탑돌이 행사용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연 등 (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불제해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287-2

관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 선 시 공

한국은 '왜'라는 질문이 죽은 사회

강 사 : 홍세화 (언론인 · 소설가)
일 시 : 2010년 2월 24일
주 제 : 생각의 좌표
장 소 : 템플스테이통합정보관 3층 문수실
주 최 : 불교미래사회연구소

"인간은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데카르트 Descartes)라는 명제를 떠나서도 우리는 사유하는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다. 홍세화 씨는 '내 생각은 어떻게 내 생각이 되었나'라는 의문을 가지라고 제안한다.

"사회에 안주하려는 자신을 합리화 하는 것이 아닌지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진정한 자유인의 의미를 되새김질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사회가 조건지운 보잘것없음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4대강 사업, 세종시 등으로 어느 때보다도 혼란스럽다. 불교미래사회연구소(소장 법안)는 이 사회를 점검하고 불교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2월 24일 홍세화 씨의 강연을 마련했다. 홍씨가 말하는 '나와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방법'과 '내 생각의 주인이 되는 법'을 듣는다.



홍세화씨는 끊임없는 자기성찰로 사회가 조건지은 '보잘 것 없음'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과도한 경쟁과 불안이 질문 사라지게 해
"이웃에 대한 상상력과 배려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어떻게 내 생각이 됐을까?

사람은 생각을 갖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생각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쉽게 물음을 순화시키면 "내 생각은 어떻게 내 생각이 됐을까?"라는 의문이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본능만을 갖고 태어났지만 자라면서 수많은 욕망을 갖게 됐습니다. 지금 하는 생각이 어떻게 내 생각이 됐는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독서와 글쓰기는 사람을 정확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학교에서 글쓰기 교육은 사라진 듯합니다. 우리 교육은 초 · 중 · 고 때는 입시교육, 대학은 직업교육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프랑스와 북유럽을 보면 중학교 3학년 학생에게 "사형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쓰라"는 질문을 합니다. 학생은 저 질문에 답하기 위해 책을 읽고, 친구들과 토론을 합니다. 또, 자문을 구하기 위해 부모님 등과 대화하는 기회를 늘여 갑니다.

이처럼 교육은 여러 사안에 대해 학생 스스로가 자기 생각을 피력하게 해야 합니다. 자기 나름의 논리가 얼마나 풍부한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교육은 스스로 생각하지 않게 하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 답하기 위해서는 사회화 과정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 친구, 학교, 이웃, 읽은 책 등은 그 사람의 사고를 규정합니다. 하지만 의문의 꼬리는 결국 자신에게로 귀결됩니다. 때문에 나의 의식체계를 점검하는 것은 한국사회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 삶이 정말 어떤 삶인가?" "어떤 경로로 내 생각이 내 생각이 됐나?"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경로의 첫째는 독서입니다. 둘째는 토론이고 셋째는 여행입니다. 여행을 통해 직접 경험하고 느끼는 것은 의미 있습니다. 넷째는 이 세 가지를 아울러서 성찰하는 것입니다. 성찰을 통해 의식체계 안에서 다투고 자신만의 체계를 잡아갑니다. 이것을 통해 주체적인 의식 형성이 가능합니다. 이 네 가지 요소에 반하는 것은 '제도교육'과 '미디어'의 영향입니다.

장기화된 제도교육은 문제를 찾아내기보다 주어진 것을 고르는 방식입니다. 미디어는 대중에게 기여한 점도 있지만 한 가지만 생각하게 하는 등 단점이 많습니다.

1970~1980년대 사람들은 비교적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해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부분에 많은 헛헛함을 느꼈습니다. 그것을 채우려 배움의 기회가 있으면 더 많이 알려고 노력했죠.

현대인은 보고 들은 것이 많아 부족하다는 느낌은 없어 보입니다. 자신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인정하려 들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의 교육체계는 자립적인 인간으로 교육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토론수업을 하면 등수를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사회가 주는 의제만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주입시키는 것입니다.

현대인은 문제를 제기할 줄 모르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줄도 모릅니다. 결국 제도교육 속에서 일부만 책과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다양한 인간이 있는 만큼 사회에 대한 물음이 나와야 하는데 한국은 전무합니다. 학교뿐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에 있을 때 육아법에 관련한 책을 접했습니다. 책에 아이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는데, '엄마'와 '왜'라는 단어였습니다. 아이가 사용하는 특정 단어의 빈도수 차이가 그 사회의 문화 차이를 가져옵니다. 말은 생각이 밖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궁금한 것을 엄마에게 물으면 성실한 대답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조사결과가 나온 것이기도 합니다.

'왜'가 사라진 사회

한국에서는 반복질문이 없어야 합니다. 바쁜 사회에 살려면 그런 질문은 거둬야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자녀가 아무리 질문을 해와도 "크면 다 알아"라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국사회는 '왜'라는 질문이 죽은 사회입니다. 이는 가부장적 문화와 '빨리빨리'가 결합된 결과입니다.

키케로(Cicero, 로마 철학자)는 "논리로 안 되면 인신을 공격하라"고 말했습니다. 반어법으로 말한 것입니다. 지금의 한국사회는 키케로의 반어법을 따르는 성실한 제자와도 같습니다.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때 나이를 묻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회의 모습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박지원의 <열하일기>를 보면 당시의 지식인들은 중국에서 하나라도 더 알려고 치열하게 공부 · 탐색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디어를 통해 욕망체계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한 사회를 지배하는 이념은 지배층의 이념입니다. 암기라는 지배계급이 준 또 하나의 자본논리가 한국사회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어떻게 갖게 됐습니까? 왜 우리는 소수파에 들게 됐을까요? 모두 연결이 됩니다. 20대 80의 사회라고 말하는데, 왜 80%의 사람들이 나머지 20%에게 지배당할까요?

콜롬버스의 달걀을 발상의 전환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 달걀을 깼다는 것은 '폭력적 발상'입니다. 우세주의의 현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콜롬버스의 달걀을 예로 들자면, 그 깨진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고통을 느낍니다. 또 위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 추락할 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한국사회에서 '왜'라는 질문이 사라진 것은 과도한 경쟁으로 '불안'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나에게 집중하지 못합니다.

톨스토이는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지금 만나는 사람이고, 가장 소중한 시간은 바로 지금"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바로 지금'에 집중할 수 없기에 사람들은 오지도 않는 미래를 걱정하고 불안에 휩싸여 주변사람에게 성실할수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고 있자면 참담합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는, 오늘의 나에게 성실 할 수 있는 사회여야 합니다. 불안의 정도가 낮고 가능성이 열려있는 사회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교육 · 양육, 건강, 주거, 노후, 일자리의 요인이 해결돼야 가능합니다. 프랑스에서 박사과정 1학기 등록금은 한국 돈으로 55만원입니다. 의료보험, 교육비 등이 국가제도로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생활도 안정적입니다.

#인간 존엄성 보장되는 사회

이제는 문화적인 사회로 발돋움해야 합니다. 엄청난 경쟁을 하다 보니, 감성은 점차 메말라 갑니다. 소유가 강조되는 현실에서 인간성 훼손까지 초래했습니다. 제가 1979년 프랑스에 이민 갔다가 1999년 서울에 돌아 왔을 때 당시의 화두가 "부자 되세요"였습니다. 그 광고 문구가 지나가는 전광판을 보면서 혹시라도 "마음의"라는 단어가 앞에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한참을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이어진 화두가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해준다"는 말이었습니다. 참된 사회는 이웃에 대한 상상력과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쪽방촌에 사는 사람들을 염두했다면 그런 말이 유행처럼 퍼져 나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사회가 인간성이 훼손된 줄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더 안타깝습니다. 정치적 힘으로 보면 소유구조의 문제입니다. 민주주의의 시초인 아테네에서는 다중지배, 서민이 전제하는 정치를 주장했습니다. 한국은 왜 기득권의 생각이 지배하게 됐을까요?

프랑스 지식인들은 자신이 공부할 때 국가의 혜택을 봤으니 이제는 돌려주는 의미로 더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죠. 하지만 한국 사회는 경쟁을 부추길 뿐입니다. 국가도 그 몫을 다 하지 않습니다. 국민은 사회와 국가에 대한 기대조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4대강 사업도 큰 문제입니다. 생텍쥐베리(프랑스 소설가)는 "자연은 우리 조상에게 물려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 자손에게 빌린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을 착취하고 사람 · 자연관계 등에 대한 기본적인 성찰이 부재된 사회에서 개인의 가치관 정립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인이 소박하게 오늘에 성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한국사회는 공공성(Republic)이 실종됐습니다. 대한민국은 공화국입니다. 그런데 국민은 공화국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까? 정의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얼마 전 순복음 교회의 김성광 목사 발언은 사익 추구에 종교를 얹은 모습입니다. 현재 한국은 극보수가 집권하는 사리추구 집단일 뿐입니다.

저는 불교신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때 불교관련 서적을 읽으면서 인간 존엄성 등에 대한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불교의 사회적 역할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요즘 다문화가정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4만여 다문화가정자녀들을 우리사회가 어떻게 보듬을 수 있을지 숙고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들에게 사회적 관심을 소홀히 했다가는 훗날 미래의 꿈나무를 사회적 시한폭탄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불교계를 비롯한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가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내 생각의 기원을 찾으면 모두가 함께인 사회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정리= 박선주 기자 zoo211@buddhapia.com

불기 2554년 경인년 부처님 출가재일 기념

민족화합평화기원불교도대법회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6대 임원진 취임

• 일 시 : 2010년 3월 23일 (음, 2월 8일) 화요일 오전 11시 • 장 소 : 충북 옥천 IC 입구 명가 연회장

귀의 삼보하옵고
만물이 생동하는 경인년 새봄을 맞아 부처님 이름으로
2천만 불자의 안위를 기원합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경제, 정치, 사회적으로 혼란과 혼돈이 점철되어 세간에서는
국기가 흔들리는 염려할 정도가 되어 버렸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 시대, 이제 불교가 다시 국난극복을 위해 앞장서야 할 때가 왔습니다.
신라 고승 원광법사의 세속오계를 거울삼아 호란과 왜란을 물리친 승가의
정신을 이어받아 오늘의 국난을 극복하는데 사부대중이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에 발맞춰 지금까지 오매불망 불국정토 구현을 위해 원력을 다져온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는 국난극복과 더불어 제2의 불교중흥을 위한
대법회 법석을 마련코자 합니다. 바라옵건대 사부대중은 두루 동참하시어
불교중흥과 국가 발전을 위해 큰 원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주최 :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세계불교승왕청 CBC108. TV연합불교방송 일붕신문사
■ 문의 : 02)837-2003, 011-356-3427

◆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6대 임원진 명단 ◆

총 재 세계승왕 인왕 신판석 (한국불교여래종 종정)
부 총 재 보 리 현 광 (대한불교달마선종 종정)
청 원 박수웅 (대한불교불광종 종정)
법 각 지 오 (대승불교조계종 원로원장)
안신풍 (대한불교대원종 종정)
회 장 의 륜 서주범 (근본불교조계종 창종주)
부 회 장 법 진 신승도 (호국불교효예종 종정)
청 암 도한수 (충남불교조계종 종정)
만 주 조성수 (한국불교대불종 총무원장)
심 향 법 장 (한국불교구산선문회 회장)
연 화 덕 산 (대한호국불교소림선종 총무원장)
자문위원 대 천 문연우 (한국불교지장조계종 종정)
월 담 성 인 (세계불교화엄종 종정)
향 덕 박승억 (대중불교조계종 종정)
회 원 법 안 이기욱 (통합불교아미타종 종정대행)
청 산 성 운 (대한불교천인종 종정대행)
일 응 김철우 (한국불교전법조계종 총무원장)
법 정 구철회 (대원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은 곡 조병남 (한국불교극락조계종 총무원장)
원 각 한경수 (대한불교서각종 총무원장)
해 광 문동춘 (대승불교달마종 총무원장)
대 성 김영기 (대한불교대성종 총무원장)
해 광 전충열 (한국불교자비종 총무원장)
원 공 유명곤 (현대불교미륵종 총무원장)
안 심 박영주 (종단세계선불교 총무원장)
혜 륜 백선권 (해동불교임제조계종 총무원장)
혜 봉 김일석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장)
덕 정 이형덕 (대한불교참수행정각종 총무원장)
청 담 윤문봉 (한국불교내외종 대표)
법 정 덕 암 (대한불교정법종 종정)
지 법 반동환 (대한불교지법태고종 총무원장)
혜 덕 월 명 (대한불교여래조계종 대표)
관 행 정숙자 (대한불교관음성종 대표)

※연합불교방송/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홈페이지 참조



이주일의 화두

무슨 일이든지 앞과 뒤의 순서가 있게 마련이다. 우선순위에 따라 미리 준비하라. 막상 그때가 닥쳐서야 허둥대며 당황할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본생경



비누독을 연화시키는 삼베훼이셜타올



■삼베훼이셜타올 – 각 6,000원

삼베 타월의 특징

선조들의 지혜와 멋이 깃든 삼베 타올은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하며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으로,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삼베훼이셜타올 세안법

① 삼베훼이셜타올를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②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③ 삼베샤워타올을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 3~4일이 경과 하면 맑아진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 피지, 각질연화효과가 있어 혈색이 좋아짐에 화장이 잘 받습니다.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 특허출허제품임

· 품 명 – 예고은 삼베 샤워 타올
· 재 질 – 햄프사, 죽사
· 용 도 – 세안 및 전신목욕, 때밀이, 냉수마찰, 스포츠타월, 등산할 때, 환자목욕시사용, 건포마사지용
· 규 격 – 세안용 (30cm x 28cm)
· 제조원 – 초록살림원 (한국산)

삼베수세미 특징

선조들의 지혜와 멋이 깃든 삼베수세미는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하며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으로 식기세척시 세제를 사용하지 않고 뽀드득한 느낌과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으며 사용하시는 분들은 소박 하고 겸손한 아름다운 마음을 지니게 됩니다.



■삼베수세미의 효과

* 다이옥신 피해와 수질오염(땅속에서 자연소멸)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 사용 후에는 세탁 후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건조합니다

· 품명 – 예고은 삼베 수세미
· 재질 – 햄프사 , 죽사
· 용도 – 식기세척, 과일세척, 욕실청소 등
· 규격 – 30cm x 30cm(소) / 30cmx50cm(대)

위생 · 항균 · 항독 삼베 수세미



■삼베수세미올 – 각 4,000원

건포마사지용 삼베샤워타올



■삼베샤워타올 – 각 15,000원

· 품명 – 예고은 삼베 샤워 타올
· 재질 – 햄프사, 죽사
· 용도 – 세안 및 전신목욕, 때밀이, 냉수마찰, 스포츠타월, 등산할 때 ,환자목욕시사용, 건포마사지용
· 규격 – 전신용 (30cm x 130cm)



'건포, 습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둥글게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마사지법

· 여름에는 냉수마찰, 겨울에는 건포,습포 마찰을 권합니다.
· 냉한 체질은 건포, 습포마찰이 좋고 열이 많은 사람은 냉수마찰이 좋습니다. 단, 열이 많은 사람은 건포마사지를 무리하게 하지 말고,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은 냉수마찰을 피합니다.
· 예민한 피부는 문지르는 것에 자극을 받아 피부질환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 합니다.
· 상처나 피부질환시 문지르지 말아야합니다.



■건포 마사지의 효과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지치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거칠어질 의심은 버리세요. 비누독이 안 쌓이니 피부가 좋아집니다.
* 죽은 세포나 피지가 매일 제거가 되어 때가 안 낍니다.
* 몸의 때는 비누 때로 인해 생깁니다. 비누 때가 없어지므로 때가 안 낍니다.
* 환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현불샵 특별 할인 세트 30,000원

(세트 구매시 배송비 무료 + 추가 할인)

■구성 : 삼베훼이셜타올 + 삼베수세미 + 삼베샤워타올 + 삼베항균비누 3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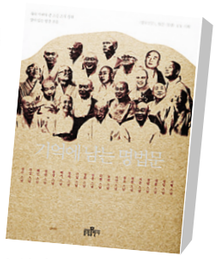


현불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www.hyunbulshop.com

돌잔치, 환갑, 칠순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

현대불교 독자가 읽은 이 책

기억에 남는 명법문



새 학기가 시작되고, 작은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다. 막내라 한없이 어리게만 느껴져서 과연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한글도 제대로 깨치지 못했고, 또래들보다 키도 작다. 큰아이처럼 잘 적응하겠지 싶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불안감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다. 이래저래 아이들의 새 학기는 엄마인 내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

이런 내 마음을 다독여준 것이 바로 세상과 여유롭게 소통하라고 넌지시 건넨 큰스님들의 법문이다. 큰스님들의 살아왔던 행적이나 느껴왔던 감정 하나하나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법문들이라 편안한 마음으로 책장을 넘기게 한다. 처음부터 글로 쓰인 법문이 아니라 말로 된 법문을 옮긴 것이라 직접 법문을 듣는 것처럼 실감도 난다. 구어체의 투박함이 더 정답고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다.

이 책에 실린 20편의 법문은 각성 · 혜인 · 정련 · 통광 · 혜거 · 정락 · 근일 · 청화 · 현웅 · 각현 · 보광 · 지안 · 철오 · 현봉 · 지운 · 정념 · 대봉 · 성일 · 지형 등 스무 분의 스님이 2009~2010년 초에 대중법회에서 했던 법문을 <법보신문>과 월간 <불광>이 지면에 옮겼으며, 이번에 책으로 엮여졌다.

조계종 원로의원인 성수스님의 법문 중에 이런 말이 있다.

"절에 와서 복 지으려고 부처님께 실컷 절하고 나가다가 신에 흙이 묻었다고 남에게 욕하면 절한 복을 다 쏟아버리게 된다."

"절하면 뭐해, 욕 한 마디에 다 쏟아져"

평소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라 나도 모르게 '아차!' 싶었다.

'마음을 닦고 욕심내지 말고 여유를 찾으라'니, 사실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인데 우리 현실은 늘 정신없고 분주하다. 그러다 정신을 차려보면 한없이 초라하고 움츠려든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곁에 두고 마음을 다스려야할 때 주제에 따라 읽어도 좋은 꼭 필요한 책이 아닌가 싶다.

기억에 남는 명법문 | 성수 스님 외 19인 지음 | 불광출판사 | 1만2000원

강지숙 / 서울 상계동에 산다. 초등학교 4학년, 1학년 남자아이를 키우며, 세상 일에도 관심이 많은 주부다.

일상 속 깨달음 명쾌하게

지안 스님 설명 따라가면 어느새 '금강경' 이 머리에 쏙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질문은 다시 두 가지의 질문으로 이어진다. '어떤 자세로 수행에 임하느냐?'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리느냐?'이다. 질문들은 항상 우리 삶을 따라다니는 화두다. 질문에 대한 답을 바로 알아 실천하면 비로소 부처가 된다. <금강경>의 가르침 처럼.

2009년 조계종 교육원은 소의경전인 금강경을 번역해 <조계종 표준 금강반야바라밀경>을 출간했다. 최근 교육원은 번역본 금강경에서 못다한 설명을 모아 대중의 가슴에 와 닿게 하는 <조계종 표준 금강경 바로 읽기>를 출간했다.

승가대학원장 지안 스님이 <표준 금강경>을 한 단락씩 다시 읽어가며 새롭게 해설을 덧붙인 이 책은 <금강경>을 더욱 깊이 있게 음미할 수 있게 한다.

지안 스님은 "<금강경>은 양이 많지 않은 경전으로, 사람들이 그나마 쉽게 읽을 수 있는 경전"이라며 "이런 경전 내용을 심도 있게 읽기 위해서는 해설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느꼈다"고 말했다.

스님은 "불교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간혹 기존의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 난무하는 경우가 있다"며 "책은 기존의 <금강경> 해설의 표준으로 볼릴 만한 책"이라고 소개했다.

<금강경>은 "금강과 같이 견고해 번뇌를 끊고 무명의 어리석음을 부수는 지혜"라는 뜻으로, 서막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그때 세존께서는 (중략) 공양을 드신 뒤 가사와 발우를 거두고 발을 씻으신 다음 자리를 펴고 앉으셨습니다."

부처님과 제자 수보리가 답하는 형식으로 이뤄진 <금강경>은 위의 대목처럼 평범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부처님 모습을 담고 있다.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것 같지만, 진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금강경>이다. 깨달음의 본체로 부처님을 직접 만나는 법신의 자리이다.

<금강경>의 참뜻과 핵심을 정확히 아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부처인 자신을 발견하는 길이다. <금강경>을 2만 번 이상 독송했다는 지안 스님은 "한문의 속뜻과, 원문의 속뜻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며 "선수행의 기본서인 <금강경>을 천친의 27단 내용을 바탕으로 저술했다"고 밝혔다.

부처님은 일체 상을 떠나 삶의 본질에 있는 순수 그 자체로 돌아가라고 했다. 편견이나 고정관념에 쌓여 진리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을 때, <조계종 표준 금강경 바로 읽기>는 그 기준을 알려 줄 것이다. 불자들의 필독서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알아두어야 할 교양서다.

스님은 "현대 지식인들의 지식공간에서 불교가 차지하는 공간이 좁다"며 "앞으로 일반인들에게도 쉽고 널리 읽힐 수 있는 불교서적들이 많이 보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계종 표준 금강경 바로 읽기|지안 강설|조계종출판사 펴냄|1만8000원

이은정 기자 soej84@buddhapia.com

위법망구 길 간 구도자

일상에서 발견한 인어공주

인간세상의 왕자를 보고 인간이 되기 위해 인어공주는 마녀를 찾아간다. 마녀는 "꼬리를 발로 바꾼 후에 디딜 때 마다 바늘을 밟는 것 같은 고통을 참아야 할 것이며, 그런 노력에도 왕자와 결혼하지 못하면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무엇보다 마녀는 "인어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주의 목소리를 값으로 치러야 한다"고 말한다.

청호 스님은 안데르센의 동화 <인어공주>를 '최초로 읽은 구도자 이야기'라고 표현했다. 동화 속에 인어공주야 말로 도를 얻기 위해 몸을 버린다는 '위법망구(爲法亡軀)'의 길을 스스로 택했기 때문이다.

<인어공주의 길을 가다>는 어렵지도, 딱딱하지도 않은,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독자가 스스로 느끼고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게 만드는 산문집이다.

한 번은 스님이 길을 지나다 '하얀 금'이라는 소금가게 이름을 보며 생각했다. 하얀 금이라고 쓸 때 한자는 흴소(素)를 써야 하는데 여기에는 '본디'라는 뜻도 있다. 스님은 '본디 금'을 생각하며 스님의 핏줄을 타고 흐르는 소금도 생각했다.

스님은 "이념이나 사상이 확고한 사람의 힘이 세상을 바꾸기도 하지만 때로는 소금을 절여둔 음식처럼 부담스럽다"고 말한다. 진정한 현자는 오히려 평범해 범부와 다를 바 없어 보인다고 한다. 정신을 썩지 않게 하던 소금기는 빠지고 본디 금만 남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스님의 산문집은 가르치는 글이 아닌, 무신경하게 지나쳤을 법한 일상의 소재들로 불경보다 쉽게 깨달음을 준다.

인어공주의 길을 가다|청호 지음|천년의시작 펴냄|1만2000원

이은정 기자

성전 스님이 전하는 희망과 위로

올해도 봄은 찾아 왔다. 빗소리가 더 이상 차갑게 들리지 않는걸 보니, 봄은 봄인가 보다. 두툼하게 껴입었던 옷들도 제법 가벼워지고, 입에서 하얀 입김도 더 이상 뿜어져 나오지 않는다.

딱딱하게 굳은 땅에 새싹이 돋아나듯, 성전 스님은 자신의 푸른 글로 봄을 써내려 갔다. 겨울 내내 켜켜이 묵혀뒀던 감성들을 어루만지는 책은,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함께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를 말하고 있다. 부모님 혹은 연인이나 친구 등 그동안 내 옆을 지켜준 이들이 얼마나 나에게 기쁨을 만들어 냈는지, 순간의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준다.

2009년 황석영, 신경숙과 함께 교보문고가 선정한 10대 스타작가인 스님의 글은 봄에 피는 꽃을 보듯, 아름답다.

"책에 실린 글 한 편 한 편은 제가 매일 이른 새벽 맑은 정신으로 기도를 올리며 쓴 희망과 사랑, 위로의 글입니다.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는 정성처럼 글 한편을 쓰면서 이 세상에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의 평화와 행복을 빌었습니다."

성전 스님이 정갈한 마음으로 쓴 108편의 시들은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와도 같은 깊은 영혼의 울림을 선사한다. 책은 음악을 듣거나, 지하철 혹은 버스 안에서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상처받고 세상에 홀로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을 때 권하고 싶은 책이다.

이 세상에 당신과 함께 있어 기쁩니다|성전 지음|마음의숲 펴냄|1만800원

이은정 기자

의승군 피땀 서린 남한산성 바로알기

전보삼 교수 '남한산성과 팔도사찰' 펴내



사시사철 도시민들의 휴식처로 사랑 받고 있는 남한산성.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이 곳이 얼마나 많은 유적과 문화재가 가득한 공간인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특히 남한산성을 쌓은 것이 바로 의승군(義僧軍)임을 아는 사람들은 더욱 드물다. 저자는 전국 8도에서 올라온 의승군들이 도총섭인 벽암 각성선사를 중심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싸운 기록들을 하나씩 밝혀냈다.

고대성과 현대성을 아우르며, 복합적인 새로운 역사의 장을 보여주는 남한산성은 불교의 역사와 민족의 상징성 모두를 살펴볼 수 있는 곳이다.

남한산성은 백제시대부터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가른 한반도의 중요 요충지였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며 외세와 치열하게 항전한 역사적 산증인이다.

남한산성에는 개원사 국청사 남단사 동림사 망월사 옥정사 장경사 천주사 한흥사 등 전부 9개의 사찰이 있어 '남한구사(南漢九寺)'라 불렀다. 남한산성 내 사찰들은 '국가가 있어야 종교도 있다'는 사상이 강조된 사찰들이었다. 이 사찰들은 국가의 위기에 변방에서 첨병 역할을 담당했으며 조선 후기 사회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저자는 전국의 승려들이 종교를 뛰어넘어, 나라사랑을 목적으로 팔도사찰을 건립하고 남한산성을 축성해 외세에 맞선 결과가 어떠했는지 상세히 말하고 있다.

책은 단순히 팔도사찰만의 현장을 소개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느끼면서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준다. 남한산성 구석구석을 답사하고 그 현장에서 느낀 저자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책이다.

저자는 이 책을 "불교문화종서"라 정의한다. 이어 "책을 통해 앞으로 불교문화들이 더욱 보존되고 그 가치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며 "그래야만 남한산성의 진정성이 회복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책은 팔도 사찰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남한산성에 현존하는 사찰, 옛 절터 등을 소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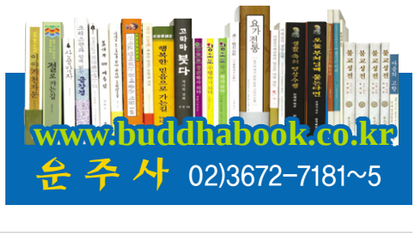
남한산성과 팔도사찰|전보삼 지음|불교진흥원 펴냄|2만원

이은정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나는 걷는다 붓다와 함께	청전	휴
2	땅끝 마을 아름다운 절	금강	불광출판사
3	한 사람은 모두를 모두는 한 사람을	법정	문학의 숲
4	행복도 내 작품입니다	월호	마음의 숲
5	사는 즐거움	보경	뜰
6	부처님의 생애	편찬위	조계종출판사
7	누구 없는가	법전	김영사
8	열두 달 절집 밥상	대안	웅진리빙하우스
9	일기일회	법정	문학의 숲
10	내 마음은 금부처	대행	한마음선원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실증설(實證說)
실증한 이가 아니고는 설파할 수 없는 일구의 도리로 보인 1부와, 태초로부터 영겁에 이르는 성품의 이치를 낱낱이 법문으로 설한 2, 3부를 보아 실증하기를...
www.zenparadise.com

신간! 방거사어록
말 밖의 말을 어쩌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일상의 말로 잘할 수 있었을까.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여기 방거사의 말은 본연의 바탕에서 꽃피우는 일상의 함이라 하리라
대원 선사 서문 중에서...

정맥선원 대원 선사님 법회 문의 02-3494-24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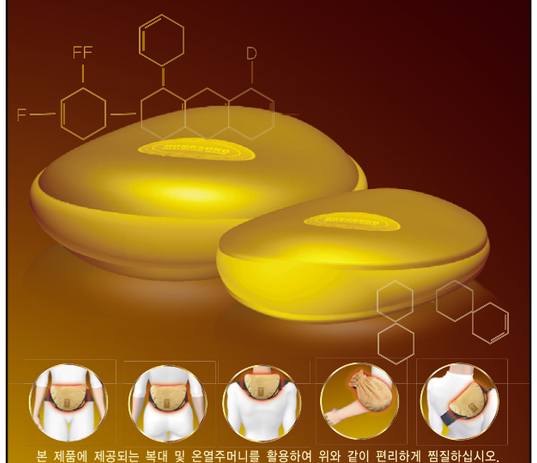
학 인 모 집

귀의삼보 하옵고 ...
소승 인사 올립니다.
다름 아니옵고, 소승은 옥천 범음대에 졸업반으로 지금까지 공부해온 영산 작법(중요무형 문화재 제 50호 유네스코 등재)을 뜻을 같이하여 공부 하실 분들을 모십니다.

◆ 개 강 일 : 3월 15일 오후 2시
◆ 수 강 : 매주 월/화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 자 격 : 승, 속 불문 초보자 환영
◆ 교육과정 : 범음, 범패, 바라, 천수바라, 사다라니, 도량계 등 천 도 제 의식
◆ 장 소 : 경주시 감포읍 감포 4리 251번지 원 해 사
◆ 문의 및 접수 : T E L 054)775-9803
PHON 010-4783-0077

주 지 : 대 광 합 장

GOLD Bulgama
황금빛 찜질로 건강100세!
"우리 몸을 따뜻하게 다스리는 황금빛 찜질" 불가마 골드의 온열요법은 우리 가정에 쉽고 편리한 찜질 문화를 선사합니다.
• 불가마 골드는 5분 충전으로 2~3시간의 무선온열 뜸 · 찜질 체험 •
• 삼마준바이오, 토르마린, 비장탄 등 배합으로 원적외선 및 음이온 발생 •
• 금 도금처리, 온열요법 및 파동요법, 유해파 중화 기능 •



본 제품에 제공되는 복대 및 온열주머니를 활용하여 위와 같이 편리하게 찜질하십시오.

(주)동성웰빙 | 심전 대리점 송정미
011·9865·9401/070·7523·9401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불교문화 선양이 불교의 살 길”

용운 스님, 초의문화사업단 출범으로 차 문화 저변 확대 나서

“불교문화를 알리는 길이 앞으로 불교가 살아남는 길입니다.”

최근 아모레퍼시픽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내 녹차시장은 2150억원 정도의 규모에 달한다. 중국과 일본에 비해 국내 차 시장이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차 시장의 발전 가능성을 암시해 주는 대목이다.

‘웰빙’ 트렌드와 함께 사람들의 차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는 요즘, 용운 스님(초의학술문화원장 · 사진)은 다성(茶聖) 초의 선사(1786~1866)의 정신을 이어 ‘초의’ 브랜드화를 통해 차 문화 저변확대에 나서고 있다.

스님은 1998년부터 무안군과 함께 초의 선사 탄생지 복원사업을 추진했다. 초의 선사의 선(禪) 사상과 차(茶) 정신을 계승 · 발전시키고자 발원했던 용운 스님은 현재 전남 무안에 대작불사를 진행 중이다.

스님은 앞으로 대규모 초의 선사 탄생지 조성을 위해 다양한 테마의 시설물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까지도 복원 중인 초의 탄생지는 무안의 명소로 거듭나고 있다.

초의 선사 탄생지는 언제든지 누구나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다. 고즈넉한 운치가 돋보이는 이곳에서는 다양한 차 문화 체험행사를 통해 초의 선사의 차 정신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실존과 거의 흡사한 일지암과 초의 선사의 작품들이 건물 전체에 조각돼 있는 초의선원 등은 아름다운 주변경관과 어울려 더욱 눈길을 모은다.

“불자가 아니더라도 문화를 통해 접근하면 거부감이 없습니다. 초의 선사 탄생지인 이 곳(전남 무안)은 ‘차’를 통해 한국불교를 알리는 최적지입니다. 대승적 회향을 위해 사회적 기업 활동은 반드시 필요부분이며, 이를 바탕으로 무안을 차 문화의 중심으로 육성하는 것이 문화원의 목표입니다.”

용운 스님은 “불교문화는 한국 전통문화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 거꾸로 말하면 불교는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은 문화자산을 갖고 있다”며 “차 문화를 시작으로 불교문화를 알리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용운 스님은 초의학술문화원에서 운영하는 초의전통차문화발전사업단(이하 초의문화사업단)을 구성해 출범시켰다. 초의문화사업단은 노동부의 지원을 받아 다성 초의 차를 생산 · 판매하고 있다. 판매수익금은 다시 사회의 어려운 계층에 환원해 사회적 기업으로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스님은 “‘초의차’를 마시는 것은 단순히 차를 마신다는 개념이 아니다. 차 한잔을 마심으로서 여러 불우이웃들과 함께 차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향기로운 차를 통해 세상에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현재 전남 무안의 초의 선사 탄생지에서는 다양한 제다 실습 체험과 다도체험 및 초의차 무료시음 등을 경험할 수 있다. (061) 285-0301



이은정 기자 soej84@buddhapia.com

이동건·성운 스님 등 만해대상

14회 만해대상 수상자 발표… 시상식은 8월 12일

만해사상실천선양회(총재 자승 · 조계종 총무원장)가 제14회 만해대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성운 스님



이동건



김학성



정진규



존 던칸



존 랠스톤 소울

수상자로는 평화부문에 이동건(前 국제로타리클럽 회장), 실천부문에 성운 스님(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이사장), 문학부문에 존 랠스톤 소울(국제 펜클럽 회장)과 정진규(현대시학 주간), 학술부문에 존 던칸(미국 UCLA 교수)과 김학성(성균관대 교수)이 각각 선정됐다.

평화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이동건 前 국제로타리클럽 회장은 한국인 최초로, 2008년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국제로타리클럽 회장으로 취임해, ‘함께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 왔다. 실천부문 수상자 성운 스님은 자비실천이 곧 수행이고 포교라는 신념과 원력으로 30여 년간 노인, 어린이, 장애인, 군인, 노숙자, 재소자 등을 위해 복지포교에 헌신해 왔다.

문학부문 수상자 존 랠스톤 소울은 세계 22개국어로 30개국에 작품이 번역된 캐나다 출신의 소설가이자 다큐멘터리 작가이다. <타임>은 그를 “예언자”라고 칭했으며, 미국의 대표적인 대안잡지 <Utne Reader>는 세계 100대 사상가 겸 선각자 명단에 그를 포함시키기도 했다.

공동수상한 정진규 시인은 한국현대시를 대표하는 중요한 시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정진규 시인은 순수시를 지향하는 모더니즘 계통의 시인들의 동인인 <현대시> 동인으로, 자아와 자연탐구를 근본으로 하는 몸과 자연의 생명력에 천착해 독특한 시각으로 우리나라의 시사(詩史)에 일익을 담당했다.

학술부문 수상자인 존 던칸 박사는 미국학계에서 한국학 연구에 발군의 업적을 쌓은 연구자이다.

공동수상한 김학성 교수는 국문학의 정수인 고전시가의 미학과 정체성 구명을 통해 국문학의 생산적 가치 발견이라는 심원한 문학연구의 지평을 선도적으로 열어왔다.

만해대상은 만해스님의 생명사랑과 평화사랑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이번 만해대상 시상식은 8월 12일 인제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수상자들에게는 각각 3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이은정 기자

초의 ‘다신전’ ‘동다송’ 번역해 그림과 함께…

김창배 화백 ‘선묵화 세계’ 展 16일까지 한국미술관서

선(禪)과 차(茶)를 접목한 독특한 선묵화들이 선보인다. 김창배 화백은 서울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禪묵화의 세계’ 전을 연다.

김창배 화백은 선묵화라는 장르를 새롭게 개척해, 인물화의 독보적인 맥을 잇고 있는 작가이다. 김 화백의 작품은 고요한 선묵화와 함께 전통적인 풍속화에 등장하는 인물과 풍경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김 화백이 직접 초의 선사의 <다신전>과 <동다송>을 새롭게 번역해, 이를 토대로 한 작품들을 함께 선보인다.

한국 미술을 우리 차와 접목해 실험적인 작품을 선보인 김 화백은 작품준비만 꼬박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작품은 차를 마시는 다동과, 다인, 차회 등의 모습과 차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생동감 있게 담겨 있어 관람자의 즐거움을 더한다.



김창배 화백(위)과 그의 작품 찻자리.

김창배 화백은 “이번 전시가 맥이 끊겼던 선묵화를 알리고, 한국 차 문화의 우수성도 함께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전시가 불교포교와 차 문화 확산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0여 점의 선묵화가 선보여지는 이번 전시는 3월 16일까지다. (02)720-1161



이은정 기자

신진환씨 30년 만의 첫 개인전

중요무형문화재 제118호 불화장 이수자인 신진환(사진)씨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개인 전시회를 연다. ‘가람 안팎전’이란 제목의 이번 전시는 서울 인사동 경인미술관에서 3월 16일까지 열린다.



가람 안팎전은 전각 안의 불화와 전각 벽에 그려지는 벽화를 통해 불도를 현실에 구현하고자 하는 구도자의 이상을 표현한 것이다.

신씨는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절에 들어가 단청을 배웠다. 그러다 스승인 임석환 선생을 만나 불화가의 길을 걷게 됐다.

이렇게 한 길만 오로지 걸어온 신진환씨는 이번 전시에서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라져가는 불화의 전통기법을 선보일 예정이다.

신씨의 이번 전시에는 국내 최대 크기의 가람탱과 후불화, 나한도 등 10여 점을 비롯해 단청을 주제로 한 머리초와 반, 금문 등 5점, 벽화 20여 점 등 모두 35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자신의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한 작품들을 통해 후학들과 불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보탬이 되고 싶다”는 신진환씨. 그런 신진환씨의 소박한 마음과 부처님 법음이 전해지는 작품들을 이번 전시를 통해 만날 수 있다. (02)733-4448

이은정 기자

2010년 봄

햇차 선금주문 할인행사

· 청와대 사랑채 납품
· 김포공항 국내선 4층 입점
· 제다실습(전남 무안군 초의선사)
· 초의신다 최고금상 수상

문의:(061)285-0301,2

단 한번의 기회. 노동부에서 인건비 전액을 지원받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햇차를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품질은 대한민국 특허청과 세계가 인증(최고금상)한 “다성 초의차”입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만 선착순 선금 주문을 받으니,
착오 없이 기간 내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1만통(1통 100g) 주문 받습니다.

※ 햇차 선금 주문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우 전(첫물)	세 작 (두물)	중 작 (세물)
선금 주문 가격	35,000원	20,000원	10,000원
판매 가격	70,000원	50,000원	30,000원
선금 주문 기간	3월01일~4월10일	3월01일~4월20일	3월01일~4월30일
차 만드는 시기	4월10일~4월20일	4월21일~4월30일	5월01일~5월15일
차 발송 예정 기간	4월27일~4월30일	5월01일~5월15일	5월15일~5월30일

※ 우전은 4월10일, 세작은 4월20일, 중작은 4월30일까지만 선입금과 함께 주문을 받으며, 그 이후에는 정상 판매가격으로 판매됩니다.

(사)초의학술문화원 · 일지암영농조합법인 공동주최 입금 : 농협 635070-51-049724 일지암영농조합법인 국민은행 796201-01-376888 (사)초의학술문화원 전화 : 061-285-0301,2 팩스 : 061-285-0304 choyeetea.co.kr/choyee.or.kr


▲초의선사 동상


▲초의선사 생가


▲초의선원


▲조선차역사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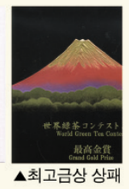

▲청와대사랑채 무료시음


▲제다체험


▲한국차문화특강


▲청와대사랑채 다도체험


▲특허증



▲최고금상 상패

C774-202010.3.81:23PM페이지1(1,1)

최연의 산 이야기 <2> 북한산 1

북한산이 아니라 삼각산이로구나

산은 그 형상(形象)으로 보아 골산(骨山)과 육산(肉山)으로 나누어진다. 골산은 금강산 · 설악산과 같이 바위가 많은 산으로 지혜(智慧)를 상징하고, 육산은 지리산 · 덕유산과 같이 바위가 적고 흙이 많은 산으로 자비(慈悲)를 상징한다. 바위는 기를 많이 발산하기 때문에 산에 들어 도를 닦는 이들은 흔히 바위 위에서 수련을 하였고, 예수도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자 바위산에 올랐다.

<택리지 擇里志>에 따르면 산 모양이 돌로 이루어진 골산이어야만 산이 수려하고 물 또한 맑고 강과 바다가 서로 만나는 곳에 좋은 터를 부려놓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곳이 나라 안에는 개성의 오관산(五冠山) · 한양의 삼각산(三角山) · 진잠의 계룡산(鷄龍山) · 문화의 구월산(九月山) 네 곳 이라고 한다. 특히 삼각산은 역시 골산인 도봉산(道峰山)과 연달아 얽힌 산세여서 돌 봉우리가 무척 맑고 만 줄기 불이 하늘에 오르는 것 같다고 했다.

북한산(北漢山)은 <산경표 山經表>의 산줄기 개념으로 보면 한강 북쪽에서 흘러내려와 한강을 건너지 못하는 산줄기인 한북정맥(漢北正脈) 상에 있는 산이다. 백두산에서 시작된 백두대간(白頭大幹)이 동해 연안을 따라 남쪽을 향하다가 강원도 평강군 분수령에서 서남쪽으로 꺾어져 적근산 · 대성산 · 광덕산을 일구고, 강원도와 경기도의 경계인 광덕고개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솟구쳐 백운산 · 국망봉 · 청계산 · 운악산을 지나며 높낮이를 이어온다. 포천과 의정부를 넘나드는 축석고개에서 그 높이를 현저히 낮추고 불곡산? 도봉산을 지나 북한산과 도봉산을 가르는 우이령에서 본줄기는 서향(西向)하여 노고산에 잠시 솟구쳤다가 장명산에서 임진강 하류로 숨어들어 산줄기의 뻗음을 마감하고, 또 다른 한줄기는 남향하여 백운대(白雲臺) · 인수봉(仁壽峰) · 만경대(萬頃臺)를 솟구쳐 일구어 놓았으니 이를 삼각산(三角山)이라 하는데 속칭 북한산이라고도 한다.

대부분의 역사서들은 북한산을 삼각산으로 기록하고 있다. <삼국사기> <고려사> 그리고 조선시대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여지지> <여지도서> <증보문헌비고> <북한지> <대동지지> 등 역대 지리서와 조선왕조실록에 북한산을 한결같이 삼각산으로 기록하고 있다.

백운대(836.5m) 인수봉(810.5m) 만경대(799.5m)의 세봉우리가 이루고 있는 그 모양이 세 개의 뿔과 같이 생겼다고 해서 세 뿔 즉 삼각산(三角山)으로 불려졌다. 그럼 북한산이라 이름은 어디서 비롯되었을까?

삼국시대부터 지금의 서울지역인 한강유역을 한산(漢山)이라 하였는데 한강을 중심으로 북쪽지역을 북한산(北漢山), 남쪽지역을 남한산(南漢山)이라 하고 한산에서 가장 양지바른 곳을 한양(漢陽)이라 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산이란 산 이름이 아니라 지역 이름인 것이다.

북한산의 이름도 각 시대마다 달리 불렀다. 삼국시대에는 부아악(負兒岳) · 횡악(橫岳)이라 하였고, 고려, 조선시대에는 삼각산(三角山) · 화산(華山) · 중악(中岳)이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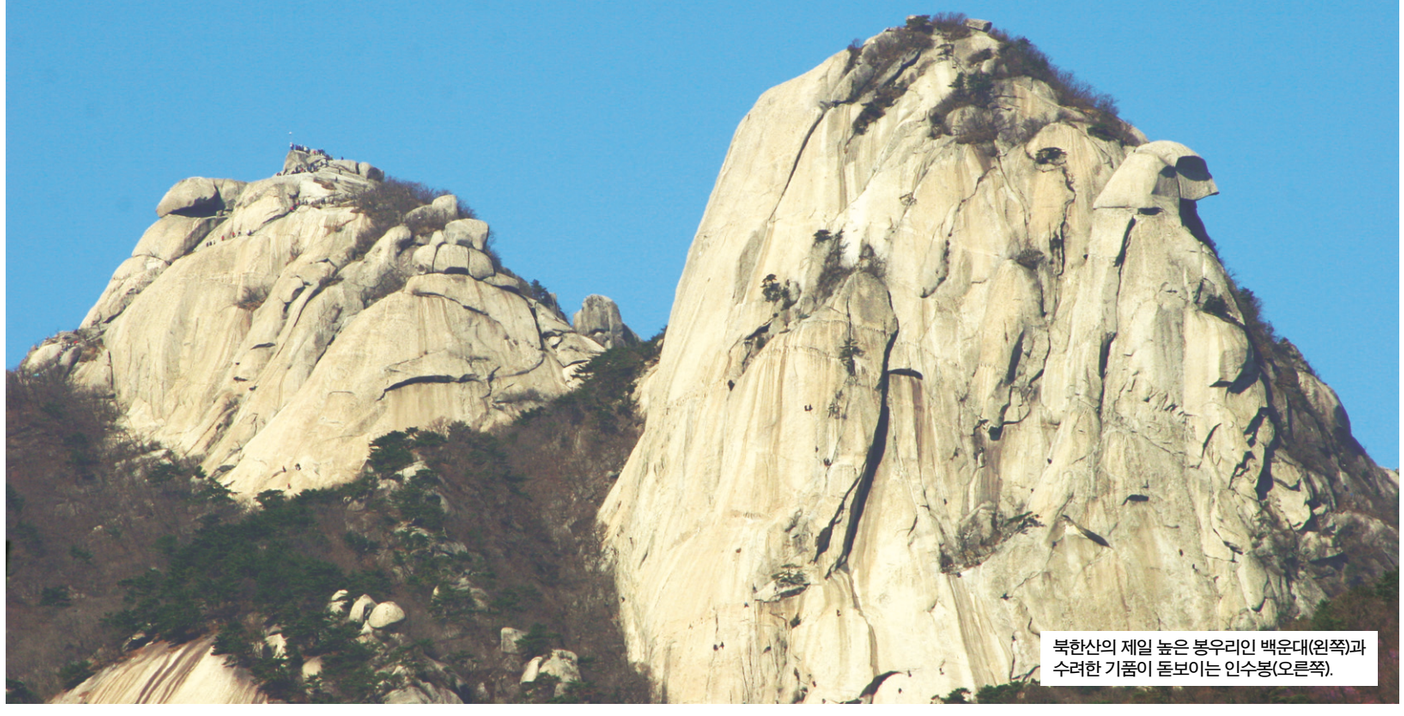
삼각산의 한 봉우리인 인수봉 뒤에 튀어나온 바위가 마치 어머니가 어린애를 업고 있는 형상이라서 이를 한자로 표기하여 부아악(負兒岳)이라 했고, 삼국시대는 북한산을 가로 놓고 대치하여 길항하고 있었으니 이 때문에 가로 횡(橫)자를 사용하여 횡악(橫岳)이라 불렀다. 중국의 영향을 받아 중국이 자기나라를 세계의 중심으로 기운이 결집되어 꽃같이 피어난다는 의미로 중화(中華)라고 칭하고 있듯이 화악(華岳) 또는 중악(中岳)도 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예로부터 산의 격(格)을 말해주는 기준으로 최고의 지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12종산(宗山)이 있으니, 북한산도 그 중의 하나이다. 백두산 · 원산 · 낭림산 · 두류산 · 분수령 · 태백산 · 속리산 · 장안산 · 지리산은 백두대간에 위치하여 다른 산줄기를 가르는 분기점이라는 조종적(祖宗的) 위치인데, 북한산은 금강산? 오대산과 더불어 그러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종산의 반열에 들었다.

천하명산 금강산(金剛山)이야 중원(中原)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이고, 오대산(五臺山)은 불법(佛法)의 보고(寶庫)이니 종산이 되고도 남을 터인데, 북한산은 이도 저도 아니면서 종산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북한산이 부려놓은 터가 한 나라의 도읍을 가능하게 한 명산이었기에 그러하다.

이처럼 북한산이 도읍지를 부려놓은 명산이라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자 이성계가 산에 올라 시를 남겼고, 나라의 경계를 굳건히 하고자 진흥왕이 산에 올라 비석을 남겼고, 원효 · 의상 · 도선 · 보우 · 탄연 · 진관 · 승가 · 법경 등의 스님들이 수행을 위하여 산에 들어 절을 지었고, 숱한 사대부 양반들이 산에 올라 산천경계를 감상하고 유산기(遊山記)를 남기기도 하였다.

■ 최연 (아시아문화연대 이사장)



북한산의 제일 높은 봉우리인 백운대(왼쪽)과 수려한 기품이 돋보이는 인수봉(오른쪽).

유승도의 산에 산에 피는 꽃은

노란 개구리

흐르는 물 가운데에 있는 돌을 들추니 웅크리고 있는 개구리가 보였다. 통통한 것이 알을 간직한 암컷이었다. 붙잡아 물 밖으로 들어올리니 배와 다리에 달라붙은 거머리 세 마리가 보인다. 노란빛을 띤 배에 혹처럼 붙은 거머리를 떼어내니 내 마음이 시원하다.

"자, 한 번 잡아봐."

이그그그, 조카는 흉측한 벌레를 대할 때처럼 얼굴에 놀라움과 공포와 호기심 등이 뒤섞인 표정을 떠올리며 엄지와 검지 두 손가락으로 개구리를 집으려 한다.

"손으로 꽉 잡아!"

개구리의 몸통을 잡고 뒷다리를 내밀며 힘주어 말했다. 내 말을 어찌하지 못하고 조카는 뒷다리를 움켜잡는다.

22살의 조카는 아직도 어린아이의 세계에 머물고 있는 듯이 보인다. 어릴 적부터 또래 아이들과 학교 선생들의, 놀림과 배척과 폭력에 길들여지면서 나이를 먹은 조카였다. 형님과 형수님도 상황을 인식하곤 있었으나, 정상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장애자라고 하기도 어려운 아이를 바라보면서 '잘 되겠지' 하다보니 세월만 흘렀단다.

"어때, 괜찮지?"

"예. 괜찮아요."

"그게 식용개구리야."

"이걸 먹는다구요? 아하, 엄마도 개구리 뒷다리가 맛있었다고 그러기는 했는데…."

"먹어 볼려?"

"아아 그건 아니구요."

조카는 왼손에 쥔 개구리를 자못 신기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눈을 떼지 않는다.

"먹지 않으려면 그만 놔 줘라."

"… 예에, 예."

조카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개구리가 뒷다리를 힘차게 내뻗으며 물속 돌 밑으로 모습을 숨긴다. 물속에 가라앉은 낙엽이나 돌과 흡사한 개구리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물 흐르는 소리가 개구리의 꿈틀거림을 보여주며 다가온다.

거머리에겐 미안하다. 개구리와 거머리 사이에 내가 끼어들 일은 없었다. 누군가의 피를 빨며 삶을 이어나가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야 나의 시선일 뿐이다. 넓게 본다면 그렇지 않은 삶이 가능하기나 하겠는가?

조카를 억압하던 사람들은 그때마다 즐거웠을까? 누군가를 괴롭히며 기쁨을 얻는다는 것은 가능한 일일까? 쉽게 결론이 내려지지 않는 가운데서도 개구리의 등거죽을 뒤덮은 칙칙한 빛깔이 뜨거운 액체로 녹아내리며 가슴으로 파고든다.

살고자 계곡의 색으로 자신의 몸을 뒤덮은 개구리의 몸부림은 인간세계에서도 보편적인 삶의 양식이다.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먹으며 정신을 추스르는 조카 또한 보호색으로 자신을 위장한 사람일 것이다. 보호색은 효과적일수록 바라보는 자의 슬픔을 자아낸다. 완벽한 보호색이 있을 리 없으니 그것이 슬픈 까닭이다.

"어째, 잡아보니 잡을만 하지?"

"아, 예 예."

"내일 올라간다구?"

"예. 복학을 하기로 했거든요."

조카는 원서만 넣으면 다닐 수 있는 대학에 들어가 1년을 다닌 뒤 휴학을 한 상태다. 달리 할 일도 없고 앞날에 대한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내린 조카의 결정인 만큼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병이 악화되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는 떠나질 않는다.

계곡을 나와 집으로 향하는 길로 접어들었다. 포근한 날이 며칠 째 이어지고 있다. 앞산 너머 어딘가에 봄이 와 있다는 소리가 나무들 사이에서 들려온다. 적들의 시선을 피해 배에 간직한, 노오란 자신의 색깔을 온몸에 드러내놓고 팔짝팔짝 뛰어가는 개구리를 생각한다. 보호색을 벗고 자신이 원하는 자신만의 빛을 세상에 뿌리며 나아가는 개구리. 칙칙한 계곡에 노오란 빛의 개구리가 뛰어다니는 모습을 그려본다. 움직이는 노란 꽃송이들을 바라본다.

자신을 뒤덮은 보호색을 벗어던지며 나아가는 조카의 모습이 노란 개구리와 겹쳐지는 것을 환상이라 말하고 싶지 않다. 노랗거나 빨갛거나 하얗거나 푸르거나 검은 색이면 어떠랴. 자신이 입고 싶은 빛을 입고 햇살을 저으며 나아가는 길이라면 무엇인가에 잡혀 먹힌다 해도 슬프지는 않겠다.

■ 유승도 (시인)





주문은 현불삽!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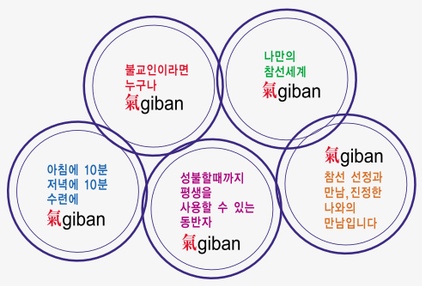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의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최고급 메모리폼 내의)
~~49,000원~~ → 44,000원 (10%DC)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8cm]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6cm]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대한불교 대승선교 조계종
※위종단은 비구니(여승)종단 입니다
- 비구니 종단 등록
- 사찰 등록
- 비구니스님이 되고저 원하시는분

서울 총무원 02)579-3690
연락처 010-2606-5121

국제불교지도자 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부산 · 울산)

역 학 · 빙의 · 퇴마
스님이 쓰는 역학과 최면 영가와 명리를 실전위주로 확실한 비법을 개인 지도함.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역학 : 귀신 빼는 명리(우주물상을 연상법으로 사주, 궁합, 택일, 작명)
최면 : 전생요법, 퇴마, 빙의, 귀신든 병
스님 : 염불, 사물, 사찰 운영법 지도
부산 051)333-3258
011-591-5277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입제 · 회향),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역학 동영상 CD 판매
역학! 집에서 혼자 학습 할 수 있습니다
www.saju.or.kr
010-4800-2378

저렴하게 불공해 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식
바라무, 작법무,
살풀이, 범음범패
010-3590-7596
019-688-9885

역학 동영상 교육
기초부터 실무까지 책임지도
개운명리학회 지도교수
(개운정사 남광스님 특강)
1. 인터넷 고화질 동영상 강의
2. 개인지도, DVD 교재 판매
● 다음카페 : 개운명리학당
010-7227-6007

빙의 퇴마 전문치료
수시접수 中
병원에 가도 병명이 나오지 않는 분
악령에 시달려 머리가 자주 아픈 분
신병, 빙의로 신내림 받아야 할 분
지장사 주지 광덕 합장
032)261-8425
010-7335-8425
정성껏 상담해 드립니다

卍불교전통의식卍
불공, 49재(입제,회향)
범음범패
천도재, 산신기도, 방생기도, 점안식, 이운식, 작법, 바라
* 성심 성의껏 모시겠습니다.
금해 스님
010-4720-6522

서예 공부하는 스님입니다.
서예대전 출품 입선작
한글반야심경, 한문반야심경
(정자)을 인연있는분에게
각 10만원에 드리고 싶습니다.
부처님의
가피를 받으십시오.
010-8929-1215

절 운영이 힘들거나
후계자가 없는 사찰은
소승에게 맡겨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인연 기다립니다
010-9119-5017

조용한 암자에서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43)742-2057
011-9840-8571

기초(명리학). 작명학 수강생 모집
- 기초에서 응용까지
- 3개월 완성
- 개인 및 단체강의
- 저렴한 비용

문의 전화 : 011-711-5072

염불 역학
조용한 산사에서 승려가 개인지도
스님, 예비스님,
법사, 사찰운영자
염불역학을 동시에
배울 수 있는 기회 (숙식제공)
011-716-3811

비워있는 절
기초 행자 구함(女)
의식 지도함
수월사
011-307-011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011-9854-9810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사찰 운영하실 분.
▷경북 북부지역
전화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말씀드립니다.
010-9169-6669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011-9782-3216

공양주 구함
대한불교조계종 지장대사
(전남 여수시 소재)
* 주변에 아시는 분 계시면 소개를 부탁합니다.
061)644-1244
010-4442-6789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보시금은 상담 후 결정
010-3188-5103

비구니 스님들과
평생을 함께 하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43)832-9921
010-8916-0408

공 양 주
구 합 니 다
(조계종 사찰)
보시금은 상담 후 결정
010-9127-6331
010-6782-3188

금년 봄부터 따는
최고 영양좋은 동고버섯
(종균 주입 후 1년 숙성된 것)
표고버섯목 판매합니다
만성스님
010-4773-3688

대방등 대집경 대승기도
- 기도법을 배우려는 스님
- 위치 : 백선사 절 (전철1호선 부천역 소명사거리 3층)

☎ 032)664-0048 / 011-741-0867

행자(예비스님) 및 기도스님모집
백고좌 대법회 봉행도량에서 행자(예비스님) 및 기도스님을 함께 모십니다.
- 누구나 수행하는 열린도량!
- 개성존중 및 자율적인 분위기로서 수행공부와 수계이후의 모든 지원
- 성 별 : 남자 (행자) ● 학 력 : 고졸이상
- 비구.비구니 : 각각 1명(기도&법사) ● 공양주 : 2명 (숙식제공)

※매년 1회이상 백고좌 대법회를 봉행하며 법납 30년 이상 비구.비구니 법사스님의 추천을 원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잠1길 2-9
대한불교조계종 법왕사 · 법왕불교대학
www.bubwangsa.or.kr 053)766-3742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남 합천, 월 110만원
010-7706-8922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신심있게 사실
처사님 모십니다
▷부천
011-9707-3490

단 1회 시술로 통증을 멈추는 기적의 수기요법 특별 전수
목디스크, 40견, 50견, 테니스엘보, 골프엘보, 척추, 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척추측만증, 좌골신경통 등 목과 허리의 모든 병증 치유기법.
침, 뜸, 부항이나 경락마사지, 지압요법 등이 아님.
전 세계 유일한 기법으로 2009년 12월 특허청에 특허로 등록된 특별 수기공요법 (전 세계 20개국 특허 출원중임)
20여년의 많은 임상중 단 한번의 재발도 없었으며, 전 세계 어디서나 환영 받을 수 있는 기법으로 약간명만면담 후 1:1 특별 전수함 (국내외 활동 가능한 분)
◇ 전수자 중에서 특별 수제자 선발 ◇
개인별 맞춤 전수 (1:1 교육 후 무료 상시 재교육)
- 전수금 : 오백만원 ◦ 특 전 : 지부 자격부여
- 특별 수제자 특전 : 풍수, 명리, 수맥, 최면, 기공, 침, 뜸, 약리, 대체요법 등 각종 병증별 치유기법 무료 전수함.
- 한의사, 약사, 물리치료사, 침구사, 대체요법사, 스님 등 종교인 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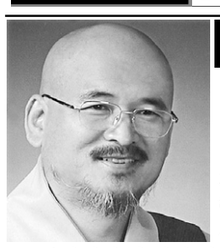
(사)세계대체요법학회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0-8호 5층
문의 : 전화 02)529-1390 / 010-6739-6426

하루 저녁에 깨우치는


하루밤에 깨우치는
나경(패철)사용법
문학박사 전용원 저 2만 5천원 전국 대형서점
전화주문: 하나은행 388-910003-23704 한국역학협회로 2만 5천원 입금, 전화주시면 저자가 직접 서명하고 낙관찍어 월간역학 1권 (8,800원) 무료기증 함께 보내드립니다.
전화 1688-1137 역학 동영상강의 www.kbs.cc

유 명 표 구 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 종 부 합장
문의 ☎ 02)374-9886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 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침 술 秘 法 무 료 강 의
'초종파! "본 강의와 因緣되어 佛事에 도움 되소서!
제1강 : 빙의(최면), 신병, 용신이름법, 초간단명리(적중율 90%)
제2강 : 오행은 삶의 지혜, 오행과 침술, 내몸 내가 고친다
제3강 : 정골요법, 일침요법, 각종처방(견비,허리,무릎,중풍,심장질환)
*침, 특수활용법(한의학박사 특별강의)
강의시간 : 매주 화요일-수요일 10시~16시까지 (1박2일) 장 소 : 경남 마산시 법향사 법당
연락처 070-8861-3359 핸드폰 010-9027-3117
- 좋은 인연 되소서 -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아기이름 작명
작명, 개명, 상호, 회사명, 아호, 단체명, 모든분야이름
문의 051)867-8438
부산경상대학 졸업, 김해가야대학교 졸업
현,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중, 국가공인한자1급,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명리학 개인지도 속성*
부산시경 뒤 시청 어린이집 뒤편 삼화탕 옆 송광정사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통장입금하시고 상담하세요
이름 · 상호 팔자에 맞게끔 찾아드립니다. (사주첩경) 이석영 통달, 수월정사
011-498-5067 / 02)826-5067
031)774-5067 (주말)
〔통화관계로 방문 사절〕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한국불교대학 신입생모집
대구큰절,경산,칠곡,구미,포항,서울,뉴욕,캄포 4월 동시모집
▶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직강!
- 목 · 금요일 오전반, 화요일 저녁반 / 주1회 공부
- 실참(기도,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의힘"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 입학문의: ☎ 053)474-8228
- 다음카페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행자(예비스님)모집: ☎ 010-2488-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스님...대출이 필요하십니까?
불교가 모태가 되지 않은 금융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찰관련대출… 보장되지 않은 대출이율과 이사장이나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겪어야하는 종교적 성향에 따른 대출금 상환독촉을 겪어보신 스님들께서는 이제야 귀의처를 찾았다고 안도의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보현사신협은 불교를 모태로 스님들의 노후복지를 위해 불교병원건립 등 불교복지재단설립을 위해 창립된 전국 유일의 불교은행입니다.
1 사찰매매시 잔금대출, 불사자금 대출 전문 불교은행입니다.
2 이사장(前 제9교구 본사 동화사 주지 지성 큰스님) 스님을 비롯한 대덕 큰스님들께서 운영하시는 불교은행입니다.
3 보현사신협은 수익금을 초파일 연등법회, 제등행사, 봉축위원회 분담금 지원, 불교대학 장학금, 불교신행단체 지원 등 불교계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전국유일의 불교은행입니다.
4 보현사신협 전 직원은 불자로서 20년 전통의 노하우로 가람의 평가 및 사찰의 역사적 가치까지 정직하고 꼼꼼하게 평가해 드립니다.


불교은행 보현사 신협 확장 이전기념 (2008. 01. 28)

이사장 지성
보현사신협 문의전화 (053)428-1133
전문상담 : 전무 서일영 011-527-1037, 차장 정종철 010-2543-1037

동양 정통 침술 전수
得醫道之傳子 階以好生爲心
不務聲名 不計貨利 不忍人識能
不論恭慢 惟知求人之命 愈人之病已已
醫學入口
최고의 동양 정통 침술 및 특수 침법을 전수코자 제한된 인원을 모집합니다.
◆개강일시 : 1차 2010년 3월 5일 (금) 13:00
2차 2010년 3월 9일 (화) 13:00
◆모집인원 : 5名(집중교육)
◆교육기간 : 4주, 20시간
◆교 수 : 한국 최고의 침구학박사 직접강좌 및 최고의 교수진
※ 단 침술 및 특수침술 완전 정복
동양정통침술연구원 덕송 합장
■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404번지 풍림빌딩 405호
02)713-7798 / 010-5250-7798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3개월 단기 기치유 기초 완성
"기치유"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대체의학입니다.

50년 전통의 기치유 수련원
(2대에 걸친 한국 기치유연구회)
▶본원의 기치유 수련은 전통 기치유 방법만을 전수합니다.
▶누구나 배워서 스스로 치유할 수 있고 난치병 치유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신체에 자극을 주는 방법이 아니여서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교육 수료 후 한국 기치유 연구회 인증 수료증 수여!
서울 : 양성반 46기 개강
◆ 수련일자 : 2010년 3월 13일(토요일)
◆ 시 간 : 오전 10:30~1:00(주1회 11주과정)
◆ 대 상 자 : 건강 및 대체의학에 관심있는 일반인등
◆ 수련장소 : 서초 단우빌딩3층/교대2호선 4번출구 1분거리
◆ 수련문의 : 02-3482-5032, 3482-5065
대구 : 기치유 수련반 수시모집 문의 : 053-652-2202
연구회 본원 및 지부에서 기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치유 및 상담은 예약 필수 / Tel. 02-3482-5032
www.gihealing.com 한국 기치유 연구회 Energy Healing Center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기본 규격 – 50.000원
  규격 가로 7cm – 70.000원
  규격 가로 10cm – 100.000원
- 계좌번호 : (주)현대불교신문사
  국민은행 222-25-0005-381
  농 협 053-01-269088
- 문의전화 : 02)732-1522 / 02)2004-8215
- 원고접수 : jabi82@naver.com
  FAX 02)737-0696

※ 매주 수요일 마감. 다음주 수요일 게재

사 찰 안 내

- 위치 : 논산
- 법당 : 18평
- 요사 : 40평
- 부지 : 187평
- 가액 : 1억 8천

- 위치 : 제주
- 법당 : 30평
- 요사 : 40평
- 부지 : 500평
- 가액 : 1억 7천

- 위치 : 서울
- 법당 : 40평
- 요사 : 120평
- 부지 : 62평
- 가액 :17억(지하철역 60M)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 송 기 획 02)998-1994 011)713-5634

사 찰 및 토 굴 안 내

- 위치 : 서울
- 부지 : 4000평
- 법당 : 40평
- 요사 : 60평
- 가액 : 15억

- 위치 : 서울산사
- 부지 : 150평
- 법당 : 20평
- 요사 : 20평
- 가액 : 4억 5천

- 위치 : 서울
- 부지 : 90평
- 법당 : 80평
- 요사 : 60평
- 가액 : 18억 5천

※ 30년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구입자금 융자 알선해 드립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알선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및 토 굴 안 내

시내 아담한 법당
- 대지 평수 : 86평
- 2층 : 법당 26평
- 1층: 요사, 방 4칸
- 주차장 40평, 지하철 인접
- 가액 : 3억 7천

부산 근교 아름다운 절
- 총 대지 : 약 3,000평
- 목조법당 및 건물 6동 (요사채, 산신각, 종각)
- 계곡 물 철철, 산세 최고
- 주차장 300평 ●총금액 : 15억

사찰전문 부산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051)863-6622
※부산 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최 고 의 명 당 절 터

소백산 전체산야가 펼쳐보이는 곳
충북 단양 금수산자락입니다.

- 실토지 1,600평, 이용토지 2,000평 (총 4,000평)
- 토목조경 공사완료, 전기전화, 1급 자연식수 풍부
- 전세도 가능

현 약초농원 주인직접 운영!
꼭 절을 지으실 스님께서만 연락주세요
043)421-3325 /010-3173-0045

포 교 당 (급) 안 내

- 위치: 부산시 사하구 괴정2동
- 평수: 3층, 4층, 5층(135평)
- 3층: 방 4개(처소, 친견실, 종부소, 부전실 外)
- 4층: 공양실 및 큰방 3개 ●5층 : 대법당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2,800만원(절충가능)
- 도심 포교당 최적지, 좋은 조건임

010-2599-6020

암 자 안 내

- 위치 : 밀양 얼음골
- 자연관광지
- 계곡물 철철,경관수려함
- 법당, 요사채 산신각,
- 각 1동
- 부지 임야 10,000평
- 가액: 4억

011-877-7677
010-4876-553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광주 퇴촌
- 대지 100평, 전 320평 도합 420평
- 법당 15평(조립식), 요사채 슬라브(30평)
- 가액: 4억 7천만원

011-739-0968

사 찰 안 내

- 위치: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
- 대지 : 도로 부지 포함해 160평
- 건평: 법당(25평), 요사채(32평) 산신각(방1 별도)
- 가액 : 4억 (가격절충가능)

010-6286-515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 평수 35평, 5층 건물중 4층 청동 삼존불 외 탱화
- 방1, 주방1, 시설완비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가능
- 보증금 3000만원 월 10만원 시설비 2000만원(절충가능)

011-317-0582

사찰(급)안내

- 위치 : 대구 남구
- 대지 : 106평, 법당: 40평
- 요사채(1,2층): 60평
- 포교활동 최적지
- 가액:3억 7천만원 (1금융권에서 1억 2천까지 융자즉시 가능)

011-790-9171
010-5628-8404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거제시(위치 최상)
- 평수: 약 400평
- 요사채 방 4칸 , 창고1 대웅전, 산신, 용왕, 칠성
- 주차시설양호
- 가액: 평당 93만원(가격절충)
- 주지스님 건강 상 양도

010-2954-1288

암 자 안 내

- 위치: 강원도 강릉
- 법당 20평, 요사채 60평
- 별채 8평,
- 부지 400평(등기 150평)
- 가액: 9천 8백만원

010-6695-011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지하철 1분거리
- 3층, 총 32평 ● 방1, 공양간 1,법당
-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 700만원
- 재래시장 버스 종점,
- 위치는 최상급. 몸만 오실분

010-2204-837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수영구 막리동
- 평수 : 31평, 4층건물 중 3층
- 시설 : 원목단, 동불, 삼존불, 공양간, 방2, 시설완벽, 위치 최고 요지, 몸만 오시면 됨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300만원

019-9382-0504

포교원안내

- 서울 청량리역 부근
- 요사채1동(방2, 거실, 욕실, 부엌) 법당(30평), 다락방, 주지실, 부엌, 마당(30평)
- 삼존불, 지장단, 1자원불 500불
- 보증금: 1천만원 월80만원 시설비 5500만원 ●교통 편리

010-5040-0108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장흥
- 법당20평,요사채25평,부지350평
- 공양실, 삼성각, 선방 총 5동 전체 동 기와단청
- 건물 뒤 거대 바위산 있음 바위 모양이 달마 형상
- 가액: 1억 5천만원 (융자 3천 포함)

018-603-1456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감만시장 앞
- 보증금 1,000만원 월 40만원
- 3층법당, 4층 요사,
- 즉시법회 가능
- 시설비 1,500만원 절충

051)638-1134

포교원(급)안내

- 위치: 부산 북구 구포 3동
- 반지하 포함 4층건물 전체
- 주차시설 좋음
- 큰법당 35평, 지장전 30평, 공양간 및 방 35평
- 몸만 오시면 즉시법회 가능
- 가액: 2억 3천만원(대출 5천 포함)

010-9665-0209
010-3848-165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북구 화명동 롯데마트 옆
- 평수: 140평
- 가액: 전세 1억 월 170만원 시설비 있음
- 모든 시설 완벽하며, 즉시 법회 가능합니다

010-8766-0377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 관악구 봉천동
- 5층 건물증 3층
- 평수 45평
- 내부시설 완벽
- 보증금 1,100만원 월 110만원
- 시설비 2,000만원

010-6569-1010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영동 시내
- 대지 약 54평, 건평 약 28평
- 법당, 요사(방2)
- 주방, 욕실, 심야보일러
- 가액: 8천 2백만원 (시설비포함)

010-7325-125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시 서초구 내방역 2번출구
- 4층건물 중 3층 전체
- 평수 약 50평.삼존불 (동불)
- 가액: 8천만원 중 , 보증금 2천만원 시설비 6천만원 월 245만원 부가세 별도

02)522-4984
010-5851-4984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북안면
- 사용부지 6,000평 (실등기 5,000평)
- 법당 (목조): 약 20평, 산신각, 요사채 2동 중 황토방 1개, 실내외 화장실 3개
- 가액 : 4억 (가액 조정 안됨)

011-816-9104
011-815-9104

전원주택 토굴안내

속리산 자락 조용한 수양 및 기도처겸 양택 최고의 명당

- 위치: 충북 보은군
- 대지 200평, 법당 25평, 전답 1,500평, 임야 13,000평, 요사채 10평 1동, 창고 1, 대추나무 400주
- 2010년도 고속도로 10분 거리 개통
- 가액: 평당 18,000원
- 꼭 필요 하신 분만 연락바람

010-9967-9832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군포역 앞
- 주차장 완비
- 평수 80평
- 법당, 방3, 스님 별도 화장실
- 보증금 2천만원 월 130만원
- 시설비 1천만원
- 스님 병안 문제로 급 양도
- 몸만 들어오시면 됨

011-685-6740

사 찰 안 내

- 위치: 경주시 안강읍
- 대지 87평, 2층건물
- 1층 요사채 34평
- 2층 법당 24평
- 특징: 안강읍 시장, 대형마트 각각 5분거리
- 1,2층 모두 도시가스 설치
- 가액 2억 2천만원

016-9290-4656
032)347-4656

조용한 토굴(급)안내

- 위치 : 공주시 정안면
- 평수 25평, 20평(등기필)
- 황금벽돌
- 시설 완벽하게 갖추어져있음
- 가액 3천 5백만원정
- 중국 청도 이주로 급 양도

011-9405-8186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청원군 가덕면 병암리
- 1층 요사채 35평, 2층 법당 11평, 산신각 3평,대지 90평
- 외부: 5층석탑, 미륵존불, 양쪽 석등, 1자반 약사여래불 주차시설완비
- 가액: 1억 8천만원 (답사 후 조절 가능)

011-297-9149
010-5483-750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 빌라 주택 밀집 지역,시장입구
- 법당 40평, 방2, 공양간, 화장실
- 삼불, 후불탱화는 인등으로 설치되어 있음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2,000만원(절충가능)

011-544-977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경남 김해시 삼방동 인제대 부근
- 평수 : 총 50평
- 3층건물 중 2층 전체
- 방2, 주방, 욕실
-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1천만원(절충가능)
- 시설일체 완비, 즉시법회

055)328-2509
019-549-352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북부동
- 법당(삼존불 외 호신불), 방2, 공양간 30평
-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1200만원

055)364-3525
010-4531-352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부산 광안리 대로변
- 면적 70평, 4층
- 법당, 방2, 사무실, 공양간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부산 방면있는 스님이 좋을듯)

010-8519-0758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울산시 태화동
- 평수 : 3층 실평수 40평
- 가액 : 합 3,500만원
- 즉시법회가능

010-9327-341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양
- 평수 280평
- 법당 22평 (불사중 90% 완공)
- 요사채 33평(완공)
- 산신각, 창고, 화장실
- 50년이 넘는 오래된 사찰
- 정하는 금액에 양도 하고자함

010-3877-257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수영구 광안 3동 망미역 1번출구 근처 2층
- 법당 50평
- 관음보살, 후불, 신중, 칠성, 산신탱화
- 방2칸, 주방, 화장실 2칸, 다용도실, 창고, 다락
- 전세 1500만원 월세 45만원 시설비 상담 후 결정

010-8740-375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양
- 평수 280평
- 법당 22평 (불사중 90% 완공)
- 요사채 33평(완공)
- 산신각, 창고, 화장실
- 50년이 넘는 오래된 사찰
- 정하는 금액에 양도 하고자함

010-3877-257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부산 광안리 대로변
- 면적 70평, 4층
- 법당, 방2, 사무실, 공양간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부산 방면있는 스님이 좋을듯)

010-8519-0758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울산시 태화동
- 평수 : 3층 실평수 40평
- 가액 : 합 3,500만원
- 즉시법회가능

010-9327-341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신월리 459번지
- 대지 약 900평, 법당 50평,
- 요사채: 50평 산신각 6평,
- 주차장 약 500평
- 전세 4500만원, 시설비 1,,000만원

011-1703-2770

단독건물사찰안내

- 위치: 부산시 동래구 온천2동 금정마을
- 평수 80평
- 법당 20평, 큰방4, 공양간, 화장실 시설일체 완비
- 보증금 450만원, 월 35만원

010-4053-2788

현대식사찰(포교원)안내

- 위치: 밀양시 무안면 국도변위치(교통 시,내외 정류소옆)
- 대지: 210평, 주창장 넓고 정원수 많음
- 요사채: 적벽돌 슬라브 양옥 65평 1동 (최고급 실내 원목 사용, 태양열, 단독지하수 설치)
- 법당: 20평 1동(현대식법당 법사님 보살님 적합)
- 가액: 2억 4천만원(은행융장 7000만원 포함)
- 가액절충 전세도 가능

010-7448-7913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촌IC에서 10분이내
- 부지: 9630평 (1523여평+임야 8000평)
- 한옥신축대웅전, 신축황토방 요사채 조립식건물+산신각
- 추가건축허가유(사회복지시설 가능위치)
- 바로앞 홍천강 경관과 기도도량
- 가액: 15억

011-9888-1563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 중구 유곡동
- 대지 50평, 건평 50평 ● 1층 요사채, 2층법당
- 가액: 보증금 5천만,월 50만원
- 전월세 가능, 전세 1억원
- 23년째 운영중

010-2785-9522

포교원(급)안내

- 서울 화곡역1분거리 번화가
- 버스정류장앞 시장입구
- 3층건물 중 3층 옥상사용 ● 법당20평
- 후불탱화, 백의관음불, 후불,산신탱화
- 현 성업중, 시설완비, 즉시 법회가능
- 보증금 1000만원, 월 70만원,시설비 2300만원 확장불사관계로 급 임대합

010- 3552-3351

사 찰 안 내

- 위치 : 포항 도심속 전통사찰양식,아담한 사찰
- 법당 30평(단청) ● 요사채3, 방 3, ● 2층 공양간
- 산신각, 독성(용왕단) , 소불 1500불, 용왕당, 문수동자200불
- 대지 50평에 약 100평사용 ● 주차장 확보 (주인직)
- 가액: 4억 (절충가능) ● 교환도 가능

017-516-0773 (주지스님)
010-3550-6771 (보살)

이상적인 토굴터

- 위치 :홍천군 서석면 동서고속도 10분거리
- 평수: 382평, 지목 전
- 특징 : 옛날 고가자리 옹달샘
- 일조량 풍부, 배산임수, 정남향 진입로 아스콘포장 , 전기바로 접
- 대지 : 130평 형질변경 및 황토방 35평 건축 신고한 상태
- 절대가액: 7천만원

010-2871-6668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에서 10분거리(8km)
- 부지: 총5200여평(종교1000여평)[전체 관리지역]
- 건물: 법당:외5포내9포25평,지장전목조17평, 삼성각목조8평,요사채54평,45평, 황토목조18평,5층사리탑,등
- 주변: 아름다운조경,대형주차장,텃밭천평 (건물가능),별장터.
- 가액: 15억 상담후 절충가능

055)356-6083
sambon4@naver.com

포 교 원 안 내

- 1천5백만원으로 같이 운영할 스님
- 7년째 운영중
- 위치: 서울시 동작구 이수역
- 평수 약 40평
- 시설완벽, 월세는 없음

- 주거지역 전 약 250평을 시찰과 (교환)을 원합니다
- 평당 400만원 ● 위치: 대전시 중구 증촌동

010-8299-4747



Dr.황의 바른 자세 바른 생활 ❾ 척추 측만증2

척추 휘어지면 장기 · 신경계 위험

척추 측만증이란 몸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척추 마디가 꽈배기처럼 비틀어지고 구부러지면서 휘어지는 증상을 말합니다. 이 증상은 구부정하고 불균형한 자세와 활동량이 적은 현대인들의 약화된 근력 구조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척추 측만증은 대부분 사춘기 시작 전인 10세 전후에 시작됩니다. 키가 자라는 시기 동안 척추도 나빠지지만 키의 성장이 멈춘 후에는 측만증도 대부분 멈추게 됩니다.

척추 측만증의 원인은 보편적으로 목 · 어깨 · 허리 디스크 등, 전신의 만성피로 증상이라고 말하지만, 필자가 느끼는 가장 위험한 증상은 심폐기능의 압박입니다.

이 질환은 점진적으로 척추 주변의 장기를 압박 합니다. 압박이 심해지면 척추가 정상 위치에서 밀려나고 주변의 장기는 본 기능을 점점 상실합니다. 예를들어 흉추(가슴 부위)가 휘어지면 폐와 심장이 압박 돼 폐활량 저하, 가슴 통증, 심장질환 등을 유발시킵니다.

일본으로 연예인의 꿈을 갖고 간 여학생이 돌연 귀국해 필자를 찾아왔습니다. 이 환자가 꿈을 접고 저를 찾은 이유는, 대학병원에서 척추 측만증 말기(40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환자는 평소와 달리 지나친 피로감을 느끼고 등 · 어깨가 항상 무거웠다고 합니다. 또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힐 것 같은 폐활량이 적어지는 증상을 자주 경험했다고 합니다.

필자는 이 환자의 척추의 비틀림, 구부러짐, 휘어짐의 방향을 분석해 운동 처방과 전신 체형 교정 관리를 처방해 주었습니다. 일본에 돌아간 학생은 지금도 매일같이 척추 측만증 교정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는 자신이 꿈꾸는 연예인의 목표를 위해 계속 노력할 수 있게 됐다는 감사의 말과 함께 예쁜 미소를 건넸습니다.

만일, 이 학생이 성장기 때 부모님이 등을 만져주면서 척추의 휘어짐 · 불균형 상태를 초기에 감지했다면 어떠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의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귀엽고 소중한 자녀의 척추가 혹시 휘어져 있는 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척추가 휘어지는 의미는 단순히 자세가 망가지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모든 장기와 신경계를 관장하는 중심축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척추 측만증을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달리기나 수영, 자전거 타기, 공놀이 등 유연성과 리듬감을 길러 주는 운동을 1주일에 30분 정도씩 4회 정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음은 측만증에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입니다.

PnP교정센터 황상보 원장 T : 1544-9697



무릎 꿇고 양팔/발 번갈아 들기 1. 양 무릎과 양팔을 바닥에 붙인 채로 엎드린다. 2. 오른팔을 쭉 펴면서 앞쪽으로 뻗는 동시에 왼쪽 다리를 쭉 펴면서 뒤쪽으로 최대한 밀어서 앞뒤로 최대한 늘려준다. 왼팔과 오른쪽 다리도 같은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황현수의 불교와 무술이야기 ❾

무술은 국가의 의미까지 가지게 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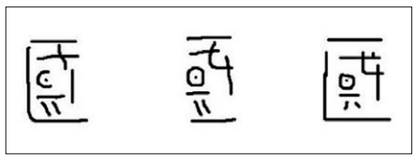
연재 중에 불교와 다소 무관할 수 있는 무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무술로 인해 전쟁과 불안의 역사를 겪는 과정을 살펴보고 불교역사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습니다.

한문학에서 말하는 나라 '國' 자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문은 여러 가지 부수가 섞인 혼용문자입니다. 바깥의 큰 '口' 는 국경과 영토를 의미합니다. 가운데의 작은 입구는 먹는 입이 있는 사람들인 백성을 의미하며, 그 백성을 감싸고 있는 것은 창과(戈) 자입니다. 다시 말해 '戈(과)' 는 백성을 지키고 보호해 주는 무력인 군(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예란 인간이 개체나 집단으로서, 내외의 위협과 침략에 대항해 독자적인 문화권을 유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는 주체적인 역사를 보장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되었습니다. 원시시대 수렵 생활이 막을 내리고 농경사회로 접어들었을 때, 유목생활을 벗어난 사람들은 땅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소유욕이 증가했습니다.

그렇게 소유구조가 바뀌면서 힘 있는 민족들은 굳이 힘들여 일하지 않았습니다. 약한 민족의 것을 빼앗으면 되었기에 수렵은 그만 두더라도 공동체 보호를 위한 전투 연마에 매진했습니다.

서로 뺏고 빼앗기는 정복과 전쟁의 역사 속에서 전투기술 습득에 필요한 무예가 정책적으로 장려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라 국(國)자의 연나라 문자.

무술 · 무예 · 무공 · 무도 등등 무술을 가지고 참으로 많은 단어로 표현되지요? 다들 같은 단어들 같지만 무술의 위상을 높이거나, 아니면 상대의 무술을 폄하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나는 무도를 닦는데 너는 무술에 그치는구나!"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일단 하나씩 그 한문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무술은 (武: 굳셀 무, 術: 꾀 술) '꾀 술' 자를 썼습니다. 꾀라는 표현은 그리 좋은 것은 아니지요? 즉 상대를 이기기 위한 꾀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둘째 무예(武: 굳셀 무, 藝: 기예 예)는 '기예 예' 자를 썼는데, 무술이 꾀가 아닌 예술의 경지에 올랐다는 말입니다.

셋째 무공(武: 굳셀 무, 功: 공 공)은 공을 세우다 할 때 공입니다. 공(工)자는 하늘과 땅을 지탱하고 있는 것을 상형화한 문자이며, '장인 공(工)' 과 '힘 력(力)' 자의 합성어인데, 뜻은 힘을 쓸 줄 아는 장인이라는 말입니다. 예술의 경지를 넘어 공을 세울 수도 있는 한 차원 높은 단계를 말합니다.

마지막 넷째 무도(武: 굳셀 무, 道: 길 도)는 '길 도' 자를 썼는데, 말 그대로 무술이 도의 경지에 들었다는 최고의 극존칭이며, 절대 고수가 행하는 무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무술에서 시작해서 결과적으로 무도까지 이루는 것입니다.

무술을 연마하는 이들은 항상 자신이 하는 무술이 정도이며 바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나쁜 무술도 있을까요?

무술이란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무술을 수련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나 행위에 따라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항상 선행을 해왔던 단체의 문파무술이라도 잘못된 제자가 하나 나와 삿된 일에 그 기술을 사용한다면 바로 사파무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대 중국에서는 유교의 기본 사상인 사단(仁 · 義 · 禮 · 智)을 기본 바탕으로 했습니다.

맹자는 사람들에게 "이 사단을 충분히 길러준다면 온 세상이 편안하게 되고, 그렇지 못하다면 자기의 부모님을 모시기에도 부족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각 문파들은 사단에 문파들의 명분이나 청규를 제정해 세력을 강화시켰습니다. 또 문파중 이를 어길 시에는 파문을 당하는 것은 당연지사였습니다.

강산은 쉽게 변해도 사람의 성품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 문파마다 제자를 받아들이는데 신중을 기하였습니다. 스승은 제자를 받아 들였다 해도 정수를 전수해주는 자는 몇 안 되는 이유가 여기(성품)에 있는 것입니다.

근본불교학자/ 다음카페 : 37수도장



국순려의 괄사이야기 ❾ 아토피

약만으론 아토피 치료될 수 없어

피부에는 표피와 진피가 있다. 표피는 각질층, 투명층, 과립층, 유극층, 기저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진피는 유두층의 모세혈관은 표피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며 피부 세포분열작용도 진행시키는 역할을 한다. 영양공급원, 산소공급원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에서이다. 섭취한 음식물은 소화기관을 통해 완전히 분해된 다음 소장에서 포도당과 아미노산 형태로 변화되어 혈액으로 흡수된다. 이때 완전 분해된 영양소는 혈액 속으로 흡수되지만 그렇지 않은 음식물은 백혈구의 공격을 받는다. 즉, 백혈구는 완전분해 되지 않은 음식물을 적군(항원)으로 알고 싸울 전사(항체)를 만드는 것이다.

이 항체는 히스타민(histamin:신체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염증 · 알레르기가 있을 때 신체조직에서 분비되는 유기물질)이다. 히스타민은 세포내에 존재하는 독성이 강한 화학 물질이다. 백혈구가 생성한 히스타민은 관절부위, 얼굴 등에 쌓인다.



아토피 치료에 도움이 되는 괄사법.

히스타민이 많이 쌓이면 이것이 모세혈관의 벽을 녹인다. 모세혈관 벽이 녹은 자리는 붉은 염증이 생기면서 가렵다. 이것이 아토피성 염증인 것이다. 이 아토피성 염증을 낮게 하려고 항히스타민제를 바르면 이 히스타민 독성물질은 혈관을 통해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또 염증을 일으킨다. 그래서 항히스타민제는 근본적인 치료약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아토피는 좋은 섭생과 괄사, 운동, 정서안정으로 소화액이나 소화효소가 음식물을 영양소로 완전히 분해할 때까지 기다려야 근치되는 것이다.

(1)괄사법

<전신 괄사>

주 3회 전신괄사 (어린이 60분, 어른 90~120분)

<부분 괄사>

1. 매일 두피, 흉선(심장의 대혈관의 앞쪽에 있는 기관), 얼굴, 목 등 괄사
2. 매일 액와(겨드랑이), 오금(무릎 안쪽), 세혜부(아랫배와 허벅다리 사이), 팔꿈치, 귀 뒤 튕기기
3. 족삼리(무릎 아래 약간 바깥쪽 부위에 있는 혈(穴)), 합곡(엄지손가락과 집게 손가락 사이에서 약간 위쪽 손등 부위의 혈(穴)), 곡지(팔을 90도로 구부릴때 팔굽에 생긴 오목한 곳), 혈해(무릎뼈의 안쪽 가장자리), 삼음교(발 안쪽 복사뼈의 중심에서 위로 세치 올라간 곳) 파고 튕기기
4. 매일 등판 문지르기
5. 매일 손가락, 발가락 사이 파고 튕기기
6. 괄사 후 따뜻한 물 마시기

(2)유의 사항

1. 과식을 금한다.
2. 침구, 의류는 일체 면제품을 써야 한다. (02)557-1628 ~9

국순려건강능력개발원장

불자정보 774호

TEL 02) 2004-8215(直)
732-1522
FAX 02) 737-0696

명당터안내
●위치 : 경남 창영
●평수 : 임야 약 1만평(약 80% 사용가)
●특징 : 사찰 암자 및 선산 등 모혈명당, 고암면 감리 (밀양 넘어가는 국도 첫째 산, 정봉 아래 정혈, 도로에서 약 120M)
●가액 : 28억 5천만원 평당 30만원(전체가 한송이 명당) 인연자에게 가격 떠나 양도.
043)744-2951

사찰안내
●위치 : 경북 의성 옥천면
● 대지 230평
●삼존불 모셔져 있음
●요사채, 방5개, 창고, 화장실
●황토찜질방(3평)
●가액: 9천5백만원(가격절충)
017-573-6067

토굴안내
●위치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전기시설 완비
●평수 20평
●조립식 건물
●대지 370평
●포교하실분 적합
●가액: 1억 4천만원
010-5020-8599

포교원안내
●위치: 경남 창원시 내동
●공단상가 407호
●평수 29평
●방2, 법당, 공양간
●가액: 5천만원 (융자 2천 포함)
010-5042-1003

사찰안내
●위치: 충북 단양, 경관 수려
●대지 320평, 200평
●2층 법당(급 단청 되있음)
●1층 요사채 60평
●삼성각(조립식) 20평
●마당에 선미륵 2분, 선방 25평
●밭 450평, 요사채 27.5평
●가액 : 5억 5천만원(절충가능)
●교환가능
010-6436-9888

암자 · 토굴 안내
●위치 : 경남 거제시
●대지 344㎡, 104평
●아궁이, 황토방,
●단독주택 2채
●방3, 공양간 1, 인법당
●가액: 1억 8천 5백만원
055)632-3840

토굴안내
●위치 : 충남 아산
●대지 150평, 건평 25평
●큰방2, 거실, 다용도실, 옥외화장실.아파트구조식
●주위 환경 공기좋고 조용합니다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전세 3000만원
●집 깨끗합니다(일부 생활집기 완비)
010-5120-5275

포교원안내
●위치: 양주시벽석읍내, 의정부시내10분거리
●2층건물 중 2층, 20평
●삼존불, 아미타불, 관음대세지, 지장단, 지장보살, 신중탱화 104위, 칠성, 신신탱화
●년 세 200만원. 보증금 無,
●스님 사정상 급 양도
●시설, 상담 후 조절
031)877-2677

포교원안내
●위치: 부산 기장 기장시장 부근 (교통편리) ●평수 82평중
●법당 42평, 작은 방 1, 큰방 1, 부엌, 화장실(샤워실)
●모든시설 일체 구비되어 있음
●즉시 법회가능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천만원
011-9334-2030

포교원안내
●위치: 부산 양정역 지하철 4번출구
●평수 법당 70평, (삼존불) 인등, 소불
●3층건물중3층에법당으로단독대문,
●1층에 산신각, 시설 완벽함 (법회 앰프시설 완벽)
●항시 법회가능, 몸만 오시면 됨
●전세 1500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8,000만원
051)865-1940
016-786-2196

포교원안내
●위치: 경북 경산시 옥산동 (상가3층 건물 3층)
●건평 30평(방1, 법당)
●관세음보살,칠성산신탱화
●가액: 보증금 300만,월25만원
●시설비 일절 800만원
관심있는 스님, 법사, 보살님, 불자가족 환영합니다
010-3780-6183

사찰터(급)안내
● 경북 영덕 영양 중간
●지방도 맑은 계곡 접한 언덕위 전 900평은 국유림내 위치 호 조건
●유동가액 평당 5만원
054)682-8888
011-538-2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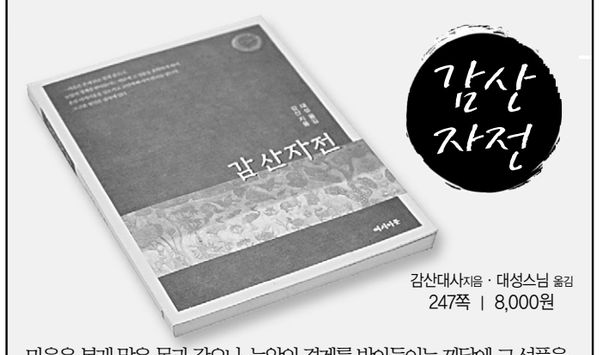
포교원안내
● 위치: 대구 달서구 죽전동 (죽전역 2분)
●평수 약 42평 (3층중 2층)
●법당 약 20평
●방 2개 주방겸 거실
●남 여 화장실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별도
010-4626-2258

포교원(급)안내
●위치 : 김해 시내 시장부근
●4층 건물 중 3층 약 50평
●삼존불, 신중,지장,산신불 , 각단탱화 일체
●상담실 및 거실, 방2,
●보증금 300만원, 월38만원
●법당 및 모든 비품, 집기 일체, 시설비 2,200만원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055)335-0314



선방일기
지허스님 지음
135쪽 | 5,000원

불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중생으로 시작해서 인간으로 끝납니다. 부조리한 백팔번뇌의 인간이 조화된 열반에 이르는 길이 바로 불교이기 때문입니다.



감산자전
감산대사지음 · 대성스님 옮김
247쪽 | 8,000원

마음은 본래 맑은 못과 같으나, 눈앞의 경계를 받아들이는 까닭에 그 성품을 혼탁하게 하여 온갖 어지러움을 일으키고 고민에 빠지며 번뇌를 낳는다. 그 근본 원인은집착에 있다.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농협 053-01-269062 | 국민은행 343601-04-046766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다구를 찾아서

4 달마의 눈꺼풀

차의 순수한 맛 위해 소금만 넣어 끓여

인류가 처음 차를 마시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2700년경인 신농(神農)부터이며, 차는 파촉(巴蜀, 현재의 운남과 사천)에서 소비되는 지역특산품이었다. 그러다가 당나라에 이르러 황실과 사찰, 그리고 일반 백성에게까지 널리 확산됐다. 차가 당대에 이르러 갑자기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자연적인 조건으로는 수와 당 그리고 북송초, 즉 600~1000년까지 계속된 온난한 기후를 말할 수 있다. 수·당의 수도인 장안(지금의 서안)은 7세기 중엽 오랫동안 겨울에 눈도 오지 않고 얼음도 얼지 않았다. 기록에 따르면, 이때의 장안에는 매화나무와 감귤나무를 심을 정도로 날씨가 따뜻했다. 강



당 화강암 다기 일습. 대만 국립자연과학박물관 소장. 다기대(茶器臺)의 길이 37cm, 너비 29.5cm, 그 외 다구 각 4.5~10cm.

수량 또한 풍부해 중국 역사상 가장 긴 습윤한 시기(당 중기~북송 초, 811~1050)가 지속됐다. 이렇듯 온난 다습한 기후는 차나무가 생장하기에 적당한 환경을 제공해 차산지가 강남일대로 확대됐다.

다음은 수대에 형성된 전국적인 수로를 통한 교통망을 꼽는다. 문제~양제 때(584~610)까지 26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서쪽으로는 장안, 북으로는 탁군, 남으로는 여항(지금의 항주)에 도달하는 총연장 약 2000km의 남북 대운하가 탄생했다. 이 운하는 황하·해하·장강·회하·전당강 등 오대강 유역을 관통하면서 남방과 북방간의 획기적인 교통혁명을 이룩했다. 이로 인해 남방의 차와 음다풍속이 북방으로 쉽고 빠르게 그리고 대량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

마지막으로 지배층에서 유행하던 선종의 확산에 기인한다. 설화에 따르면, 달마대사가 참선을 하는 중에 졸음을 참지 못하자 그만 그의 눈꺼풀을 칼로 베어 마당에 버렸다. 눈꺼풀만 없으면 졸음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눈꺼풀을 버린 곳에서 나무가 자라났고, 그 잎을 달여 마시니 졸음이 사라졌다. 그 나무가 바로 차나무였다고 한다. 그래서 승려들은 자연스럽게 차를 가까이 하게 됐고, 9세기 무렵 선종과 음다풍속은 함께 유행하게 돼 현재까지도 사찰과 차는 불가분의 관계를 이어온다.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을 안고 드디어 다성(茶聖) 육우가 출현한다. 그는 <다경>에서 "차의 종류에는 추차, 산차, 말차, 병차가 있다. (단차를 마실 때) 차를 자르고, 끓이고, 굽고, 절구질하여 작은 항아리에 넣고 끓인 물을 부어 우리는 것을 암차라 한다. 혹은 파, 생강, 대추, 귤껍질, 수유, 박하 등을 넣고 오랫동안 끓여서 혹은 휘저어 탁하게 하고 혹은 끓여서 거품을 넘치게 한다. 이러한 차는 개천에 버릴 물일 뿐이다. 그러나 이 습속을 버리지 않는다(飮有笭茶散茶末茶餠茶者 乃斫乃熬乃煬乃舂貯於甁缶之中 以湯沃焉謂之痷茶 或用葱薑棗橘皮茱萸薄荷之等煮之百沸 或揚令滑或煮去沫 斯溝渠間棄水耳 而習俗不已)"라고 당시의 탕법을 개탄했다. 이때에는 차를 지금과 같이 순수하게 찻잎만을 넣어 우려내거나 달여 마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약재를 함께 끓여 마셨던 것으로 보인다. 차 자체의 맛보다는 약리적 작용을 배가하는데 우선하는 것으로, 육우는 이러한 탕법이 차의 맛을 해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차에 소금만 넣어 끓이는 획기적인 방법을 제안했고, 이것이 육우를 다성이라 부르는 이유 중의 하나가 됐다.

대만의 국립자연과학박물관에는 당대의 탕법을 짐작할 수 있는 다구 일습이 소장돼 있다. 재질은 화강암으로 풍로(風爐), 좌자(座子), 다병(茶甁), 다부(茶釜), 단병호(單柄壺), 다연(茶碾), 다완(茶碗), 다탁(茶托), 반(盤), 다기대(茶器臺)로 구성돼 있다. 이중 다병, 단병호, 다완, 다탁은 모두 동시대 월요, 형요, 장사요 등에서 만든 도자기 다구와 동일한 조형이다. 상당히 정교하기는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 사용된 것 같지는 않고 부장용으로 추정된다.

백기란 · bdaol@hanmail.net ·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 연구원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25 관룡사 용선대



관룡사를 품고 있는 화왕산 숲속엔 나루터가 있다. 숲속의 나루, 아득한 옛날 그 나루에 모여 배를 타고 떠난 이들은 지금 정토에 있다고 한다.

봄비가 지나간 화왕산 기슭에 맑은 얼굴을 한 관룡사가 일주문 대신 작은 석문(石門)을 열어놓고 있었다. 산 중턱에 보이는 용선대에는 아득한 시선을 던지고 앉아 있는 석불이 중생을 기다리고 있었다. 산길에 들어서자 멀리서는 보이던 용선대와 석불이 보이지 않았다. 봄비에 젖은 이정표가 용선대를 가리키고 있었다. 반야용선(般若龍船)을 탈 수 있는 용선대는 그 작은 이정표 끝에 있었다. 가벼워진 하얀 구름이 석불의 시선을 더듬고, 절벽 끝에 앉은 부처님이 중생에게 손을 내민다. 용선은 아직 떠나지 않고 있었다. 산 아래서 발자국 소리가 또 들려왔다.

옛 판화의 세계

연수 스님이 방생하다 (延壽放生)

송나라 때 연수 스님은 낮에는 모든 생명을 놓아주고 밤에는 귀신들에게 음식을 보시해 모두가 정토로 회향하게 했다. 이 작품은 <불조통기>의 내용 중에서 낮에 모든 생명을 풀어주는 방생 수행을 판각한 작품이다.

연수(延壽, 904-975) 스님은 중국 북송 904년 여항에서 태어났다. 일찍이 불법에 뜻을 두어 오신채를 먹지 않았다. 20세부터는 하루 한 끼를 먹으며 <묘법연화경>을 읽었다. 28세 때 화정진장(華亭鎭將)이라는 관리에 등용돼 백성들로부터 거둔 세금을 모두 방생에 사용해 체포됐으나, 왕은 그의 뜻이 출가에 있음을 알고 출가를 허락했다. 천태 덕소의 제자가 돼 법을 이었으며, 975년 나이 72세, 법랍 42세로 입적했고 지각선사(智覺禪師)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연수 스님은 선교와 간경을 고루 공부해서 염불과 참선을 함께 수행했다. 법화경을 항시 독송했고, 매일 108 참회를 하고 아미타불의 명호를 10만 번씩 부르면서 정진했다. 저서로는 <종경록(宗鏡錄)>과 <만선동귀집(萬善同歸集)>등이 유명하다.

연수 스님은 어느 날 불상 주위를 돌다 보현보살이 그의 앞에 나타났는데 연꽃이 보살의 손에 있는 것이 보였다. 또 어떤 날은 선관을 닦던 관세음보살이 나타나 감로를 그의 입에 부어줘 마침내 변재무애의 경지를 얻게 됐다.

충이왕이 청해서 영명사에서 주석했는데 날마다 108가지 일을 행하며 한번도 그만두지 않았다. 배우는 사람이 참문하게 되면 마음을 지적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고 깨달음을 법칙으로 삼았다. 해가 지면 다른 봉우리로 가서 행도염불(行道念佛, 불좌를 돌면서 염불하거나 길을 가면서 염불하는 것)을 했는데, 옆의 사람이 들으니 소라조개로 연주하는 하늘의 음악소리였다.

충이왕은 이러한 일을 찬탄하며 말했다. "예전부터 서방정토에 태어나기를 구하는 사람 가운데 이와 같이 오로지 한마음으로 간절한 사람은 아직 없었다."

이 작품은 연수 스님이 수행을 통해 불보살을 친견해 가피를 받는 모습이 생생하게 표현돼 있다. 연수 스님은 이러한 수행을 바탕으로 많은 중생들을 서방정토로 인도하는 신행합일을 실천하는 수행자의 표상이다. **선학 스님(명주사 고판화박물관 관장)**



고판화박물관 소장 <석씨원류(釋氏源流)> 중 연수방생(延壽放生). 불암사판 1673년간행, 반곽(半郭) 27.2×18.0㎝

선칠 용맹 정진 안내

(7일 용맹정진)

◆결 제 : 2010년 3월 21일 오후 7시
◆해 제 : 2010년 3월 28일 사시
◆방부비용 : 15만원
◆입금계좌 : 1407-02-022380 농협

선칠수행도량
묘실상선원
대전시 동구 중동 47-18
☎ 042)585-0778
묘실상선원

한국근본불교조계종
공고
경남교구 본산 주지 공개모집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제 14교구 경남 종무원 청정사 주지를 공개 모집합니다.

◆ 자격 : 법당 10년이상 비구, 비구니로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종도로써 활동하며 청정사 중창불사에 전념할 수 있는 스님
◆ 대우 : 종신 주지 및 사자상승보장 (종단에 소정의 후원금 지급 요)
◆ 자산 : 법당 30평, 요사 20평, 선방 50평, 산신각, 석불, 석탑 등 대지 630평, 임야 7400평 등

총무원장 의륜 합장

■ 주 소 : 경남 합천군 청덕면 초곡리 820번지
■ 문의전화 : 011-352-7751



수행자들의 정성으로 만든 자연 발효 식품

100% 순수 국산콩으로 만들었습니다. (생산지 : 경북 영주)

우리 땅에서 자란 콩으로 빚은 복메주는, 사람을 이롭게 하라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얼이 베어있는 순수자연 발효식품입니다. 자연에 의존하여 만들어지는 전통 메주는 햇살과 바람의 숨결로 말려지고 다양한 미생물에 의해 숙성되는, 하늘의 기운을 머금은 자연이 만들어주는 선물입니다.

▶특징
· 국산콩을 가마솥에 장작불로 삶아 나무틀에 한장 한장 정성으로 넣어 만든 수공메주 입니다.
· 발효균을 인공적으로 주입하지 않고, 전통 방식 그대로 자연발효로 띄워서 깊고 깔끔한 맛이 납니다.

금강정사 복식품

서울법당 : 02)742-0172
포항금강정사 : 054)261-2231
부산법당 : 051)514-3566
대구법당 : 053)425-3063
울산법당 : 052)211-2161
대전법당 : 042)862-5539



우주 삼라만상이 오직 중심 하나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를 하게 된 것은 기복을 벗어나지 못하는 길이 아니라, 대승으로서 천인의 왕의 도리를 배우기 위해서 입니다. 이것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조금도 손색이 없이 내 몸과 내 가정과 내 사회를 지키고 나갈 수 있는 심력과 더불어 중용을 기르는 법입니다.

그런데 주인공을 믿고 찾으라고 하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덮어놓고 '주인공만 믿으면 된다더라.' 하고 그냥 '너 알아서 해라.' '주인공이 해 줘야지.' '주인공 해 주시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더러 있다고 봅니다. 절대 그렇게 해선 안 됩니다. 마음의 근본과 마음내는 거와 육신이 움죽거리는 것을 동시에 합쳐서 주인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인공이라는 것을 그대로 내놓을 수도 없고, 마음이라는 것을 내놓을 수도 없고, 내가 어떤 걸 했다고 내놓을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인공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팔방미인을 가지고 주인공이라고 하죠. 팔방으로 뛰어도 죽지 않는다는 원리를 가지고 주인공이라고 하죠.

그러니만큼 우리가 찰나찰나 화(化)해서 돌아가니까, 찰나찰나 용도에 따라 변해서 애고(哀苦)도 세균성도 영계성도 유전성도 나오죠. 애고라는 것이 고정되게 나오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이런 것도 나오고 때로는 저런 것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이런 것이 망쳐질 수도 있고 저런 것이 잘될 수도 있죠. 그런데 '주인공에다가 이 모든 것을 일임해라.' 할 때는 상황에 맞게 놔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병고가 오면 '너밖에 고칠 수 없어.' 하고 놓는데, 그 놓는 순간에 약사로 화한단 말입니다. 또 내가 법정에 들어설 일이 생겼을 때는 바로 독성, 산신도 되고 관세음도 됩니다. 그렇게 맡겼을 때에 찰나찰나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주인 노릇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음을 어떻게 하면 요량 있고 지혜롭게 냄으로써 문제를 조금도 손색이 없이 타파해 나갈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아는 것이 올 때, 이걸 꼭 타파를 해야겠다 하는 문제가 내 앞에 닥쳤을 때는 '이것은 너밖에 못해!' 하고 놓을 수 있지만, 내가 가늠을 못할 때, 판단을 못할 때는 '너밖에 판단해 줄 수 없어!' 하고 놔야 됩니다. '판단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너밖에 없어!' 하고요. 그러니까 용도가 이것저것 다르게 닥칠 때마다 내 마음은 화해서 자꾸자꾸 용도에 맞게 놔야 되죠? 바꿔서 놔야 되죠. 아버지 노릇할 때엔 자연스럽게 아버지 노릇 하고, 남편 노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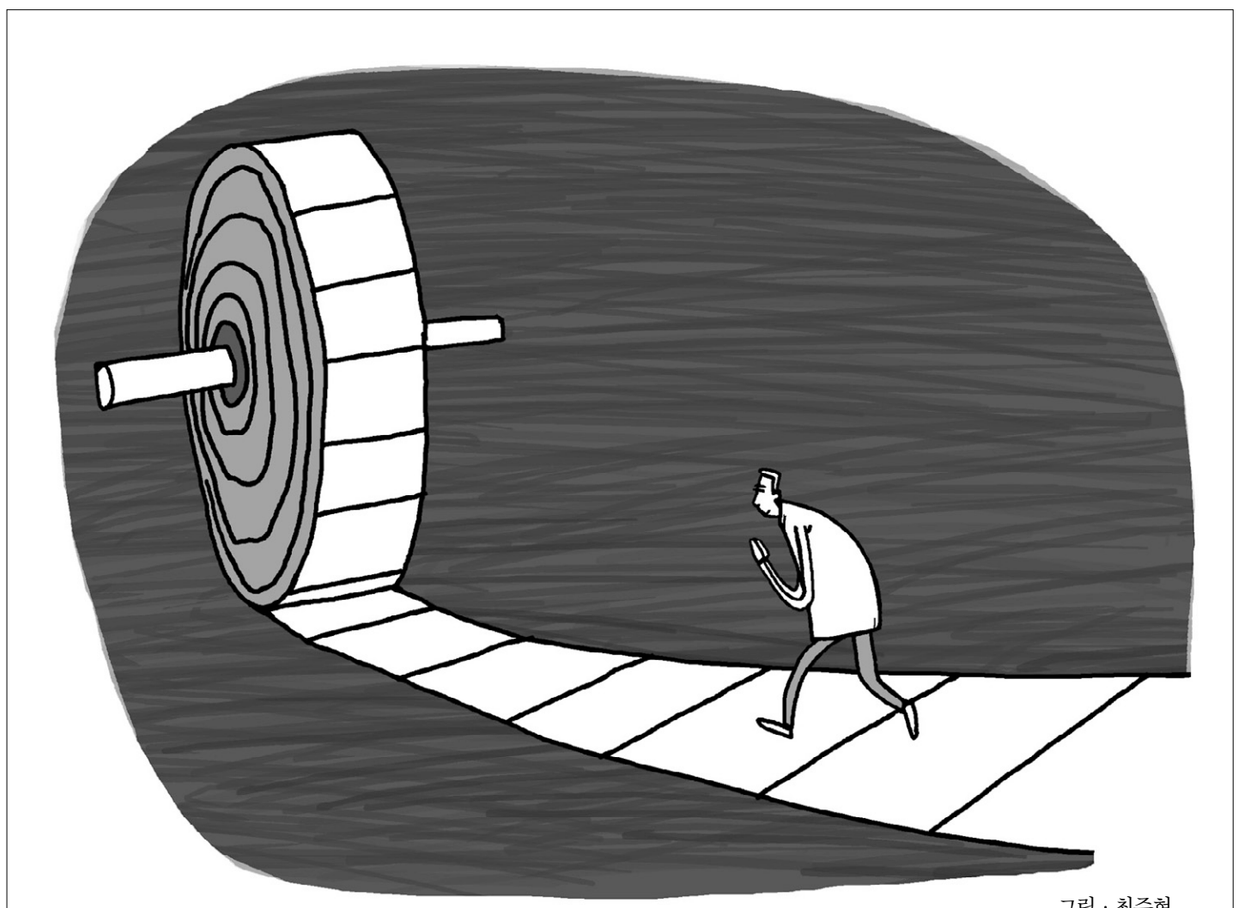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할 때는 자연스럽게 남편 노릇 하고 하듯이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지혜롭다고 합니다.

무조건 놓으라고 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놓으면서 공부를 열심히 잘하고 가는 사람도 있는데, 끊어라 하니까 끊으려고 애를 쓰기만 했지 놓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끊으려고 하면 도대체 그게 끊어집니까? 그것은 지혜롭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벽을 치면 봇장이 울려야죠. 우리 인간의 두뇌에는 아주 지혜로운 본능이 그대로 주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수억겁을 거쳐서 경험을 쌓고 진화되고 형성되면서 발전을 해서 인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인간에게 지혜로움과 진화력과 그 모든 능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연적으로 스스로 지혜로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저 병고가 와도 '너 알아서 해' 이런다면 그것은 지혜롭지 못하죠. 예를 들어서 서류를 딱 주고 '너는 요것대로 해!' 해야 되지, 서류도 주지 않고 일거리도 주지 않고 '너 알아서 해!' 한다면 그게 될 법한 일입니까? 예를 들어서 아랫사람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뭐 뭐뭐 사 가지고 와!" 이래야 뭐뭐 뭐뭐를 사 가지고 오죠. "너 알아서 사 가지고 와!" 한다면 그 사람이 뭐를 해 먹을 줄 알고, 입맛이 어떤 줄 알고 사 옵니까? 그와 똑같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이 기묘해서 마음내는 거를 잘 내야 됩니다. 마음이라는 그 이름은 이름일 뿐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바로 심봉이라면 그 심봉을 끼워서 돌아가게 하는 그것은 마음내는 겁니다. 돌아가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아무리 심봉이 있다 할지라도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심력이 없다면 그것은 무효입니다.

어떻게 잘 파악하셨습니까? 지금은 정신세계의 정신을 발전시켜야 살 수 있는 시대입니다. 물질을 발전시키려고 해도 먼저 정신이 발전을 해야 물질도 발전을 해서 이 세상에 나온다고 봅니다. 정신을 발전을 못 시킨다면 이 세상의 물질도 발전을 못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정신계를 제일로 주장하셨습니다. "네가 마음을 깨달아야지,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는 나의 마음도 꿰뚫어 볼 수가 없고, 일체 만물의 그 마음도 꿰뚫어볼 수가 없느니라. 네 중생 하나 못 건지는 놈이 어떻게 남의 중생들을 다 건질 수 있겠느냐? 네 몸뚱이 속의 네 자생중생을 제도하지 못하고야 어찌 딴 중생들을 제도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이 하나하나 마음을 지혜롭게 써서 거기 놓고 굴리는 대로 이 몸속의 자생중생들은 그 뜻을 받아서 움죽거리게 돼 있습니다. 본래는 악업 선업에 의해서 그림자처럼 자기 영혼과 더불어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이 마음 지도자가 자꾸자꾸 마음을, 어린애에게 말을 가르치듯이 그렇게 해서 자꾸자꾸 제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 전에 이 말을 먼저 해야겠군요.

이 자생중생들은 내 마음에서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엔 없는 겁니다. 그 반면에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지은 대로 꼭 고정되게 업을 가지고 있어서 요지부동입니다. 모르니까! 입력에 의해서 입력이 된 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입력이 돼서 나오는 거를 바꾸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데다가 자꾸 입력을 해서 되넣는다면, 앞서의 입력은 없어지고 현재에 입력하는 것이 자꾸자꾸 들어가 돌아갑니다. 그럼으로써 그 속의 자생중생들은 그대로 진화되면서 화합니다. 즉 발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은 없어지고 새로 들어오는 것만 자꾸자꾸 연거푸 돌아가니까, 그것이 바로 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중생들, 즉 몸속에 있는 자생중생들을 다 보살로 화하게 만드는 겁니다. 보살로 화하게 되면, 수로는 헤아릴 수가 없으리만큼 천백억화신(千百億化身)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둘 아닌 도리와 더불어 다 앎으로써 나툼까지도 이제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모든 중생들이 보살로 화한 까닭에, 본인 하나가 바로 맨 나중에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계를 추구하면서 보살의 정신을 가지고 보살이 되려고 애를 쓰는 사람에 한해서 내 중생부터 제도를 다하고 난 뒤에야 자기가 성불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긴다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문수가 유마힐 거사 병문안을 갔는데 왜 "중생들이 병이 다 나아야 내 병이 낫겠노라." 하고 말을 했을까? 내 몸속의 자생중생이 다 작용을 해서 병이 나아서 건강해야 자기 몸이 건강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남들은 그 말을 듣고 내 몸 중생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외부의 딴 중생들이 다 병이 나아야 자기가 낫는다는

☞26면으로 계속

교육과학기술부허가 공익법인 한국평생교육기구
창업을 위한 전문자격증 교육생 및 지부모집
제 7 기 보건식품처방사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 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교 육 과 목	교 육 기 간
·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 자연치유의학 · 식품영양보충학 ·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 약용식물학, 총 7개 과목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표정관리 및 웃음치료, 최면요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건강식품업소탐방,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월요일 반

교육기간 : 2010년 2월 20일 - 2010년 5월 22일 / 모집기간 : 매월 상시모집 중

중앙교육원 - 홈페이지 www.kile.or.kr
접수처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 수납처 : 한국보건교육원 (신한은행 100-025-095930)
문 의 : Tel. 02)3147-2020. 02)393-5111

지부교육원
영남본부교육원 055-543-3155 / 부산해운대지부 051-757-9990 / 지리산연수원 063-635-5112
대구교육원 053-566-1116 / 호남본부교육원 063-254-5500 / 경남서부교육원 055-932-5877
부산교육원 051-636-2972 / 광주교육원 062-672-5432 / 울산교육원 052-260-1037

-지부모집-
현재 9개 운영 중 아래 9개 지부를 상시 모집합니다.
강원남부 / 강원북부 경기남부 / 경기북부 충청남부 / 충청북부 대전 / 인천 / 수원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사찰,법당 영상음향 설비공사
법당 · 앰프 · 마이크 · 스피커 설치공사
사찰 CCTV 설치 (적외선 카메라)
휴대용 충전식(방생) 유무선 마이크 겸용 포터블 앰프 시스템



법당 앰프 · PWA-110 320×230×270mm...8.5kg · PWA-730 430×275×275mm...4kg · PWA-3000 200×480×230mm...11kg



무선마이크



TV, 컴퓨터 모니터로 사용하면서 녹화기능까지.. (야간에도 녹화 가능함)
사찰 CCTV 설치



사찰 하이파이 앰프

투원미디어 방송 · 음향 · 영상설비전문업체
Twin Media www.twinsound.co.kr
서울 종로구 장사동 156번지 아세아전자상가 가열 119호 代表 최유창
Tel 02)2265-4288, 2275-8079
H·P 010-8705-4288
대덕큰스님과 불자님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완벽한 A/S보장

buddhanews.com

내 한마음 주장자로써 일체 만법을 손색없이 굴려야

☞25면에서 계속

걸로 생각을 하니 얼마나 지혜롭지 못합니까? 나, 나, 나, 나로부터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났기 때문에 상대가 생겼고 세상이 벌어진 거지, 내가 이 세상에 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상대가 있으며 어떻게 세상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러니 나로부터죠. 내 악업 선업의 중생들이 다 내 몸속에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내 몸속 작용을 하는 그 중생들부터 제도가 돼야 하겠기에 나는 반드시 내 마음으로 나를 다스려야 된다 이 소립니다.

공(空)해서 잘나잘나 화하는 고정됨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정되지 않게 용도에 따라서 다가오는 거를 그대로 그대로 거기다 맡기면서 '너밖에 할 수 없다.' 고 했을 때 '너만이 알아서 증명해 줄 수 있다.'는 그 사실! 자기 용도에 따라 닥친 거는 자기가 더 잘 알겠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주 알맞고 지혜롭게 거기다가 잘 맡겨 놓고 '너만이 할 수 있다. 너만이 낫게 할 수 있다. 너만이 이끌어 갈 수 있다. 내가 모르니까 네가 알아서 잘 처리해 줄 수밖에 없다….' 내일 먹을 거리가 없다 하더라도, 아니 내일뿐 아니라 이따가 먹을 게 없다 하더라도 '너만이 먹게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신념이 굳을 때는 반드시 먹을 게 오는 것입니다. 여북하면 이 도리를 아는 사람은 돌에 세워 놔도 산다고 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족상이 잘생겼느니, 수상이 잘생겼느니, 관상이 잘생겼느니 해도 심상이 잘생긴 것이 으뜸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두가 다 우리의 마음먹기에 달린 거죠.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그 간단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그러지만 무슨 호흡이니 무슨 운동이니 모두들 하는데, 이 도리를 아는 분에 한해서만은 반드시, 이 몸속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개별적인 기능을 가지고 자기의 모자라는 부분에 다 작용을 해 주기 때문에 마음공부가 필요한 거죠. 자기가 모자란다는 거는 자기가 더 잘 압니다. 허할 때는 뭐가 먹고 싶다 이런 것도 압니다. 또 어디 옆구리가 좀 결리면 거기가 그렇다는 걸 압니다. 기가 빠졌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대치를 해서 놓으면 그냥 채워줍니다. 그런데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해서 이러니저러니 해 가지고 온통 거기에다가 다 신경을 쓰게끔 되고, 살림살이는 헌신짝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만듭니까?

중심 하나면…, (손가락을 하나 세워 보이시고) 모든, 우주 삼라만상이 중심 하나로 돌아갑니다. 그 중심의 기능이 바로 여러분 마음의 기능과 그 중심에 직결이 돼 있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끼고 돌아가듯, 우리 마음이 바로 지구에 붙어살고 또 지구가 그렇게 붙어살고 그렇게 해서 돌아가듯이…. 내가 그전에도 얘기했죠. 사람들이 지구가 시공을 초월해서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모르는 것처럼, 이 사람 속에 있는 중생들도 사람이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길잡이가 이 속의 자생중생들을 잘 제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계가 없는 걸 부처님이라고 이름을 지어 놓은 겁니다. 부처님이라는 것은 너 나가 둘이 아니고, 산천초목,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이든, 못났든 잘났든 바로 자기 영역에서는 높다는 거를 상징한 겁니다. 어느 집안에서든지 그 안에서는 모두가 다 나름대로 높다는 겁니다. 집안뿐만 아니라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일체 만물만생이다, 지렁이는 지렁이 소굴에서 높고, 거북이는 거북이 소굴에서 높은데 단, 차이가 없이 평등하게 높은 것을 부처님이라고 이름을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본래 이것저것 탓할 게 없이 여여하게 그대로 돌아가는 것을 여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 내놓은 것에 끄달린다면 한 걸음도 딛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부처님께서 비유해서 말씀해 놓으신 게 있다고 봅니다. 어느 왕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인 왕을 죽이고 왕위에 올라섰습니다. 왕위에 올라서서 일을 하다가 큰 종기가 났는데 앓다 보니까 몸뚱이가 아주 마르고 이제는 다 죽게 됐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병문안을 오니까 그때서야 자기가 업보가 될 것을 모르고, 죄업이 될 것을 모르고, 왕을 살해하고 왕위에 올라선 것을 참 한탄한다고 앓아 드러누워 있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병문안을 온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왕을 죽이고 왕위에 올라서는 것은 당연합니다. 누구든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승에서는…", 즉 얼른 쉽게 말해서, 얕은 지위의 중생들은 "… 업보가 있겠지마는 당신은 업보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업보가 없느냐?" 하고 물으니, "톱이나 도끼로 나무를 잘라 내고 그래 봤던들, 그 톱이나 도끼에 업보가 붙는 것 보셨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다는 그 사실을 지금 부처님께서 비유해서 얘기하신 건데, 문안을 드리러 온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면서, 말하자면 "굼벵이가 자기가 나올 때는 자기 어미를 탁 찢어 버리고 나옵니다. 독사가 이 세상에 나와서 자랄 때는 자기 어머니를 먹고 자랍니다. 그래도 죄가 붙습니까?" 하고 물었답니다. 그 말끝에 홀연히 깨달아서 '아하! 그게 아니구나. 이 세상 모두를,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을 때에 그냥 먹었을 뿐이지, 그거를 먹었다고 해서 죄가 붙을 자리가 없구나.' 이거는 대승의 도리입니다! 대승이라는 도리도 없는 도리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부처님께서 그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깨닫는 것은 붙을 자리가 없구나. 모두가, 너 나가 다 둘이 아니거늘 붙을 데가 어딨는가?' 하고 깨달았다는 거죠.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고 그 왕위에 올라섰다는 뜻은, 바로 우리가 지금 이 물 한 방울에 다른 물 한 방울이 들어간다면 한 방울의 물이지 거기에는 두 방울의 물이 없습니다. 사람을 그냥 죽여서 죽인 게 아니고, 그건 마음의 도리를 비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도 먹고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부처님도 먹고 들어가야지, 부처님이 삼라만상 다 둘이 아니게 한자리를 하고 계시고 모두 평등하게 집어 잡숴다면, 그 부처님의 골수를 집어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집어 먹기 위해서는 그러한 수행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마음 도리를 공부해 나가는 이 수행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 도리를 능히 알기 위해서는 자기 씨를 자기가 스스로 찾아야죠. 즉, 과거에 살던 그 씨는 바로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오기 이전'을 바깥에서 찾으려고 애쓰지 말라고 한 소립니다. 내가 그런 말을 했지요. "작년 씨를 올봄에 심었더니 새 싹으로 화했더라. 새 싹으로 화해서 그 싹의 열매가 열려서 씨가 앉았는데, 과거 씨를 어디 가서 찾는고? 현재에 내가 가지고 있는 씨, 내가 가지고 있는 맛,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바로 다스리면서 알면, 그대로 그 씨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먹이고도 되남으리라."라고. 이 세상의 마음의 떡이란 얼마나도 크고….

이런 얘기도 있죠. 어떤 사람이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차려 놓고 지낼 건 없고, 그런데 아마 물리가 무쌍하게 터진 모양이죠? 그래서 남이 잘 차려 놓은 호텔에 가서 절 세 번을 했더랍니다. 허허허…. 자기 마음으로 자기 조상의 위패를 세워 놓고 말입니다. 또 부모님께 잘해 드려야 한다고 없는 것 없는 상점에 가서 그냥 거기다 제사를 지낸 거죠. 마음의 제사를 지내고 보니까 없는 게 없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냈다고 친구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또 걸작이죠. "아, 이놈아! 가게에 가고 호텔에 가서 그것을 하느니, 이 세상천지를 다 떡 하나로 만들어서 그것을 드리면, 아주 하나도 부족한 게 없지 않느냐?" 이러더란 얘기죠. 하하하…. 그러니까 그 제사 지내고 간 친구가 있다 하는 소리가 "야, 참! 너 발전했구나. 하하하… 나는 그렇게 해서 우리 조상을 흡족하게 해 드렸는데, 아휴, 너는 나보다도 더 흡족하게 할 수 있구나!" 이랬더랍니다. 그러니 그 마음의 지혜라는 게 얼마나 묘합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 조상들에게 그저 나물 몇 가지 과일 몇 가지, 요런 거 차려다 놓고 지내는 것만 생각을 하거든요. 마음을 넓게 해서 그냥 떡 하나를 놓고 제사를 지내 보세요. 초 하나, 향 하나, 물 한 그릇, 떡 한 그릇! 그것도 썰지도 말고 그냥 한 덩어리 찰떡으로 해다 놓고, 미리 해다 놨다가 좀 식히면 덩어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걸 접시에다 턱 놓고 지내면, 그건 뭐 이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가 없는 도리죠. 그렇게 한다면 정말이지 부모 조상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거죠. 조상들은 부처님 조상과 가정의 조상들과 둘이 아니니까요. 한자리를 하게 해서 한자리에다 놓고 그걸 지낸다면, 아까 그 젊은 사람이 "이 세상을 다 합쳐서 떡 하나를 만들어서 드리지 그랬느냐!"고 한 거나 똑같습니다.

그럼으로써 윗조상들의 묵은 빚도 갚을 수 있고 아래로는 자기가 뿌려 놓은 그 씨앗들에게도 햇빛을 줄 수가 있다 이 소리죠. 조상들이 걸림이 없는 한편, 바로 부모의 마음이나 내 마음이 가설이 돼 있으니까요. 부모라는 생각과 자식이라는 생각이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게 한 염주의 염주알이죠. 그 마음이 걸림이 없기 때문에 그 위의 조상들도 걸림이 없을 거고, 아래로 자식들도 뿌리가 성성할 거고, 내 육신 속에 중생들도 다 그냥 보살로 화할 것이고. 얼마나 좋은 법입니까, 이게?

어떤 땐 좀 안된 생각이 듭니다. 이 법형제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해 나가시는 분은 해 나가시는데, 아주 까맣게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인공이라는 그 자체는 바로 내 영원의 생명, 그 근본 자체하고, 마음내는 거하고, 육체가 움죽거리는 것이 같이 돌아가는 거를 말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움죽거리질 못해도 무효고, 마음을 내지 못해도 목석이니 무효고, 또는 생명의 근본이 없어도 무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거 하나 빠져도 안 되죠. 밥을 짓고자 하면 쌀과 물과 불이 있어야 하는데, 불 하나가 빠져도 안 되고 물 하나가 빠져도 안 되고 쌀이 빠져도 안 됩니다.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이 동시에 발전을 할 수 있는 이 작업은 바로 생활 속에서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소립니다. 이런 법당에만 부처님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고 자기가 있는 자리에는 다 있습니다. 부처님이 깨끗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 부처님께서는 정신적인 어버이시지만, 육체들은 바로 그 부처님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깨달으면 바로 곧 부처다 이 소립니다. 여러분이 잘 파악하셔서 이리로 쏠리고 저리로 쏠리지 마시고, 내 한마음 주장자로써 일체 만법을 손색없이 굴리시길 바랍니다.

질문하실 것 있으면 여여하게 맘 턱 놓고 하세요. 배우려면 알면서도 떡 그릇에 그냥 엎드러지는 거죠, 뭐. 그러니까 그냥 질문하십시오. 아주 편안하게 말입니다. 적어 가지고 오셨다면 한 구절 한 구절 하세요.

질문자1(남): 법형제회 형제분들의 의문을 대신해서 질문 올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영혼의 존재를 묻는 질문에 대해 대답하지 않으심으로써 영혼의 존재를 부정하고 오직 마음만을 강조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윤회니 업보니 하는 말을 듣다 보면 은연중에 영혼의 존재를 믿고 말하게 됩니다. 영혼에 대해서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큰스님: 영혼이라고 하는 것도 이름일 뿐이고, 마음이라는 것도 이름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양면 가운데서, 바로 마음의 작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영혼과 마음이 둘이 아닙니다. 동시에 작용을 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없다면 바로 실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靈)과 마음이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닌 까닭은 바로 마음내기 이전 그 자체에 마음과 영혼이 둘이 아니게 결부돼서 돌아가기 때문에, 스스로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마음을 낼 수 있게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과 영혼을 각각 보지 마시라 이 겁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마음 또한 같이 돌아가고,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내기 이전은 그대로 근본이 돼 있죠. 그대로 근본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영혼이다 마음이다 이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 근본과 마음내는 거와 육체가 움죽거리는 그 자체가, 돌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주인공이죠.

(다음 호에 계속)

여러분이 하나하나 마음을 지혜롭게 써서 거기 놓고 굴리는 대로
이 몸속의 자생중생들은 그 뜻을 받아서 움죽거리게 돼 있습니다
이 마음 지도자가 마음을 그렇게 자꾸자꾸 제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 법문은 1993년 3월 7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명	연 락 처
부산지사		박지원(객원기자) 051)632-0064 / 010-8544-0351
대구지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6-813-8008
충청지사	혜철스님	043)732-5560 / 010-9422-8453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384-3009 / 016-629-1508
전북지사	조 동 제	063)910-8977 / 011-9642-7733
영주지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1-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146회 부산 3000배 용맹정진

업장소멸의 관건은 지극하고 간절한 성스러움과 최고의 공경심으로 절하며, 전신의 노폐물, 독소, 나쁜 기운의 땀을 흘리면 괴로운 맘 소멸되고…

소원성취는 해맑게 미소 짓는 기쁜 얼굴로 '부처님 크신 은혜 고맙습니다' 대긍정의 감사염송을 온 몸과 맘에 가득 채우며 절하면 100% 성취된다.

우리들 마음 속에 부처님을 항상 모시는 날마다 행복한 날을 확신하는 염불선도우미를 동참자 전원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 날 짜 : 2010년 3월 13일(토) 저녁 9시 ~ 2010년 3월 14일(일) 아침 7시
(절하는 법 교육 : 저녁 7시 ~ 9시, 3000배 시작하기 전)

■ 준비물 : 동참비 2만원
[필수준비물] 수련복:100% 면 소재 흰색상의, 회색 법복 · 조끼, 방수포(신규동참자는 선물), 기도포(방석을 덮을 큰수건), 땀 닦는 수건, 면양말 2켤레, 발로해(절수행 특수 덧신), 면장갑 2개, 위생비닐장갑1, 목수건(신규동참 : 3만원)
[선택준비물] 무릎, 손목, 발목아프신분(팔관애원보호대), 허리아프거나, 아랫배,엉덩이, 꼬리뼈, 차가우신분(호락호락 팬티), 어깨 아프신 분(스트레칭 필)

■ 장 소 : 부산 금정법당
☞지하철 1호선 두실전철역 7번 출구 남산정비 좌회전 50M 경우빌딩 4층

백만불자 108배 만일결사 수행중심 교육도량 법왕정사

■서울숲 군자법당 (02)456-0035 ■부산 금정법당 (051)583-7886
■대구 신천법당 (053)743-0063 ■광주 상무법당 (062)375-3500

한글도메인 : WWW.법왕정사.kr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중생구제와 자비실천을 함께하실 스님, 포교사, 법사님을 모십니다

종정대행 총무원장 혜봉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하여 2001-82호 법인 설립

※ 준비서류 및 서류 발급

◆ 종단 입종신청서,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장
◆ 입종하시면 사찰등록증, 주지 임명장,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증 발급

※ 각 지역별 간부직 소임자를 우선 모십니다. 연락바랍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번지
전화 054)262-5060 / 팩스 054)262-0067
혜봉스님 직통 011-545-5060



불자 세상보기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

독선적 리더십은 재앙을 불러온다

이명박정부 출범 2년을 맞아 경실련에서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직무수행에 대한 설문 결과를 보면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대단히 매섭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전문가들의 67.1%가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으며, 이들은 그 이유로서 '일방적 · 독선적 행태'(70.1%), '낡은 사고와 구시대적 상황인식'(55.8%), '국민과의 소통부족'(51.5%) 등을 거론했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2년 동안 이명박정부의 국정운영방식을 보면 당연한 반응이기도 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CEO형 리더십을 천명하였다. 노무현정부 시절 사회양극화 심화와 국정 혼란의 결과로 인해 일반 국민들은 강력한 리더십에 기초한 경제성장과 성장의 과실을 요구하던 터라 정체가 모호한 이명박 후보의 CEO리더십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되돌아보건대 국민은 '신 사과'를 물어버린 듯하다. 지난 2년 동안 대통령이 보여준 강력한 CEO리더십은 정책결정의 오만과 독선, 정책대상의 일방성, 상대방에 대한 불인정, 모든 사회관계의 적대화로 함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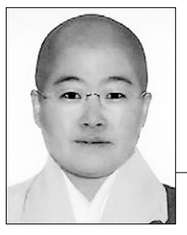
'기업이 잘 돼야 국민이 잘 살 수 있다'는 대통령의 소신은 출범과 함께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정책(감세 결손분은 90조원에 달한다)을 감행하였고, 경제 살리기와는 별 상관이 없지만 강부자 내각이 허명이 아니듯 겨우 최상위층 28만 가구를 위해 종부세를 대폭 낮추었다. 대통령의 일방독주는 국민의 건강권을 무시한 채 미국의 요구를 일방 수용한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기도 하였다. 그러나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촛불 시위대의 함성과 아침이슬을 들으면서 늦은 밤까지 많은 생각을 하셨다는 대통령의 고민의 결과는 소통이 아니라 브레이크 없는 질주였다. 촛불집회가 사그라지자 정부는 집회와 시위 위반자들에게 대대적인 검거와 구속에 착수하였다. 미네르바 사건처럼 정부에 비판적인 여론은 철저하게 차단시켰다. 이러한 기조는 2009년 '용산참사'와 '쌍용차사태'로 이어졌으며, 정부에 비판적인 각종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시켰다. 뿐만 아니라 아예 잠재적인 비판세력엔 온갖 음해와 고소 남발로 비판의 싹을 잘라버리고자 하는 시도도 계속되었다.

소위 '강부자' 내각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거세지자 '친서민 정책'을 표방하는 등 일정 정도 국민과의 스킨십을 강화하였지만, 국민들이 경험한 것은 대통령이 시장에서 순댓국, 어묵, 떡볶이를 먹는 사진뿐이다. 국민이 잠시 그러한 정경을 통해 감상에 빠져 있는 동안 이 대통령은 반환경 사업의 종합판인 4대강 정비사업에 물경 22조원을 투자하였다. 강 정비사업이 아니라 '강 죽이기' 사업이라는 수많은 전문가들, 4대강 주변에 삶을 뿌리내리고 있는 지역민들의 위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귀에는 마이동풍이다.

집권 2년차에 불과하지만 국민이 느끼는 피로도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명박 대통령의 CEO리더십은 마치 시장에서 기업의 경쟁논리처럼, 모든 국민적 삶을 적자생존의 논리로 이끌어 갔다. 그러다보니 모든 국정논리를 극단적인 경쟁과 생존의 논리로 끌어가며, 내가 결정하고 집행하는 일만 옳다는 독선에 빠져있는 듯하다. '고소영' 내각이 허명이 아니듯 국정의 의사결정도 국민과의 소통보다는 특정 학맥, 지역, 종교와의 네트워크 속에서만 작동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지난 십 수 년 동안 국민이 어렵게 획득한 민주주의의 근간마저 크게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대통령의 리더십은 국민과의 열린 소통 속에서 발휘되어야 하는 것이지, 폐쇄적 네트워크 속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 부끄럽지만 우리 헌정사에서 전임 대통령들은 이와 관련하여 하지 말아야할 전형적인 교훈을 보여주었고 결국 그러한 리더십은 개인의 불행으로 귀결되지 않았던가?

독선적 리더십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민의 불행을 초래한다. 이 대통령도 전임자들의 행보를 반면교사하여 지금이라도 각계각층과의 허심탄회한 소통을 추구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사부대중 칼럼

정완 스님
전국비구니회 교무국장

여우는 왜 뛰지 않았을까?

여우는 점심 때가 지나도록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 배가 고파진 여우는 만사를 제쳐두고 먹이를 찾아 나서기로 했다. 한참을 헤매던 여우는 마침내 포도나무 한 그루를 발견했다. 여우는 높다랗게 달려 있는 포도송이를 올려다봤다. 포도가 너무 높다랗게 달려 있어 따먹기가 힘들어 보였다.

슬픔에 잠긴 여우는 어떻게 하면 따먹을 수 있을지 고민했다. 그러나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푸른 잎사귀 사이로 검은 알멩이를 드러낸 채 드높이 달려 있는 포도를 바라보며 여우는 고작 침만 흘려야 했다.

시험삼아 몇 번 펄쩍 뛰어올라보았지만, 여우는 포도를 따먹을 수 없었다.

여우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먹고 싶지 않아. 저 포도는 너무 시어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을 거야."

예전에 읽은 이솝우화의 이 여우는 그저 포기에 급급한 나태한 자의 표상이 아니었을까? 포도 열매를 먹지 못한 여우는 최선에 또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게으르고 불성실하게만 느껴졌다.

이런 생각과 함께 동화책을 덮으면서 든 생각은 이랬다.

"여우는 왜 한 번 더 뛰어오르지 않았을까?"

"왜 다시 한번 숨 고르고 더 높이 오르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을까?"

"너무 이른 포기로 나중에 후회하지는 않을까?"

"안 되면 될 때까지 밀어붙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세상에 노력해서 안 되는 일이 있을까?"

이솝우화의 포도를 얻지 못한 여우를 바라보던 나의 시선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해야한다는 기성세대의 사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결론까지 이르렀다. 포도를 따기 위해 애쓰고 발버둥 치던 여우의 땀방울은 결과를 성취하지 못했다는 결론에 덮어져 있었다.

결국, 포도를 먹지 못한 여우의 한탄은 성공하지 못한 자의 비겁한 변명에 지나지 않았다.

현대사회는 결과를 중시한다. 열매를 얻었는지, 얻지 못했는지가 중요할 뿐이다. 열매가 열리기까지의 과정과 그것을 얻기 위한 자의 노력은 주목받지 못하는 세상이다.

아니나 다를까? 최근 캐나다 밴쿠버 올림픽이 끝났다. 언론에서는 김연아, 모태범, 이상화, 이정수 등 금메달 리스트들만 연일 주목받고 있다.

올림픽을 위해 지난 4년 땀 흘렸던 선수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들도 관심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먹음직스러운 포도를 뒤로하고 돌아서는 여우의 한탄은 한낮 나약하고 게으른 변명이라 배웠을 터이다. 또, 수 년간의 노력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돼도 결과물이 없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지금까지 과정을 뒷받침해야 하는 공정성과 정직함이 성취해야만 하는 결과 앞에서 변명거리가 되지 못했다면 이제는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포도를 먹지 못하고 변명을 남긴 여우가 측은하다. 다소 안쓰럽기까지도 하다.

열매를 얻기 위해 애쓰던 여우의 땀방울과 그것을 얻지 못한 채 뒤돌아서며 내던지는 귀여운 변명을 이해할 수 있는 자비를 기르자. 성공의 문턱에서 돌아서야만 하는 그 마음 속을 완전히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포도 열매들을 향해 뛰어올랐던 여우의 땀방울을 인정해 주자.

내가 원하던 것들이 모두 이루어질 수는 없다. 구하던 모든 것들을 내 인생 안에 놓을 수는 없다. 다만 그것들을 향해 달려갔던 나의 시간들을 부정하지는 말자. 그 시간들에 흘린 수많은 땀들과 눈물마저 부인하지는 말자. 또다시 새로운 봄이다.

다시 계절이 바뀌면서 누군가는 성취의 기쁨을 누리겠지만 누군가는 저 여우의 변명과 같이 성공의 문턱에서 되돌아갈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지나간 시간들의 수많은 땀과 눈물을 잊지는 말자. 그리고 혹시 나의 시도가 실패하더라도 초조하거나 불안해하지는 말자.

지금의 실패는 여우의 포도와 같이 아직 열매가 익지 않아서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단 돌아서서 '아직 여물지 않아 시고 맛없는' 열매를 탓하며 다음을 준비해도 늦지는 않을 것이다.

사 설

총무원은 더 많은 의견을 들어야 한다

조계종 총무원 부원장제 도입, 도선사 · 봉은사의 직영사찰 신규 지정, 동국대학교 이사후보 선출을 둘러싼 논란이 예사롭지 않다.

부원장제는 총무원장의 과다한 업무를 줄이기 위한 제도 보완이며, 직영사찰 신규 지정은 총무원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총무원은 설명하고 있다.

부원장제 도입은 종헌을 개정해야 가능하다. 직영사찰 신규 지정은 해당 사찰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하지 않으면 마찰을 빚을 수도 있다. 당장 해당 사찰은 촉각을 곤두세우며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동국대학교 이사후보 선출과 관련해서는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가 성명서를 발표해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학교 설립 시 많은 자산을 출연한 월정사 등의 권리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몇 사찰이 제기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반발 기류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부원장제 도입 등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옳다거나 그르다거나 살피기에 앞서 종회 개원을 며칠 앞두고 논의에 부쳐진 것이 괜찮은 것인지 묻고 싶다.

총무원장의 업무 과다가 부원장제 도입의 가장 큰 이유라면, 사서실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나 새로운 부서의 신설 등 종헌을 개정하지 않고도 시행 가능한 여러 방안을 검토했을 것이다. 총무원에서는 그럼에도 부원장제 도입이 적절한 방안이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종헌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중앙종회에 안건 상정을 요청하기 전에 많은 종도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굳이 생략을 필요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재정과 관련한 총무원의 고충을 모르는바 아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종교인 불교의 장자종단 조계종의 1년 예산이 347억 원 정도라는 것은 누가 보아도 빈약하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한데, 사찰에서 내는 분담금을 인상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몇몇 재정이 우량한 사찰을 직영사찰로 지정하려 했을 것이다.

직영사찰을 신규로 지정하려면서 왜 선본사를 직영사찰에서 해제하려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다. 총무원의 재정 형편을 설명하고, 분담금을 올리기 위해 사찰들의 협조를 얻어내는 방안을 내놓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총무원이 추진하는 사업에 교구본사를 참여시켜 결과적으로 분담금을 상향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방안도 검토해볼만 하다. 여러 방안들을 숙고했으나 직영사찰 신규 지정이 가장 현실성 있고 타당한 방안이라고 결론을 내렸던 것일까.

그럼에도 총무원 재정을 공론의 장으로 내놓고 많은 종도들의 지혜를 모으지 않았는지 내내 아쉽다. 종도들의 대의기구인 종회의 논의를 거치려 했지 않았느냐고 말할 수 있으며, 이는 맞다. 그렇다면 직영사찰 신규 지정보다 총무원 재정 확보 방안을 제출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부원장제 도입과 직영사찰 신규 지정 추진이 종단 발전을 위한 총무원의 구상일 텐데도, 감추어진 의도가 무엇이냐고 질책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화합을 바탕으로 나아가야 할 총무원과 중앙종회가 오해와 불신과 권력다툼의 늪으로 빠져들어가서는 안 된다. 안으로 화합을 바탕으로 개혁을 이뤄내고, 밖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자비보살행을 구현하는 종단으로 나아가지 않겠는가. 총무원은 부원장제 도입과 재정 확보 취지에 맞는 주제를 다시 설정해 공론의 장에 내놓아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강원지사 : (033)744-3618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화제의 신간
누·구·나·쉽·게·이·해·하·고·배·울·수·있·는!!
핵·심·사·주
1천여 년만에 탄생하는 새로운 정법 학설 !!
四柱學의 초보자나 학생, 전문가, 걸흔 중개사는 꼭 배워야하는 四柱學의 秘傳으로 누구나 이 책 한권으로 한번만 읽어도 쉽게 專門家가 될 수 있도록 核心만을 간추렸다.
대대로 수제자들에게만 전해져온 사주풀이의 비법을 공개한 이 책은 기존 대부분의 사주풀이 방법을 완전 뒤집은 진정한 사주풀이의 혁명적 秘書가 될 것이다. 특히 여자사주와 궁합의 원리는 한국 古代 道人들로부터 秘傳으로 傳受되어온 秘法으로 天氣를 누설한 四柱學의 革命을 가져 올 力作이다.
이제 천기를 누설 한다 !!
기존의 사주학 학설로는 오직 개인의 숙명의 귀,천 만을 알 수 있고 미래 운명의 예측은 50여%에 미달하고 전혀 반대되는 운명을 예측하는 오류가 있다. 본 "핵심사주"는 1천여 년 만에 사주학의 올바른 정법 법칙을 완성한 역작이다!!
왜 핵심사주인가.
차기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최초로 공개되는 궁합의 비법!!
지금 바로 펼쳐 보십시오.
鄭炳玉 博士 지음 / 신국판 / 336쪽 / 정가 25,000원
한국인의 별점 자미두수 비법
이제 당신도 점술가가 될 수 있다! 역술무속인들도 숨겨놓고 본다.
천기가 누설된다고 하여 나라에서 금기시켰던 자미두수! 앉아서도 십리를 알 수 있는 고산의 자미두수가 당신의 운세를 알려 주는 것은 물론 당신을 귀신도 곡하는 신통한 점술가로 만들어 준다.
◆ 한국별점 자미두수가 당신의 운세를 …
이 학문은 고대 중국의 진희라는 사람이 기도 중 천기를 받아 창안한 성리학이다.
특히 천지조화를 터득하고 인간의 부귀빈천과 길흉화복을 예지 타의추종을 불허할 만큼 그 정확성이 뛰어나며 귀신도 울고간다하여 금기된 적도 있다. 인연있는 후학자들에 의해 꾸준히 연구 지금의 자미두수로 오늘에 이르렀다. 아무쪼록 이 책이 독자 여러분께 좋은 운명의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
高山 엄창용 지음/4×6배판/양장본/45,000원
전국 서점 판매중!
육임이 보인다 功念 지음/ 4×6배판/양장본/70,000원
韓國人의 新 사주팔자 신국판/청산 김성진 지음/35,000원
新 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송월 스님 지음/양장본/50,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김백만 편저/신국판/양장본/50,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4×6배판/이선암,전호일 공저/양장본/25,000원
四柱命理 韓方處方學 徐昇煥 지음/4×6배판/양장본 I 권 880쪽 II권 680쪽/각 권 50,000원
풍수 양택통론 신국판/양장본/신평 지음/26,000원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 "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동백은 통꽃으로 지고 기러기떼 하늘길을 아네

정월 보름날 호남 들판

붉은 색과 풀색이
이토록 아름다운 장면이
또 어디 있을까

•
•
•

지조를 버리지 않고
정의의 길이라면
험난해도 기어이 가는
열사를 닮았어라



1894년 일어난 갑오농민전쟁은 낡고 썩은 봉건왕조를 갈아엎고 민중의 새 세상을 세우려 했던 혁명이었습니다. 한반도 제일의 곡창지대인 전라도 땅. 악질 탐관오리 조병갑이 이곳 전라도 고부군의 군수로 오면서 가뜩 등이 휠대로 휜 살림은 더욱 처참해졌습니다. 조병갑의 수탈과 착취, 폭정에 시달리던 백성은 마침내 1월 10일 밤, 고부관아로 쳐들어가면서 갑오농민전쟁은 시작됩니다.

불행하게도 녹두장군 전봉준을 비롯한 농민군의 꿈은 외세를 불러들인 비겁한 왕조로 무산되었죠. 나약하고 비겁한 왕조가 역사의 발전을 거부하고 낡은 체제를 유지하려다가 오히려 나라를 빼앗기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농민군의 염원은 뒷날 조국독립과 해방을 일구려는 민중의 뜨거운 가슴으로 전해져 마침내 봉건체제와 식민체제를 동시에 무너뜨리고 조국을 되찾습니다.

봉기가 일어난 지 옹근 백년이 되던 1994년 1월. 어느 주간지에 갑오농민전쟁을 연재하느라 역사의 현장을 두루 밟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농민군이 봉기하던 마을에서 고부관아로 가는 들판, 그리고 농민군이 미륵의 비결을 얻었다는 고창 선운사, 농민군이 치열한 전투를 벌여 첫 승리를 했던 황토현, 녹두장군이 밀고로 잡히기 전날 묵었던 장수 백양사 산내암자 등 현장을 돌아보면서 새 세상을 이루려던 민중의 염원을 새기다 보니 가슴이 뭉클하더군요.

왜 농민군은 한겨울, 그것도 정월 보름을 앞두고 봉기했을까 하는 의문도 현장을 돌아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보름을 넘기면 이제 밭농사가 본격 제철을 맞고 그러다 보면 금방 논농사 철이 됩니다. 아무리 백정같은 관리나 지주들이 생산물을 수탈한다 하여도 농사꾼은 역시 흙냄새에 약한 무지렁이입니다. 알곡 한 알 제 것으로 챙기지 못해도 땅을 일구고 씨앗을 뿌려 곡식과 채소를 생산하는데 게으를 수 없는 게 그네들의 심성입니다. 그러니 농사철이 오기 전 못된 관리를 징치하고자 작정한 일을 잡도리하고 단단히 매조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아직 언땅이 풀리기 전 드디어 봉기를 감행한 겁니다.

음력 정월보름을 앞뒤로 하여 시간 내어 호남땅을 둘러보시길 권합니다. 그 밤에 커다랗게 떠서 농민군의 발길을 밝혀주던 보름달의 안내도 받아 보십시오. 그리하면 다른 지방에서는 얻을 수 없는 세 가지 장면을 보게 될 겁니다.

그 첫째로, 유독 호남에서만 볼 수 있는 붉은 황토밭을 봅니다. 호남의 황토는 여느 지방의 흙하고는 달리 정말 붉습니다. 이제 봄철을 맞아 밭농사를 하려고 막 갈아 엎은 황토밭은 마치 물감으로 적신 땅으로 착각하리만치 벌겋습니다. 거기다 고랑을 잘 다듬어 놓은 붉은 황토밭의 옆 보리밭에서는 환상적으로 대비되는 푸른 보리싹이 생명의 싱그러움을 한껏 노래합니다. 붉은 색과 풀색이 이토록 아름다운 장면이 어디 또 있을까. 이 아름다운 정경을 짓밟고 백성의 고혈을 빠는 자들이 있다니 그네들을 징치하지 않고서야 어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왜 이 고장에서 봉기가 일어났는가를 넉넉히 짐작하게 됩니다. 민중미술의 일세대인 임옥상 화백은 일찍이 이 고장의 이때쯤을 그림으로 그렸으니 이분의 작품을 감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농민군은 왜 정월 보름을 앞두고 봉기했을까

붉은 황토밭과 푸른 보리싹, 생명은 싱그럽다

두 번째는 동백입니다. 동백꽃을 '열사의 꽃'이라고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모든 꽃들이 화려하게 피었다가는 꽃잎을 떨구며 시들어 갑니다만, 동백꽃은 그 붉은 모습 그대로 있다가 어느 날 '통꽃'으로 집니다. 목이 부러지듯 툭 하고 떨어집니다. 지조를 버리지 않고 정의의 길이라면 그 길이 아무리 험난한 길이라도 기어이 가고 마는 이, 하여 그 길에서 목숨도 버려야 한다면 서슴없이 실천하는 이를 열사라 합니다. 그러니 동백을 열사의 꽃이라 하고 또 열사를 동백처럼 가신 분이라 하는 게지요.

농민군의 발자취를 더듬던 그때, 김제의 작은 절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사방이 까무룩하게 고요한 밤. 세속에 찌든 나그네는 상념으로 잠 못 들고 있는데, 어디선가 '툭, 툭'하는 소리가 들리더란 말입니다. 알고 보니 절마당의 동백나무에서 동백꽃이 떨어지는 소리입니다. 통꽃으로 지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으려고 그 깊은 밤에 스스로 제 목을 자르더라고요. 두툼하며 짙은 풀색의 잎에 꽃은 열정적으로 붉더니 그 생의 마무리를 그처럼 지조 있게 가름하니 많은 시인이 이 꽃을 노래하나 봅니다.

우리나라 민중미술의 빼놓을 수 없는 이 가운데 한분이 강요배 화백입니다. 제주가 고향인 강 화백은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잔인한 학살로 기록되는 1948년 4월의 '4 · 3제주학살'의 진상을 밝히는데 앞장 선 화가입니다. 자연 강 화백은 그 사건을 소재로 그린 그림이 많습니다. 눈에 선연하게 기억되는 작품 가운데 바로 '통꽃으로 지다'가 있습니다. 제주도 오름의 골에서 서북청년단이 양민을 학살하는 그림입니다. 소재가 그렇다고 그림이 잔인하지는 않습니다. 동백을 정면에 크게 그리고 그 먼 뒤쪽 오름의 골에서 벌어지는 현장은 마치 사진기의 흐려진 초점마냥 그렸습니다. 역사를 알고 동백을 사랑하는 이들이시여, 이 그림을 보며 우리의 아픈 역사를 되돌아보시길.

세 번째입니다. 그날이었던가 아니면 다른 날 다른 절에서인가, 아무튼 바닷가 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잠이 오지 않아 슬그머니 절을 나와 가까운 소나무숲에 들었습니다. 숲을 가르는 밤바람이 아직 차가웠습니다. 겨울의 하늘은 푸른빛이 서려있었습니다. 그 밤하늘엔 커다란 정월보름달이 휘영청 걸려 있는데, 아 이건 또 뭡니까? 그 보름달을 배경으로 기러기떼가 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지 뭡니까. 지난 가을 저 먼 시베리아에서 마녁(남)으로 내려와 겨울을 지내고 다시 제 온 자리로 돌아가는 철새가 서로를 달래느라 '끼룩 끼룩' 거리며 시린 밤하늘에 멋진 무늬를 놓는 모습. 한 무리의 기러기떼가 가고 나면 그 뒤를 이어 또 한 무리의 기러기가 밤하늘을 시옷자로 지나갑니다. 올려다보는 보름달에도 그들이 지나갑니다. 이 겨울밤을 이토록 아름답게 만들며 가는 저들의 정체는 뭡니까. 하늘의 길을 아는 짐승이니, 하늘이 가르쳐 준 삶의 길도 못 찾는 사람보다 훨씬 영민합니다. 때 되면 마녁으로 날아 와 또 때가 되면 노녁(북)으로 가는 저들에게 휴전선으로 차단된 채 오도 가도 못하는 이 겨레의 현실은 또 뭡니까.

이 철에 호남에 가는데 별나게 길라잡이가 필요치는 않습니다. 제 글도 그저 참고일 따름입니다. 그곳에 서린 우리 역사를 더듬는 마음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시는 길에 이왕이면 작년 탄생 백주년이라 하여 세간에 이름이 오르내린 구보 박태원의 대하소설 <갑오농민전쟁>(1988. 도서출판 공동체)을 읽고 가면 더 좋고 금상첨화로 앞서 밝힌 두 화백의 그림도 눈에 담고 가시길 권합니다.



서동석 민중불교운동연합 의장, 총지종 복재재단 사무국장, 조계종 10 · 27법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추진위 상임위원 역임. 현 통일문제연구소 운영위원, 민주화운동공제회 이사.



영봉(해종) 스님은
1990년 부처님오신날 세계최초 성직자 신분으로 히말라야 메라픽(6750m)을 등정해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이후 20여 년째 안나푸르나, 킬리만자로 등 세계 고산등정을 계속 하고 있다. 현재는 네팔 카트만두에서 '세종한국문화언어교육원'을 설립 현지 가이드 셀파 포타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영봉스님과 함께 나를 찾아가는 '히말라야 행선 트레킹'

세계 최고봉 16좌 가운데 10좌를 한 눈에 볼 있는 곳 히말라야 트레킹의 베스트 코스 피케이봉(4200m)을 오르는 동안 누구나 수행자가 되고 누구나 깨달음의 순간을 체험하게 됩니다.

네팔 카트만두에 영봉스님이 개설하여 운영 중인 '세종 한국문화 언어교육원'과 한국내 영봉스님 후원회 '히말라야의 꿈'이 공동 진행하는 제2차 영봉스님과 함께 나를 찾아가는 히말라야 행성 트레킹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동참 안내
- ◆일 시 : 2010년 4월 9일 (금) ~ 23일 (15일)
- ◆코 스 : 인천공항 대한항공 직항 → 카트만두 → 지리 → 시발라야 → 반달 → 마일리 → 불불레 → 베이스캠프 → 피케이봉 정상 → 준베시 → 반달 → 시발라야(의료봉사) → 지리 → 카트만두(시내관광 등) → 인천공항
- ◆인 원 : 30명 선착순. ◆접 수 마 감 : 4월 2일 (금)
- ◆참 가 비 : 287만원 (비자비 5만원 별도)
- ◆입 금 계 좌 : 국민은행 718202-01-142493 (예금주 : 임연태)
- ◆사전설명회 : 4월 3일 (토) 오후 4시 (장소-개별공지)
- ◆문 의 : 임연태 (히말라야의 꿈 사무총장) 017-236-5769

공동 주최
◆세종 한국문화 언어교육원 / 히말라야의 꿈